

새 천년의 비전과 꿈과 희망을...

새로운 천년을 여는 2000년도를 맞이했다. 김운용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00년도에는 밖으로 세계 속에 한국의 체육문화를 심고 국위를 선양하면서 안으로는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북돋우는데 앞장 설 것"이라며 새롭게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올해에는 특히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총력을 기울여 세계 10위권의 위상을 지킬 것이며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

했다.

한편 21세기에도 한국의 스포츠가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남북통일의 물꼬를 틀 체육교류를 다각적으로 시행할 뜻을 밝혔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드니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자랑스런 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확산, 보급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사



시드니 올림픽에서 세계 10위권 지킨다

대망의 200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체육발전에 깊은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체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진년 용의 해이면서 새천년의 기원이 되는 2000년도에도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밖으로 세계 속에 한국의 체육문화를 심고 국위를 선양하면서 안으로는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북돋우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올해는 새천년의 첫 올림픽인 시드니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이번 시드니 올림픽에서 그동안 한국스포츠가 이룩한 뛰어난 경기력으로 총력을 기울여 세계 10위권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새천년의 비전과 함께 꿈과 희망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 한국체육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세계와의 경쟁을 통해서 당당히 세계 스포츠의 중심을 향해 전진하였습니다.

동·하계올림픽 7연속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금자탑을 쌓았고 평화시 인류 최대의 제전이라는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유산을 바탕으로 한국 체육은 각종 국제종합대회와 국제회의의 유치, 그리고 발군의 경기력으로 민족의 자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세계 속에 그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21세기에는 스포츠가 국민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이며 세계와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균형적 발전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21세기 청사진을 밝힌다면 먼저 국내적으로는 국민에게 스포츠를 통한 밝고 명랑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켜 나갈 것입니다.

47개의 가맹경기단체와 16개 시도지부와 함께 올림픽과 스포츠 정신을 전 국민 속에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그리고 각종 국내 경기대회를 포함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 여러분 모두가 스포츠를 생활화하는 토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21세기에 더욱 치열해질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세계 속에 과감히 뛰어들어 경쟁에서 이겨 나갈 힘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한국체육은 지금 IOC 200개 회원국 10위권 이내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각고의 노력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닥칠 21세기에서 우리가 현재의 위치를 지켜나가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선수들의 높은 국제경쟁력을 키워 올 수 있었던 것은 태릉선수촌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훈련과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앞에서 끌고 경기단체가 뒤에서 밀어준 결과라 하겠습니까.

스포츠 외교력 강화에 더욱 힘쓰다

21세기에는 언론, 학자 등 각계의 의견 등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열린 체육행정을 실시하면서 21세기에 맞는 훈련 방법과 선수발굴로 경기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21세기에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스포츠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스포츠 외교력 강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을 바탕으로 지난 세기 동안에 우리나라 스포츠가 도약기를 맞이했다면 21세기에는 한국 스포츠가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회는 시대의 흐름을 앞서 타면 그 역량을 쌓아야만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지난해까지 한국 스포츠가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터를 닦았습니다.

특히 90년대에 무주 - 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 강원 동계아시안게임, OCA 총회, GAISF 총회, 세계생활체육총회, IOC 집행위원회와 총회를 국내에 유치하였고 20세기와 21세기를 잇는 가교인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은 21세기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 스포츠가 21세기에도 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희망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혼신의 정열을 기울여 나갈 것을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세기에 한국체육이 세계스포츠계를 주도하도록 각종 국제체육기구에 한국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으겠습니다.

체육교류 통해 남북 통일의 물꼬 터

평화와 화해의 시대인 21세기의 최후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더이상 아픔을 지속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북한과의 체육교류를 통해 남북통일의 물꼬를 터보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IOC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지속적인 교섭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가시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한팀 참가와 각종 국제대회에 남북단일팀 구성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꾸준히 인내를 갖고 계속 교섭을 타진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여는 마당에서 스포츠 문화는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다가설 것입니다.

21세기를 맞는 체육인들의 자세도 더욱 결연한 의지와 사명감에 가득차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한국체육은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21세기에 맞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21세기에도 한국체육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당장 당락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한국체육이 세계 10위권에 진입,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적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태권도, 세계속에 한국문화 널리 보급

또한 20세기는 태권도가 첫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한국의 문화를 세계 속에 심은 것처럼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를 스포츠를 통해 세계에 널리 확산, 보급토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체육은 격변하는 새 세기를 맞아 국민과 함께 세계사의 거친 격랑을 능동적이고 과감하게 헤쳐나가 세계 속에 한국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실력을 쌓아 갈 것입니다.

100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 체육은 묵묵히 늘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고 국위를 높이 선양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충실히 이룩해 왔습니다.

이제는 세계 스포츠 발전과 올림픽 운동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시야를 세계로 돌려 21세기에는 세계 정상에 있는 한국체육을 국민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배전의 관심과 성원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0. 1. 1

대한체육회 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 윤 용



2000년은 시드니 올림픽의 해 개최 준비 상황과 특징을 알아본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마스코트는 시드니의 명물인 동물 세마리. 왼쪽부터 몸총새 '올리', 오리너구리 '시드', 바늘두더지 '밀리'의 귀여운 모습.

2000년은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경기종목으로 채택된 시드니 올림픽의 해다.

1956년 멜버른에서 남반구 최초의 올림픽이 열린 지 44년만에 같은 호주에서 또다시 올림픽성

화가 타오르게 됐다. 대회가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17일간으로 지난 애틀란티드대회의 26경기 271세부종목을 웃도는 사상 최다인 28경기 300세부종목이 실시될 예정이다.

태권도와 트라이애슬론이 처음으로 경기종목으로 채택되며 세부종목으로는 체조에 트램폴린, 사이클에 게이린(경륜), 다이빙에는 두사람이 동시에 뛰어들어 개개의 연기와 두사람의 조화를 겨루는 싱크로나이즈드다이빙, 그리고 역도에 여자부 등이 처음으로 선을 보인다.

전체로서는 여성의 참가율이 넓어져 선수총수 약 1만 3백명 가운데 여성이 약 3천 9백명이 이를 전망이다.

시드니 올림픽의 개최준비상황과 특징을 알아본다.

사상최대 수용인원의 주경기장 완공

올림픽 같은 큰 종합체전이 열리게 되면 '과연 대회가 열릴 때까지 시설이 완공될까?'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으레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시드니 올림픽에 관한한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될 것 같다. 각 경기장은 과거의 하계 올림픽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가 힘든만치 순조롭게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시드니의 시중심부로부터 서쪽으로 17km 떨어진 홈부슈베이징구의 주경기장 '시드니 올림픽 파크'에는 15개 경기종목의 경기장이 집중돼 있다.

개폐회식이나 육상, 축구의 결승이 치러질 11만 수용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는 예정보다 3개월이나 빠른 지난 3월에 이미 공사를 끝내고 6월에는 공식오픈했다.

지면으로부터 지붕까지의 높이는 52m나 된다.

과거 최고였던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의 수용인원 10만 1천명을 앞지르는 크기다.

지난 8월 하순에 있었던 호주대 뉴질랜드의 럭비의 테스트 경기에는 10만 7천명이나 되는 관중들이 몰려들었다.

역시 지난 8월에 범태평양 수영선수권대회의 경기

장이 됐던 국제 아쿠아티센터는 이미 5년 전에 완성됐고 현재 4천 4백명 수용의 관중석은 올림픽이 개막할 때까지 약 4백인 1만 7천 5백명 규모로 늘어난다.

체조와 농구가 치러질 2만 1천명 수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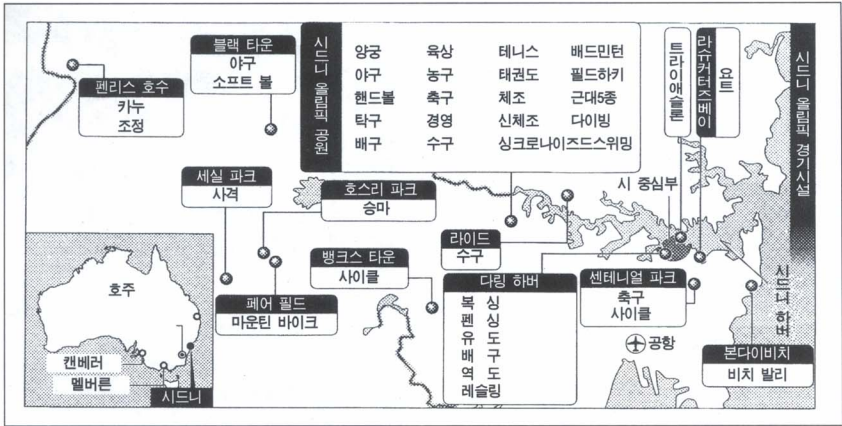
실내 경기장 슈퍼돔도 지난 9월에 완성됐다. 이로써 육상, 수영 그리고 주실내경기장의 3개 주요경기장이 마무리 지어졌다.

올림픽 파크안의 경기시설은 올해 안으로 거의 모두 공사가 끝날 예정이다.

내년부터 착공할 가설(假設)의 비치발리볼 경기장을 제외하면 건설이 가장 늦은 것이 2000년 3월에



▲지난 7월 유럽의 싱크로나이즈드다이빙 3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프랑스 페어의 화려한 시기.



완공될 수구예선 경기장이 될 풀이다.
조직위원회의 샌디 홀웨이 사무총장도 '경기장 건설은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을 나타낸다.

올림픽사상 최초의 단일 선수촌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분촌(分村)을 만들지 않고 모든 선수가 한곳에 묵는 선수촌도 '콤팩트 개최'를 내세우는 시드니 올림픽의 자랑거리다.
2000년 6월 완성예정인 이 선수촌은 다른 주에서 개최하는 축구의 예선 경기장을 제외하면 모든 경기장과 40분이내의 거리에 있다.

선수촌의 건물은 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을 발전에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약 1천호의 일반용 주택으로 모습을 바꾸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 에너지 사용고을'이 된다.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정비도 급속도로 진행되고있다.

시드니 시내내 대회기간 중 연 약 820만명의 사람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루 평균 약 40만명이 들락거릴 것으로 보고있으며 가장 혼잡하기 쉬운 폐회식 당일은 75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인구는 평소의 약 2배로 불어난다. 시내 곳곳에서는 도로공사현장을 보게된다. 보도의 확장공사다.

『시내전체를 파티장으로 만들자』는 발상으로 방문자에게 조금도 답답함을 느끼게 하지않고 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시내의 공원이나 광장 등 주요 6곳에 대형스크린



▲태권도는 남자 4개 체급 여자 4개 체급으로 한나라의 최대 엔트리는 남자 2체급 여자 2체급으로 제한돼 있다.

을 마련해놓고 경기를 중계하는 계획도있다.
공항에는 약 3억 5천만 호주달러(약 3천억원)를 들여 국제선 터미널을 확장했다.
공항과 시내사이의 교통은 지금까지 자동차에만 의존했었기 때문에 정체에 말려드는 일도 가끔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따로 길을 또 내고 새로 공항과 직결하는 철도를 8억 호주달러(약 7천억원)를 들여 건설하고 있다.

역시 교통문제가 가장 골칫거리

단 한가지 문제가 남는다면 시내의 교통이다. 시드니 중심부는 평소에도 정체가 심하다.
시드니시와 올림픽교통공사는 트럭 등 업무용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시간대를 밤중부터 아침까지로 제한하는 한편 대회관계자 이외의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지정하는 등 교통규제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그 고장기업들로부터는 「장사를 할 수 없다」는 반발도 일어나고 있어 조정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컴팩트 올림픽」은 「과밀올림픽」이 될지도 모른다. 하드면에서의 준비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지혜를 짜내 운용을 매끄럽게 하느냐가 성공의 열쇠다.

만약 시드니 올림픽에서 교통문제를 그럴듯하게 해결만 한다면 앞으로 열릴 올림픽 개최지에게는 큰 참고가 될 것이다.

거국적인 선수강화 작업

지난 9월 호주에서의 시드니 올림픽 입장권 신청은 '96 애틀란타 올림픽의 31만 2천건을 조금 앞섰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인구가 고작 1천 9백만이고 미국의 인구가 2억 6천 9백만인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약 14배나 되는 입장권 신청인 셈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세계 챔피언도 인구비례로 따진다면 호주는 세계톱클라스의 스포츠 강국이다.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호주는 엘리트 선수의 강



▲시드니 올림픽의 경기시설이 몰려있는 홈부슈베이지구. 맨앞이 개폐회식장으로 쓰이는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 뒷쪽은 시드니 시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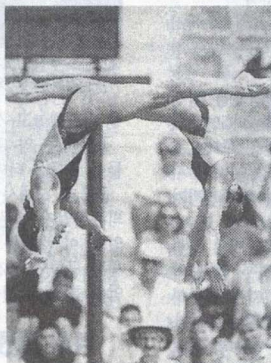
시드니 올림픽의 새로운 2개 경기종목, 그리고 세부종목을 살펴본다

❑ 태권도 = 세계선수권이나 아시아선수권 등은 남녀 각 8개 체급씩이지만 올림픽은 각 4개 체급씩이다. 그리고 한나라의 최대 엔트리는 남자 2체급 여자 2체급으로 제한돼있어 중주국인 한국도 압도적인 독주는 어렵도록 돼있다.

❑ 트라이애슬론 = 라틴어의 「3-트라이」와 경기를 뜻하는 「애슬론」의 합성어. 수영, 사이클, 그리고 달리기를 계속해서 치른다. 긴거리의 대회도 있으나 올림픽은 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의 「올림픽 디스턴스」로 치러진다.

❑ 심크로나이즈 다이빙 = 수영 다이빙의 새로운 세부종목. 미국서는 소로서 치러지고 있었으며 TV에 잘 받는다고 채택됐다. 남녀 모두 3m 스프링보드 다이빙과 10m 하이다이빙의 2개 종목이 있으며 페어를 짝 두사람이 높이, 그리고 입수의 타이밍이 딱 맞지 않으면 개개의 기술이 뛰어나도 메달획득은 힘들다.

❑ 게이린(경륜) = 일본의 경륜이 국제종목으로 발전.



▲공중에서 비틀기, 회전 등의 재주를 겨루는 트램폴린.

채택된 것 경기방법에 큰 차이는 없으나 선도라는 페이스 메이커는 데르니라 볼리우는 엔진달린 사이클을 사용한다. 거리는 2000m. 사이클에서는 3인 1개팀으로 3바퀴 돌아 타임을 겨루는 올림픽 스프린트도 새 종목이다.

❑ 트램폴린 = 세로 42m 가로 21m의 스프링 달린 매트 위에서 높이 뛰어 올라 공중에서의 비틀기, 회전 등을 되풀이한다. 기술의 난이도와 아름다움을 겨룬다. 체조의 세부종목으로 치러진다.

❑ 여자 정대높이뛰기 = 남자는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부브카가 6m14의 세계기록을 세웠고 여자도 지난 여름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미국의 스테시 드라기라가 4m60의 세계타이 기록을 마크해 「시드니에서는 5m 돌파의 겨루기가 될 것」이라 예고했다.

❑ 여자역도 = 여자는 48kg급부터 75kg이상급까지 7개 체급. 등급이 막강함을 자랑하는 종목이지만 한나라의 최대 엔트리는 태권도처럼 4명까지도 제한돼 있어 전체급제에는 못하도록 돼있다.

75kg이상급까지 7개 체급. 등급이 막강함을 자랑하는 종목이지만 한나라의 최대 엔트리는 태권도처럼 4명까지도 제한돼 있어 전체급제에는 못하도록 돼있다.

화에 크게 힘쓰고 있다.

8월 29일까지 시드니에서 치러진 범태평양 수영선수권대회에서 호주세는 16살의 이안 소프가 남자자유형에서 세계신기록을 잇따라 세우는 등 막강함을 자랑했다.

수영 가운데도 경영을 지금 스포츠강국 호주의 상징적 종목이다.

대표선수 대부분은 독립스포츠연구소(AIS)에서 훈련하고 있다. 애틀란타 올림픽 때는 호주대표팀 425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47명이 AIS소속이었다.

한동안 세계 정상급이었던 호주의 스포츠수준이 떨어져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 단 1개의 금메달도 따지못하자 호주스포츠계는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81년 정부를 설득해서 수도 캔베라에 AIS를 창설시켰다.

당초는 수영, 육상, 테니스, 축구 등 8개 경기종목의 거점이었다. AIS는 점차 경기종목수를 늘려나가 지금은 26개경기종목을 커버하고 있다.

AIS에는 외국인 코치도 적지않다.

경영은 구소련의 국가대표선수였던 게나디 트레츠키를 93년에 맞이해 성과를 올리고 있고 다이빙은 중국인, 사격은 이탈리아, 구유고슬라비아, 구소련의 3명의 코치가 지도하고 있다.

AIS는 매년 6백명의 장학생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훈련실형제군, 지도력제공 밖에도 가정교사까지 제공해주고 있다.

AIS말고 뉴사우스웨일즈, 퀸즈랜드, 빅토리아 등 각주에도 스포츠연구소가 있다.

이 스포츠연구소들은 AIS와 손을 잡고 장래성 있는 젊은 선수를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정점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호주스포츠를 통괄하고 있는 호주스포츠위원회(ASC)다.

연방정부로부터 연간 8천 4백만 호주달러 (약 740억원 = 96년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시드니 올림픽이나 장애인올림픽을 겨냥한 특별 강화 훈련인 '올림픽선수 프로그램'은 ASC가 94년에 시작한 주요사업으로 6년동안에 총액 1억 3천 5백만 호주달러 (약 1천 2백억원)이 투입됐다.

인구의 35%가 스포츠에 참가

호주통계국이 97년에 발표한 스포츠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5살 이상에서 약 580만명이 클럽 등의 조직에 들어가 스포츠에 참가하고 있다. 이 숫자는 5살 이상 인구의 35%에 해당된다.

남성은 골프, 여자는 에어로빅스가 으뜸이다. 한편



▲통역들도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공호흡 등 구급보살핌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돈을 들이지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는 스포츠는 여름에 수영, 겨울에는 사이클로 나와있다.

5월부터 14살까지의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가 있는 것은 역시 수영이다.

통역들도 구급보살핌 훈련

지난 9월의 어느날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SOCOG)결의 시드니 공과대학 교실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실습을 치르고 있었다.

교실에 모인 수강생은 약 20명 모두 SOCOG에서 통역으로 일할 예정이다. 이날의 실습은 「응급처치」로 인공 호흡의 실기를 익히기 위해 실제 사람 크기의 인형을 이용한다.

통역이라 하더라도 언제 긴급의 상황에 임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구급보살핌의 코스가 마련됐다. 실습은 상오 9시부터 하오 1시까지 착실히 치러졌다. 시드니 올림픽을 뒤에서 받치는 자원봉사자는 약 4만명에 이른다. 그들의 활약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좌우하는 하나의 큰 요소가 된다.

호주에는 TAFE라는 전문 학교가 있다.

여러 가지 전문적 기능을 교육해 온 실적을 높이 평가받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모개로 맡았고, 시드니 올림픽의 스폰서도 맡았다. 인공호흡실습도 TAFE가 기획한 것이다.

「본격적인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강습은 9월 이후부터입니다. 너무 빨리 훈련시키면 모두 잊어버리기 쉬우니까요.」라고 TAFE의 올림픽 책임자 데이빗 리우단은 말한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가운데 리더적인 사람들은 이미 지난 9월에 강습을 받아 테스트이벤트에서는 각 경기장에 흩어져 현장을 체험했다.

여자는 지난해 국가대표 5명 자리 지켜 대조

남자 대폭 물갈이 - 대학

경희대 5명의 대표 1진 배출 쾌거 이룩
남녀 해비급 문대성, 신경현 패자부활전 통해 값진 승리

올해 태극마크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국기원에서 2000년도 한국 대표선수 최종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 중국 홍콩에서 거행되는 제 14회 아시아선수권대회와 4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2000년도 월드컵대회에 파견할 남녀 국가대표 1, 2진을 각각 선발했다.

체급별로 매일 예선부터 결승까지 경기가 펼쳐지는 국제경기 방식과 패자부활전으로 치러진 국가대표최종선발전에는 99년도 국가대표 1, 2위, 99년도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 1, 2위들과 최종선발전에 앞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국기원에서 열린 2000년도 국가대표선발전 예선전 1, 2, 3위 등 모두 128명(남자 64명, 여자 64명)이 참가해 태극마크를 향해 치열한 각축전을 펼쳤다.

대회 결과 남자부는 체력과 기술이 뛰어난 대학선수들이 눈부신 활약을 보이는 가운데 실업

팀 선수들을 이기고 체급정상에 오르며 대폭 물갈이 되는 이변이 있었다.

반면 여자부는 지난해 국가대표들이 자신감과 함께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착실히 득점을 올리며 대부분 대표 자리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최고의 기량을 가진 국가대표선수 선발을 위해 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준 패자부활전을 통해 남녀 해비급 문대성(삼성에스원)과 신경현(경희대)이 체급 정상에 올랐다.

반면 여자 플라이급 장정은(경희대), 여자 미들급 윤현정(용인대), 남자 미들급 이재성(성균관대)은 패자부활전을 통해 결승에까지 올라 1차 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2차 결승전에서는 워낙 체력 손실이 커서 스피드와 발차기 강도가 떨어지는 등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패하며 대표 2진에 머물렀다.



남자부 경기분석

올해는 경희대의 해

남자부는 세계챔피언급 실업팀 고참 강자들에 대한 대학 선수들의 거센 도전으로 대표 1진 8명 중 삼성에스원의 문대성을 제외한 7체급이 대학선수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올해 남자 국가대표 1, 2진 16명 중 경희대에서 4명의 대표 1진(밴텀급 강남원, 라이트급 신준식, 웰터급 오선택, 미들급 박천덕)과 1명의 2진(웰터급 장순호)을 배출하는 등 모두 남자만 5명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어 한체대와 삼성에스원이 1진과 2진에서 1명씩 모두 2명씩 배출했고, 용인대, 조선태가 1진 1명씩,

도시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상무, 성균관대, 계명대가 2진 1명씩의 대표를 배출했다.

민병석, 문대성만 정상 지켜

지난해 국가대표 중에는 핀급의 민병석(한체대), 해비급 문대성(삼성에스원)만이 자리를 지켰을 뿐 나머지 6체급은 새로운 얼굴로 바뀌었다.

밴텀급의 강남원(경희대)은 '98 방콕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이지만 나머지 5명의 대표는 국제대회 전적이 없는 신인들로 세대교체를 이루었다.

지난해 국가대표 1진으로 활약했던 김병욱(삼성에스원), 장중오(도시철도공사), 윤종일(삼성에스원),

신예들 눈부신 활약 펼쳐

남자 밴텀급 결승에 오른 강남원(경희대·왼쪽)과 고대휴(삼성에스원)는 득점이 없는 가운데 강남원이 우세승을 차지했다.

고대휴(삼성에스원), 이동원(춘천시청)과 전 국가대표 강동국(한국가스공사)은 대학 신예들의 패기와 적극적인 공격 앞에 줄줄이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핀급 경기에서 민병석은 뒷차기를 주득점으로 박형순(신홍고)과 박희철(성균관대), 조성민(경희대)을 차례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 석운용(도시철도공사)에게 기권승을 거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태극마크를 달게됐다.

한편 핀급 경기에는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를 자랑하는 진승태(한국가스공사)가 미국 유학을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은퇴를 선언하고 경기에 불참했다.

신인들풍

이번 대회에서는 대학 신예들이 노련한 실업팀 선수들을 누르고 체급 정상에 오르는 이변이 속출했다.

플라이급 경기에서 용인대 김대룡은 빠른발을 이용한 공격으로 결승에 올라 김천규(한국가스공사)를 맞아 1회초 먼저 1득점을 거두었으나 2회와 3회 실점을 허용하며 패색이 짙은 가운데 경기 종료 3초를 남겨두고 김선수가 경고로 감점 2점을 받아 승리를 거두는 행운을 안았다.

밴텀급에서는 지난해 국가대표 1진과 2진이었던 고대휴(삼성에스원)와 강남원(경희대)이 올리는 자리 바뀐다. 강남원(경희대)이 1진, 고대휴가 2진으로 선발됐다.

페더급 경기에는 지난해 국가대표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노현구(한체대)가 올림픽대표선발전에 주력하기 위해 불참한 가운데 펼쳐졌는데 조선대 이원재가 충남대 박순용, 용인대 한정대, 용인대 이태용을 차례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 '97 홍콩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김인동(상무)에게 기권승을 거두며 체급 정상에 올랐다.

라이트급 경기에서는 강력한 우승후보인 김병욱(삼성에스원)이 경희대 신준식에게 예선 2차전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있었다.

유연성과 다양한 발차기를 구사한 신준식은 이어 상무의 유용진을 이기고 결승에 올라 조원철(한체대)을 맞아 오른발 돌려차기를 연속 공격하며 4-2로 승리를 거두고 체급정상에 올랐다.

웰터급 경기는 '99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장종오(도시철도공사), '98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류근무(한국가스공사) 등 실업팀 선수들이 대학 신예들의 거센 도전에 탈락했다.

경희대 오선택은 이남열(성균관대)과 신원일(한체대), 장순호(경희대)를 차례로 이기고 웰터급 결승

2000년도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에 올라 패자부활전을 통해 결승에 오른 장순호(경희대)와 1-1 동점을 이루는 치열한 경기끝에 우세승으로 정상의 자리를 차지했다.

미들급은 '99 국가대표인 이동환(춘천시청)과 '98 국가대표인 강동국(한국가스공사)이 탈락하는 가운데 박천덕(경희대)이 결승에서 신예 이재성(성균관대)을 맞아 1차전에서 4-5로 패했으나 2차 결승전에서 3-1로 이기고 어렵게 정상에 올랐다.

김제경(삼성에스원) 부상으로 기권

헤비급에서는 간판 스타 김제경(에스원)이 1차 예선서 가스공사 김정규에게 승리를 거둔 후 2차전에

부상을 이유로 기권함으로써 국가대표에서 탈락했다. 가벼운 부상에도 불구하고 기권한데 대해 김제경은 올림픽 대표 최종선발을 위해 부상방지와 컨디션 조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99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삼성에스원)은 2차 예선에서 현재호(계명대)에게 패한 뒤 패자부활전을 통해 결승에 올라 현재호와 다시 한번 경기를 펼쳤는데 1차 결승서 4-4 동점에 문대성이 우세승을 거둔 후 2차 결승전을 치러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한 공방으로 득점을 주고 받는 사투끝에 6-5로 문대성이 승리를 거두고 태극마크를 지켰다.

여자부 경기분석



여자 미들급 결승에서 춘천시청 김윤경(왼쪽)이 오른발 뒷차기로 용인대 윤현정의 얼굴을 직중시키고 있다. 김윤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대표 1진의 자리를 지켰다.

5명 대표1진 자리 지켜

남자 대표가 대폭 물갈이 된데 반해 여자는 지난해 국가대표 1진 5명이 자리를 고수하는데 성공했다.

플라이급 심혜영(삼성에스원), 밴텀급 정재은(한체대), 라이트급 조향미(인천시청), 미들급 김윤경

(춘천시청), 헤비급 신경현(경희대)은 침착한 경기운영과 득점력에서 앞선 가운데 강세를 보여주며 신인 선수들의 거센 도전을 막아냈다.

한편 여자 신인 국가대표로 한체대 주혜원이 핀급, 한체대 장지원이 페더급 정상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냈다. 전 국가대표 출신으로는 삼성에스원의 이선희가 지난해의 부진을 씻고 올해 웰터급 정상

에 오르며 태극마크를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여고생 최준정, 이정민 국가대표 2진으로 선발

한편 여자 국가대표 중에는 2진에 정성여실고의 최준정(핀급)과 송곡고의 이정민(웰터급) 등 여고생 2명이 선발되는 영광을 차지하며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핀급의 최준정은 1차 예선서 수원정보고 이혜영에게 승리를 거두고 2차에 올라 지난해 국가대표인 윤송희(한체대)에 패해 패자조로 갔으나 전이랑(대전체고), 서미라(인천시청)를 이기고 다시 윤송희와 겨뤄 3-2로 이기며 결승에 올랐다. '97 세계선수권대회 2위와 '99 세계선수권대회 1위를 자랑하는 노련한 윤송희를 물리치며 결승에 오른 최준정은 결승에서 승자조로 올라온 주혜원(한체대)과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2-1로 패하며 2진에 머물렀으나 새로운 신인 강자로 기대를 모았다.

또한 지난해 웰터급 1진으로 선발된데다 올해 다시 2진에 선발된 이정민(송곡고)은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단조로운 공격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발차기와 승부근성을 보이며 올해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플라이급은 지난해 리라공고를 졸업하고 삼성에스원에 입단한 심혜영이 뒷차기, 돌려차기로 결승에 올라 장정은(경희대)을 맞아 1차전에서 3-3 동점에 우세로 패했으나 2차 결승전에서 3-0으로 승리를 거두고 정상에 오르며 불굴의 투지를 보여주었다.

'97 홍콩 세계선수권대회 밴텀급 우승과 '99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정재은(한체대)이 올해 다시 밴텀급 국가대표 1진으로 선발됐다.

밴텀급 결승에서 정재은은 전 국가대표 이지은(인천시청)을 맞아 1회 뒷차기, 돌려차기를 허용하며 수세에 몰렸으나 2회에 적극적인 공격으로 2득점을 만회하며 동점을 이루었고 3회 들어 득점을 주고 받는 치열한 접전끝에 3-3 동점을 이루었으나 결국 2-3회전에 적극적인 공격으로 주도권을 잡은 정재은이 우세승으로 체급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차지했다.

올림픽 티켓 따낸 조항미 우승

한편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와 함께 시드니 올림픽 세계선발전에서 올림픽 출전티켓을 따낸 페더급 강해은(상명대)이 2차 예선서 용인대 신현순에게 판정패하며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페더급

우승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라이트급에 출전해 조항미를 이기며 주목을 받았던 한체대 장지원이 결승에 올라 용인대 신현순을 1-1 동점에 우세승을 거두고 승리를 거두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 달성과 함께 시드니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낸 조항미(인천시청)는 노련한 경기운영과 찬스포착으로 득점을 올리며 여자부 라이트급 정상에 올랐다.

조항미는 남보라(경희대), 이인중(서울체고), 서영하(용인대)를 차례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 패자부활전으로 결승에 오른 서영하(용인대)를 맞아 자신의 주특기인 오른발 돌려차기로 확실하게 득점에 성공, 3-1로 가볍게 승리했다.

'96 아시아선수권대회 라이트급 1위, '98 아시아선수권 라이트급 3위, '98 방콕 아시안게임 라이트급 2위 전적을 갖고 있는 이선희(삼성에스원)는 지난해 국가대표 자리에서 탈락했는데 올해 한체급 올려 웰터급에 출전, 빠른발, 돌려차기 공격 등을 성공시키며 결승에서 이정민(송곡여고)을 이기고 국가대표 자리를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국가대표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따낸 김윤경(춘천시청)은 패자조에서 결승에 오른 윤현정(용인대)에게 1차 결승서 3-1로 패하며 어려움을 겪었으나 2차 결승에서 2회와 3회 얼굴공격과 뒷차기를 적중시키며 2-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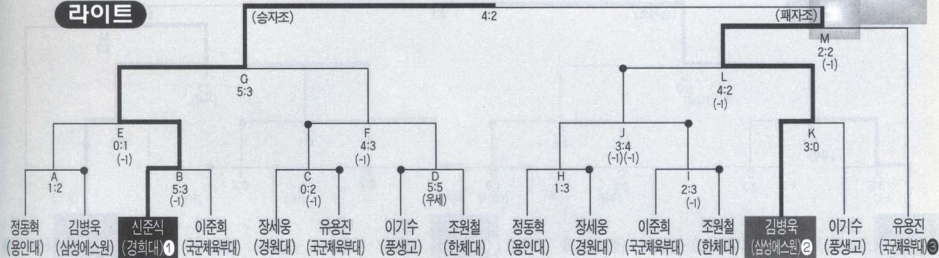
한편 유일하게 여중생이 최종전에 올라 화제를 모은 미들급의 박영은(본리여중)은 체력과 기술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1차 예선서 용인대 윤현정에게 3회 RSC승을 빼앗기며 탈락했다.

신경현 헤비급 세대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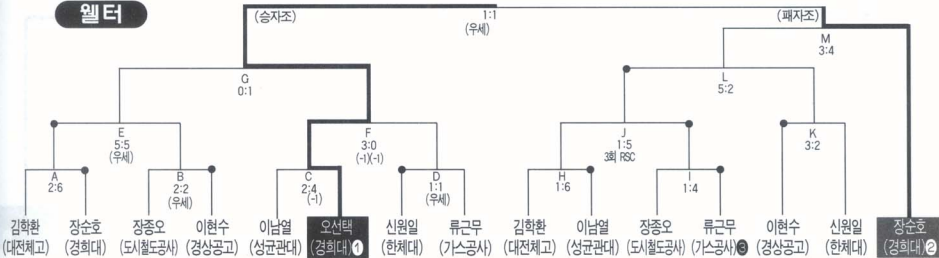
헤비급은 지난해 국가대표로 활약한 경희대 신경현이 예선 첫 경기에서 지나친 긴장으로 게임을 풀지 못하는 가운데 패기로 밀고 들어오는 송곡여고 윤현숙에게 패하며 패자조로 물러나는 이변이 있었다. 그러나 신경현은 패자조에서 다양한 기술과 노련미를 보이는 가운데 경희대 김순주, 충북체고 김순진, 리라공고 박연정에게 판정승을 거두고 부산체고 고진숙에게 5-1로 3회 RSC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를 자랑하는 정명숙(삼성에스원)과 맞붙어 2-1로 승리를 거둔 후 2차 결승에서 다시 4-1로 이기고 헤비급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경현이 정명숙을 이기고 정상에 오르므로써 헤비급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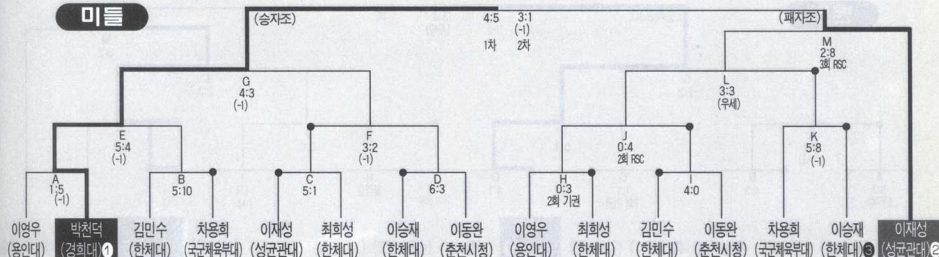
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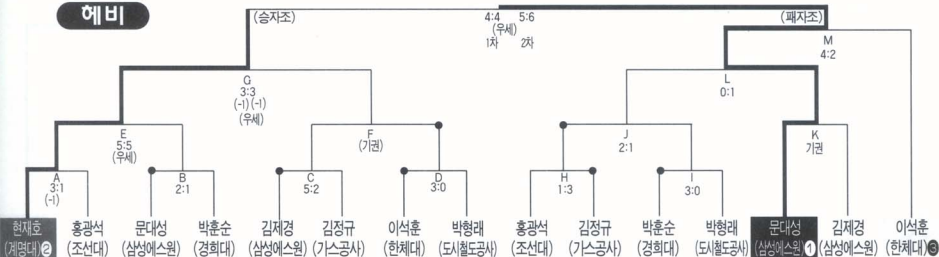
웰터



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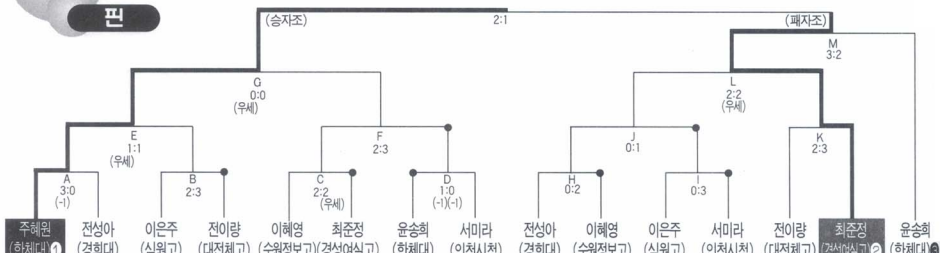
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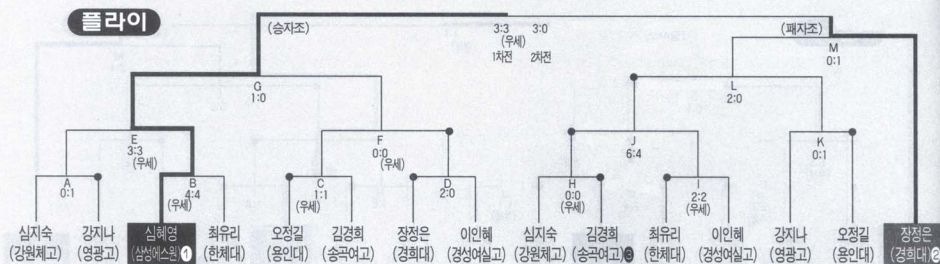
여자부

●○●○ : 순위 * () : 갑점 * ● : 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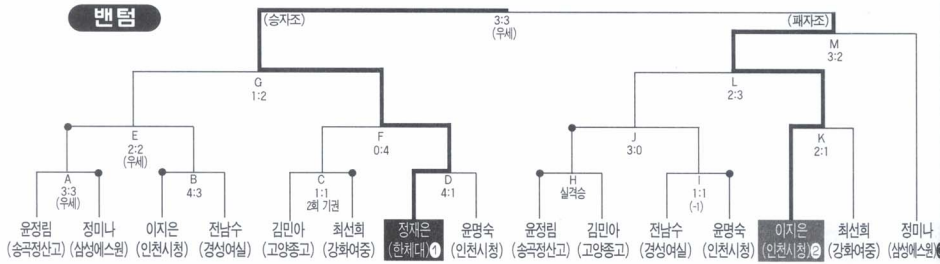
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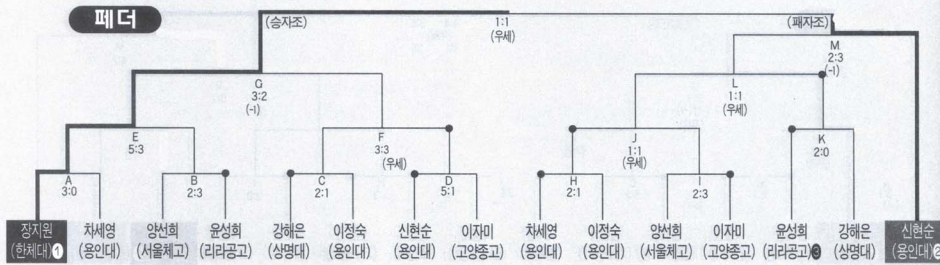
플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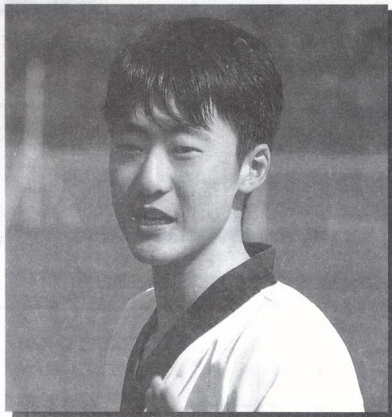


밴텀



페더





- 생년월일(나이) : 78. 12. 8 (21세)
- 신장 : 174cm ■ 체중 : 59kg
- 출신교(초·중·고·대)
광희초등 - 단대부중 - 단대부고 - 한국체대
- 종교 : 기독교
- 취미 : 영화감상

핀 민병석 (한국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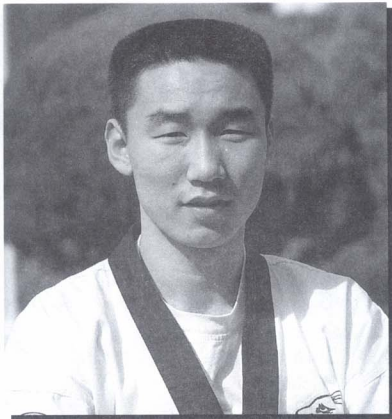
- ▲ 국가대표로 선발된 소감 및 각오
앞으로 열심이 임하겠다.
- ▲ 태권도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
초등학교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몸이 여약해서
- ▲ 주특기 및 자기
▲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스텝, 연결 발차기
- ▲ 징크스가 있다면 없다
- ▲ 하루 훈련시간 4시간
- ▲ 슬럼프가 있었다면, 언제 무슨일로, 어떻게 극복했나?
없었다
- ▲ 좌우명 준비하는 삶을 살자.
- ▲ 선수생활 중 목표 2001 세계대회
- ▲ 선수생활 은퇴 후 장래 희망 교수
- ▲ 주요 경기전적
'96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플라이 1
'98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핀 1
'99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핀 1

플라이 김대룡 (용인대)

- ▲ 국가대표로 선발된 소감 및 각오
열심히 목표한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
- ▲ 태권도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 초등학교 2학년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싸움을 못해서(몸이 여약해서)
- ▲ 주특기 바른발
- ▲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몸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 ▲ 징크스가 있다면
아루전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봐야 시합 때 긴장이 덜됨.
- ▲ 하루 훈련시간 4시간
- ▲ 슬럼프가 있었다면, 언제 무슨일로, 어떻게 극복했나?
대학초에 적응을 못했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머리를 짧게 깎고 다시 시작했다.
- ▲ 좌우명 모두가 나의 스승이다. 자만심을 버려라.
- ▲ 선수생활 중 목표
은퇴하는 날까지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선수가 되길...
- ▲ 선수생활 은퇴 후 장래 희망 훌륭한 지도자
- ▲ 주요 경기전적
'98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대회 밴텀 1
'98 전국체육대회 플라이 1
'99 전국대학개인대회 플라이 1



- 생년월일(나이) : 80. 9. 14 (19세)
- 신장 : 170cm ■ 체중 : 58kg
- 출신교(초·중·고·대)
동교초등 - 한성중 - 한성고 - 용인대
- 종교 : 없음
- 취미 : 잡자기



- 생년월일(나이) : 79. 11. 13 (20세)
- 신장 : 170cm ■ 체중 : 67kg
- 출신교(초·중·고·대)
인천문화초등 - 관교중 - 인천체고 - 경희대
- 종교 : 불교
- 취미 : 비디오 보기

본문

강남원 (경희대)

- ▲국가대표로 선발된 소감 및 각오
너무 기쁘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타고 싶다.
- ▲태권도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
6살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하고 싶어서
- ▲주특기 빠른발
-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뒤차기
- ▲장크스가 있다면 없다
- ▲하루 훈련시간 7시간
- ▲슬럼프가 있었다면, 언제 무슨일로, 어떻게 극복했나?
99년 시합시절, 더욱 열심히 했다.
- ▲좌우명 나 자신을 이기자.
- ▲선수생활 중 목표
시드니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타고 싶다.
- ▲선수생활 은퇴 후 장래 희망 교수
- ▲주요 경기전적
'98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페더 1
'98 아시안게임태권도경기 페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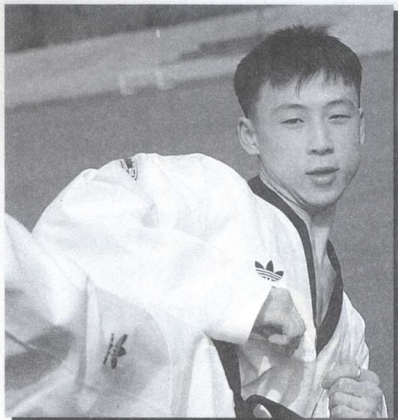
페더

이원재 (조선대)

- ▲국가대표로 선발된 소감 및 각오
기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 ▲태권도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
초등학교 3학년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엄마가 시켜서
- ▲주특기 상단공격
-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체력
- ▲장크스가 있다면 없다
- ▲하루 훈련시간 2시간
- ▲슬럼프가 있었다면, 언제 무슨일로, 어떻게 극복했나?
많은 생각을 한다.
- ▲좌우명 금강산도 식후경
- ▲선수생활 중 목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 ▲선수생활 은퇴 후 장래 희망
결혼해서 잘 살고 싶다.
- ▲주요 경기전적
'98 전국체육대회 페더 3
'99 전국대학개인대회 페더 1
'99 전국남녀우수선수권대회 페더 1



- 생년월일(나이) : 80. 10. 30 (19세)
- 신장 : 184cm ■ 체중 : 67kg
- 출신교(초·중·고·대)
성남단체초등 - 은행중 - 분당고 - 조선대
- 종교 : 없음
- 취미 : 오락



■ 생년월일(나이) : 80. 1. 13 (20세)
 ■ 신장 : 173cm ■ 체중 : 70kg
 ■ 출신교(초·중·고·대)
 성남단대초 - 서중 - 풍생고 - 경희대
 ■ 종교 : 없다
 ■ 취미 : 당구

라이트

신준식 (경희대)

- ▲ 국가대표로 선발된 소감 및 각오
좋다
- ▲ 태권도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
초등학교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태권도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 ▲ 주특기 빠른발
- ▲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체력
- ▲ 장크스가 있다면 첫 게임을 잘뚫는다.
- ▲ 하루 훈련시간 7시간
- ▲ 슬럼프가 있었다면, 언제 무슨일로, 어떻게 극복했나?
대학 1학년 때 대학문제로
- ▲ 좌우명 최고보다 최선을
- ▲ 선수생활 중 목표 올림픽 금메달
- ▲ 선수생활 은퇴 후 정래 희망 교수
- ▲ 주요 경기전적
'97 한국대표선수최종선발대회 페더 1
'98 전국남녀우수선수권대회 라이트 1
'99 외장기전국대학대항대회 라이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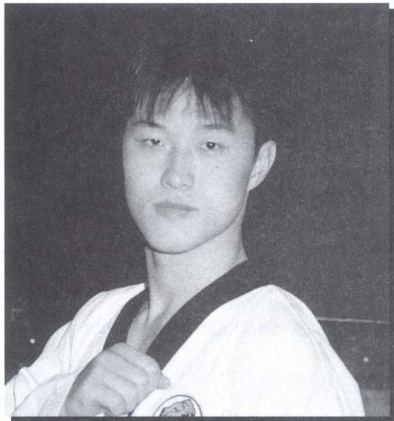
윌터

오선택 (경희대)

- ▲ 국가대표로 선발된 소감 및 각오
더욱더 열심이 하는 선수가 되겠다.
- ▲ 태권도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 초등학교 5학년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초등학교 때 태권도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 ▲ 주특기 내려차기
- ▲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다른 특기 말 안가지
- ▲ 장크스가 있다면
손톱을 길러야 한다
- ▲ 하루 훈련시간 7~8시간
- ▲ 슬럼프가 있었다면, 언제 무슨일로, 어떻게 극복했나?
없다.
- ▲ 좌우명 노력한 자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
- ▲ 선수생활 중 목표
올림픽 출전
- ▲ 선수생활 은퇴 후 정래 희망 아직 잘 모르겠다.
- ▲ 주요 경기전적
'99 외장기전국대학대항대회 윌터 1
'99 전국체육대회 윌터 3
'99 전국남녀우수선수권대회 윌터 1



■ 생년월일(나이) : 80. 6. 25 (19세)
 ■ 신장 : 185cm ■ 체중 : 75kg
 ■ 출신교(초·중·고·대)
 구월초 - 구월중 - 선인고 - 경희대
 ■ 종교 : 기독교
 ■ 취미 : 오락



- 생년월일(나이) : 79. 4. 14 (20세)
- 신장 : 183cm ■ 체중 : 80kg
- 출신교(초·중·고·대)
부산금정초등 - 황도중 - 개금고 - 경희대
- 종교 : 불교
- 취미 : 영화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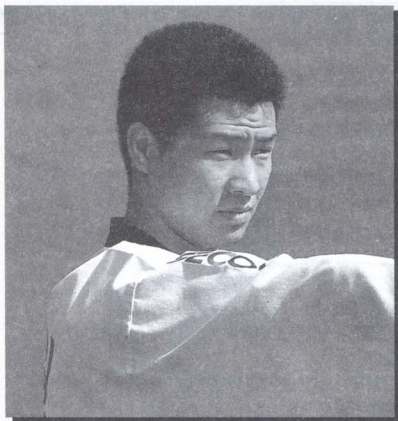
미들

박천덕 (경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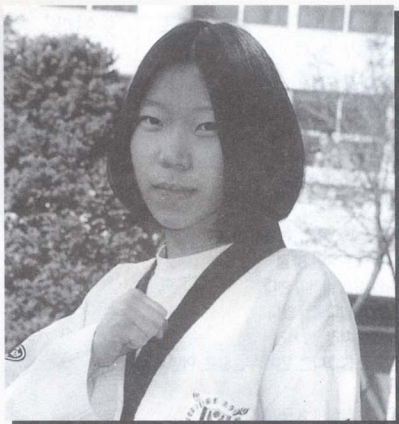
- ▲ 국가대표로 선발된 소감 및 각오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다.
- ▲ 태권도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
초등학교 1학년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아버지의 권유로
- ▲ 주목기
나래차기, 붙어서 차기
- ▲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상체의 힘을 길러야 한다.
- ▲ 징크스가 있다면 없다
- ▲ 하루 훈련시간
7시간
- ▲ 슬럼프가 있었다면, 언제 무슨일로, 어떻게 극복했나?
없다.
- ▲ 좌우명
최선이 성공이다.
- ▲ 선수생활 중 목표
올림픽
- ▲ 선수생활 은퇴 후 장래 희망
지도자
- ▲ 주요 경기전적
'99 안국대표선수회총선발대회 미들 2
'99 회장기전국대학대항대회 미들 1
'99 전국체육대회 미들 3

헤비 문대성 (삼성에스원)

- ▲ 국가대표로 선발된 소감 및 각오
좋습니다. 뭐 그거예요.
- ▲ 태권도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
초등학교 5학년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애들한테 안 맞으려고...
- ▲ 주목기
원발뒤차기, 나래차기
- ▲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오른발, 모든 발차기
- ▲ 징크스가 있다면 없다
- ▲ 하루 훈련시간
5~6시간
- ▲ 슬럼프가 있었다면, 언제 무슨일로, 어떻게 극복했나?
없다
- ▲ 좌우명
땀방울은 거짓이 없다.
- ▲ 선수생활 중 목표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하여 국가와 가족과 회사의 명예를 드높인다.
- ▲ 선수생활 은퇴 후 장래 희망
지도자의 길을 가겠다.(교수)
- ▲ 주요 경기전적
'96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헤비 1
'98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헤비 1
'99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헤비 1



- 생년월일(나이) : 76. 9. 3 (23세)
- 신장 : 190cm ■ 체중 : 89kg
- 출신교(초·중·고·대)
구월초 - 구월중 - 리라공고 - 동아대
- 종교 : 기독교
- 취미 : 낚시



- 생년월일(나이) : 79. 2. 25 (20세)
- 키 : 170cm ■ 몸무게 : 47kg
- 출신교(초·중·고·대)
교정초 - 수원중 - 효원고 - 한국체대
- 종교 : 기독교
- 취미 : 찬송가 부르기

핀 주혜원 (한국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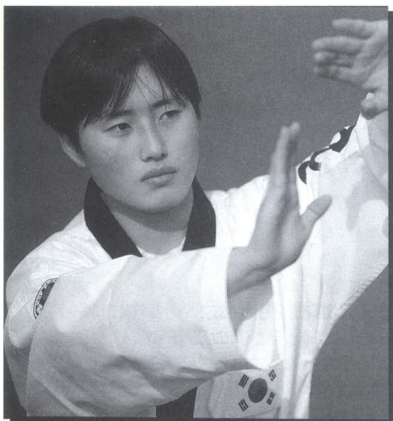
- ▲ 국가대표로 선발된 소감 및 각오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 태권도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 12년 전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그냥 하고싶어서
- ▲ 주목기 뒤발 상단차기
- ▲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임
- ▲ 장크스가 있다면
기도를 안하면 진다
- ▲ 하루 훈련시간 5시간
- ▲ 슬럼프가 있었다면, 언제 무슨일로, 어떻게 극복했나?
없다
- ▲ 좌우명 항상 기뻐하라
- ▲ 선수생활 중 목표
은퇴하는 날까지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선수가 되길...
- ▲ 선수생활 은퇴 후 장래 희망 ?
- ▲ 주요 경기전적
'99 한국대표선수 최종선발대회 플라이급 3위
'99 전국대학개인대회 밴텀급 2위
'99 전국남녀우수선수권대회 핀급 1위

플라이 심혜영 (삼성에스원)

- ▲ 국가대표로 선발된 소감 및 각오
열심히 하겠다.
- ▲ 태권도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
중학교 3학년 때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하고 싶어서
- ▲ 주목기 나래차기
- ▲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체력
- ▲ 장크스가 있다면
없다.
- ▲ 하루 훈련시간 5~6시간
- ▲ 슬럼프가 있었다면, 언제 무슨일로, 어떻게 극복했나?
없다.
- ▲ 좌우명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있다.
- ▲ 선수생활 중 목표
지속적인 국가대표와 올림픽
- ▲ 선수생활 은퇴 후 장래 희망 지도자, 교수
- ▲ 주요 경기전적
'97 동아시아경기대회 -49kg급 1위
'98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플라이급 2위
'99 여자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플라이급 2위



- 생년월일(나이) : 80. 10. 29 (19세)
- 신장 : 164cm ■ 체중 : 51kg
- 출신교(초·중·고·대)
성포초등 - 장흥여중 - 리리공고 - 용인대
- 종교 : 불교
- 취미 : 짐자기



- 생년월일(나이) : 80. 1. 11 (20세)
- 신장 : 163cm ■ 체중 : 55kg
- 출신교(초·중·고·대)
은천초등 - 한림여실고 - 장양중 - 한국체대
- 종교 : 무교
- 취미 : 독서, 음악감상

밴텀 정재은 (한국체대)

- ▲ 국가대표로 선발된 소감 및 각오
기쁘다.
- ▲ 태권도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
초등학교 5학년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오빠 따라서
- ▲ 주특기
빠른발
- ▲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연결 발차기와 스텝
- ▲ 징크스가 있다면
없다
- ▲ 하루 훈련시간
3~4시간
- ▲ 슬럼프가 있었다면, 언제 무슨일로, 어떻게 극복했나?
98년 아시안게임 때, 열심이 혼란했다
- ▲ 좌우명
최선을 다하자
- ▲ 선수생활 중 목표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 ▲ 선수생활 은퇴 후 장래 희망
연모양자
- ▲ 주요 경기전적
'97 여자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페더급 1위
'98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페더급 3위
'99 여자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밴텀급 2위

페더 장지원 (한국체대)

- ▲ 국가대표로 선발된 소감 및 각오
기쁘고 열심이 아겠다.
- ▲ 태권도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
중학교 3학년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 ▲ 주특기
뒷발
- ▲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스텝, 연결발차기
- ▲ 징크스가 있다면
없다
- ▲ 하루 훈련시간
약 4시간
- ▲ 슬럼프가 있었다면, 언제 무슨일로, 어떻게 극복했나?
없다
- ▲ 좌우명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 ▲ 선수생활 중 목표
2001 세계대회 1위
- ▲ 선수생활 은퇴 후 장래 희망
교사
- ▲ 주요 경기전적
'99 외장기전국대학대회의 페더급 1위
'99 전국체육대회 라이트급 1위
'99 전국남녀우수선수권대회 페더급 1위



- 생년월일(나이) : 79. 8. 30 (20세)
- 신장 : 174cm ■ 체중 : 59kg
- 출신교(초·중·고·대)
연은초 - 삼신중 - 경성여실고 - 한국체대
- 종교 : 불교
- 취미 : 영화감상



- 생년월일(나이) : 73. 4. 15 (26세)
- 신장 : 166cm ■ 체중 : 61kg
- 출신교(초·중·고·대)
인천신곡초등 - 북인천여중 - 인천체고 - 경희대 졸업
- 종교 : 없다
- 취미 : 만들기, 그리기

라이트 조 향 미 (인천광역시청)

- ▲ 국가대표로 선발된 소감 및 각오
시드니를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은퇴하고 싶다.
- ▲ 태권도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 중 2 때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체육선생님 권유로
- ▲ 주특기
오픈·원발 공격, 반격 오픈발 찌기
- ▲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뒷차적
- ▲ 장크스가 있다면
- ▲ 하루 훈련시간 4시간
- ▲ 슬럼프가 있었다면, 언제 무수일로, 어떻게 극복했나?
97년 전국체전, 임신자 선생님과 면담으로
- ▲ 좌우명 실력 차이는 없다. 단 노력의 차이가 있을 뿐
- ▲ 선수생활 중 목표 올림픽 출전
- ▲ 선수생활 은퇴 후 장래 희망 실업팀 코치 및 태권도에 관한 건 모두 다(심판, 국가대표 시범단)
- ▲ 주요 경기전적
'98 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 웰터급 1위
'98 아시아게임태권도경기 웰터급 1위
'95 '97 '99 여자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웰터급 1위,
웰터급 1위, 라이트급 1위

웰터 이 선 희 (삼성에스원)

- ▲ 국가대표로 선발된 소감 및 각오
기쁘다. 하지만 만족할 수 없다. 올림픽이란 큰 꿈이 있으니
- ▲ 태권도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 초등학교 5학년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아버지 권유로
- ▲ 주특기 빠른발, 뒷차기
- ▲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연결동작, 상단발
- ▲ 장크스가 있다면
아직은 없다. 장크스는 자신이 만드는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있어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 ▲ 하루 훈련시간 4~5시간
- ▲ 슬럼프가 있었다면, 언제 무수일로, 어떻게 극복했나?
98년 시합에 계속 저, 모든 것을 잊고 열심히 훈련해서
- ▲ 좌우명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노력하지 않음을 두려워하라
- ▲ 선수생활 중 목표 올림픽에 출전해서 꼭 금메달을 딸 거다
- ▲ 선수생활 은퇴 후 장래 희망 지도자
- ▲ 주요 경기전적
'96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급 1위
'98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급 3위
'98 아시아게임태권도경기 라이트급 2위



- 생년월일(나이) : 78. 10. 21 (21세)
- 신장 : 170cm ■ 체중 : 65kg
- 출신교(초·중·고·대)
삼송초등 - 고양중 - 고양종합고 - 용인대
- 종교 : 불교
- 취미 : 없음



- 생년월일(나이) : 77. 1. 13 (23세)
- 신장 : 178cm ■ 체중 : 67kg
- 출신교(초·중·고·대)
서교초등 - 홍의여중 - 경성여고 - 상명여대
- 종교 : 불교
- 취미 : 독서

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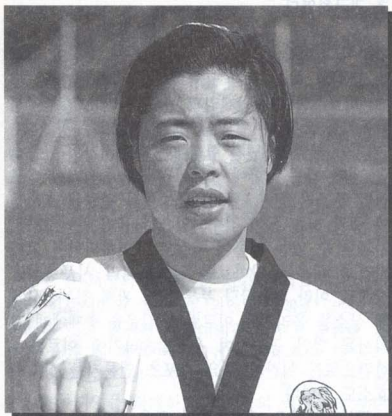
김 윤 경 (준천시청)

- ▲ 국가대표로 선발된 소감 및 각오
기쁘고, 열심이 아겠다.
- ▲ 태권도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 고교 1년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코치의 권유로
- ▲ 주특기 붙여치기, 상단
- ▲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연결동작
- ▲ 장크스가 있다면
시합 결과가 좋았던 날과 비슷한 안다
- ▲ 하루 훈련시간 3시간 30분
- ▲ 슬럼프가 있었다면, 언제 무슨일로, 어떻게 극복했나?
98년 대표선발 1차 때 게체 탈락, 주위의 격려로
- ▲ 좌우명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자
- ▲ 선수생활 중 목표
올림픽 출전과 은퇴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
- ▲ 선수생활 은퇴 후 장래 희망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 ▲ 주요 경기전적
'96 월드컵태권도선수권대회 예비급 2위
'97 동아시아경기대회 +67kg 1위
'99 여자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미들급 1위

해비

신 경 현 (경희대)

- ▲ 국가대표로 선발된 소감 및 각오
기쁘고, 더욱 열심이 할 것이다.
- ▲ 태권도를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
고등학교 1학년
-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호기심으로 시작
- ▲ 주특기 뒷치기
- ▲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스피드와 힘
- ▲ 장크스가 있다면 없다
- ▲ 하루 훈련시간 6시간
- ▲ 슬럼프가 있었다면, 언제 무슨일로, 어떻게 극복했나?
실업팀에 1년 있었을 때
- ▲ 좌우명 최고보다는 최선을
- ▲ 선수생활 중 목표
세계대의 우승
- ▲ 선수생활 은퇴 후 장래 희망 교사
- ▲ 주요 경기전적
'98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예비급 1위
'99 한국대표선수최종선발전 예비급 1위
'99 전국남녀우수선수권대회 예비급 1위



- 생년월일(나이) : 77. 12. 12 (22세)
- 신장 : 173cm ■ 체중 : 67kg
- 출신교(초·중·고·대)
금촌초 - 파주여중 - 문선중고 - 경희대
- 종교 : 기독교
- 취미 : 음악감상

ARYAN의 나라 이란에서의 태권도 지도 下

현재 세계 각국에 파견되어 활약 중인 태권도 사범은 5천여 명에 이른다.

해외에서 땀흘린 태권도 사범들의 노력이 의해 태권도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란은 최근 손꼽히는 태권도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시드니 올림픽 세계선발전과 9월에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지역선발전에서 각국이 최대 남녀 각 2등급으

로 제한된 티켓 중 남자 2등급 모두 본선 티켓을 따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림픽 본선무대에서의 메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이란이 태권도계에서 "태풍의 눈"으로 성장한 데에는 지난 14년간 이란에서 태권도를 지도해온 강신철 관장의 노력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란에서 태권도를 지도해온 강신철 관장으로부터 어떻게 가르쳤으며 그 나라의 태권도 현황과 발전사에 대한 글을 받아 3회에 나누어 실는다.

부패한 회장을 쫓아내다

90년도 이란 태권도 협회장은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GHOMI(국회의원 겸직·당시 39세)가 집권하고 있던 때인데 고미는 태권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필자는 새 회장이 임명되기 전인 90년 초 귀국하였다.

그후 이란의 제자들로부터 이란협회의 내분으로 인하여 전회장 싸파비가 물러나고 새 회장이 임명된 소식과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접하고 있던 중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과 관련, 이란 NOC측에서 감독직을 요청하여 계약을 체결, 이란으로 향했다.

필자가 없었던 3년간 협회에는 무자격자의 단증발급, 월단, 각종 시험에서의 이권게임, 출석기식 대표 선발 부조리 등이 난무하였고, 이와 관련된 호소문과 증거 서류 등이 접수되었으며 급기야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로 표면화되면서 고미 회장과 실무를 맡아보던 알리모디리 사무총장을 상대로, 이란 체육당당 부통령 및 관계 정부인사에게 상소를 올리기에 이르렀고, 김운용 총재에게 건의서를 법인 공증하여 우편발송하기에 이르렀다. 한편으로는 이란의 주요 스포츠 언론지를 상대로 호소도 하였다.

이렇게 수많은 태권도인이 힘을 모아 싸운 결과 두달만인 94년 7월 5일자로 고미는 협회장직을 내놓게 되었고 알리모디리는 사무총장직 및 국내에서의 모든 태권도와 관련된 활동이 금지되었다. 7월 10일엔 전임 SAFFAVI(제 8대 회장)가 3년만에 전 임원들을 이끌고 복귀하였다.



▲1990년 사범교육에 하세미 타버 부통령이 참석, 격려사를 하며 태권도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왼쪽부터 싸파비 회장, 강신철 관장, 부통령.

쫓겨난 고미의 일을 보면서 선과 악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느낌을 새삼 받았다.

좋고 나쁨은 모두 상대적인 개념들이라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 선인지, 악인지 진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고미와 알리모디리는 자신이 살기 위한 방편의 선(善)에 선 것이리라.

이들을 축출하는 일과 대표팀을 훈련하는 틈을 타 알리모디리는 교묘하게 선수들과 나 사이를 이간(離間=짐짓 두 사람 사이에 허리늘어 서로 떨어지게 만들)하고 훈련을 방해하는 계락을 세웠으나 그

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
블로 뛰어드는 부나비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명령 불복
중환 선수 4명을 전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차별 구타를 하였다.

2명은 그대로 맞으며
자리를 지켰고 나머지
2명은 정중히 사과하고
는 신문사로 달려갔다.
곧 이어 기자들과 협회
임원들이 모여드는 복
잡한 상황이 벌어졌다.
관습적으로 구타는 절
대 용납되지 않기에 때
문에 빚어진 사건이었다.
싸파비의 고단스러운
일치리로 표면화되지
않고 덮여졌으나 불명예
제대를 감수할 뻔한 일이
없었다.

비록 가치관 차이로 벌어진 일이었으나 나는 지금
도 그 일에 대해선 한치도 사과할 의사는 없다. 단
지 다투지 않는 덕(德=고매하고 너그러운 도덕적
품성)이 도(道=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의 극치라
했건만 너그러이 대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
이 구타 사건은 다행히 '94 히로시마에서의 종합 2
위라는 성공적인 대회 결과로 모두에게 달래한 셈
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맞았던 아스까
리 주장은 곱하게 금메달을 따주었고 그 인연으로
더없이 가까운 스승과 제자가 되었다.

'94 히로시마 종합 2위

각국별 4체급이 출전하는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
서 한국은 전체급 금메달을 석권하였고 이란팀도 4
체급 모두 출전하여, 라이트급 화려블즈 아스까리
가 금메달, 웰터급 에브라힘 써어다티와 헤비급 화
리즈드 자라쉬가 은메달, 미들급 마직 아민트라비
가 동메달에 입상하여 전 선수가 메달권에 들었다.
단 자라시는 이 게임을 끝으로 선수생활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유는 시합에 임하여 최선·최
후의 정신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0% 훈련에
못미치는 소심함이 원인이었기에 선수 스스로 인
정하였고 약속은 지켜졌다. 이로써 다시금 마스터
강은 약속에 있어서는 철저하다는 나에 대한 이미
지가 강하게 자리매김을 한 셈이다.



▲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이란은 출전한 4명이 모두 입상하며 종합 2위를 차지했다.

SAFFAVI 회장을 축출시키다

싸파비 회장은 나와 깊은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10
년만에 이란태권도 수장으로서 수명을 다하였다.

84년 이란의 제 8대 협회장으로 임명된 싸파비는
당시 24세로 그야말로 위풍당당하고 패기가 넘치는
인물이었다. 아들만 7명인 형제 중에 막내로, 큰형
이 정부의 정보부 고위직이고 형제중 2명이 이란-
이라크전에서 전사한 이슬람 물라(종교지도자) 집
안으로 공로가 인정되어 국가의 신임을 받는 혈통
이 되었다. 싸파비는 형들의 후광(後光=어떤 인물
또는 사물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배경)으로 어린 나
이에 협회장이 되었으나 세속(世俗=이 세상, 세상의
풍속)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몰육의 친구가 되
었다.

고미 전 회장의 퇴장으로 재임된 싸파비 회장은
94년 히로시마의 영광으로 완전한 발판을 굳혔으나
이듬해 95년 필리핀 세계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차
질을 빚게 한 장본인이 되었다. 선수훈련 중 선수
들의 발이 되는 버스기사의 급여를 몇 달씩 지급하
지 않아 파업을 하게하고 선수들의 식사부터 훈련
후 지출되는 모든 제반 경비를 착복(着服=남의 돈
이나 물건을 몰래 자기가 차지함)하였고 선수들과
약속한 포상금도 시합 후 착복하는 등 여러 가지
비리가 쌓여 나의 탄원서와 선수들의 항의서로 형
들의 후광도 소용없어 맥없이 95년 12월 물러나야
했다.



▲98년 10월 이란 국가대표팀은 태릉선수촌에서 한국대표팀과 친선경기를 갖는 등 지훈련을 하였다. 둘째줄 한가운데가 강신철 관장.

필자가 이란협회장을 2명이나 축출시킨 사건에 깊이 연루된 것은 태권도 정신을 통하여 부패한 협회를 위기에서 구하자는 마음 하나로 한 일의 결과이다. 물론 적을 만든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행동은 더욱 공정무사(公正無私=공평하고 올바름, 사사로움이 없이 공정함), 청렴결백(淸廉潔白=마음

짜파비 회장의 퇴출을 보고 사람은 자기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다. 결코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이다. 삶의 의의는 무궁하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분발하고 은퇴하는 일들을 제때에 할 줄 알아야만이 그 일이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것이다. 짜파비는 좋은 환경 속

민간 외교의 대표 인물인 태권도 사범은 정신적 지도자 되어 이란 태권도 한발 한발 스스로 도약하여 가는 중

이 고결하고 재물 욕심이 없으며 행동이나 마음이 깨끗하여 허물이 없음)하게 함이 청경이었다. 입은 마음의 문이요, 뜻은 마음의 다리다. 오직 청렴과 태권도 둘의 함수관계를 사범들 본인의 자제로 삼아 돌아가라며 뜬나대로 주문하였다.

이렇듯, 선수 훈련에만 전념해야 할 시기에 협회와 선수촌, 훈련장 간의 행정미약 및 착오로 인하여 대표코치라는 직분에서 벗어나 협회 행정에 본 아니게 개입하게 되었는데 이러다보니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부조리, 인사관리, 청탁, 연고주의 등으로 피해 본 사람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특히나 국가원발급 단증과 관련된 일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란의 특수한 경제여건을(현재 임원들의 급여가 100불 정도임) 감안해 볼 때 승단비가 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에 다복한 가정, 높은 권위, 무엇보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으며 이란 태권도 발전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30대 중반에 물욕의 덫에 걸린 오만함으로 명예를 잃게 되었다. 외부의 도둑보다 내부의 도둑으로 인해 스스로를 망친 사례이다.

후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이란에서의 생활 중 1/3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오직 나의 체험만을 실었다. 그외에 뇌리에 남은 몇가지 경험들을 떠올리면 실수도 많았고 부끄러운 사연도 많았다.

- 수천명이 운집한 곳에서 시범 중 실수하여 수치스러움에 몸을 떨며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하던 일 - 싱가포르에서 선수단 경비 2만불이 넘는 돈을 잃었다 찾은 일 - 부통령 앞에서 격파 시

범을 멋지게 성공시켜 태권도의 권위를 올렸던 일 - 사범 훈련을 마치고 귀가 중 협회 근처에서 대낮에 거한으로부터 총검으로 테러를 당할 뻔한 일(이란 사범들에게 포위되어 체포됨) - TV 촬영에서 단 한번의 시범으로 유명 인사가 된 일 - NOC는 약속을 지키라며 사무실로 찾아가 항의한 일(금메달리스트에 대한 포상약속 불이행) - 부통령이 타라며 내준 밴드 승용차 - 필리핀 세계대회의 사진 - 이란에서 태어난 큰딸 유진 - 이란 협회에서 교육용 비디오를 촬영하여 기념엽서 및 포스터 제작 등으로 협회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일 - 태권도 교본을 발행하기 위해 찍은 수많은 사진과 출판하지 못한 사연 - 잠실에서 벌어진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후 귀국시 선수들의 늑장으로 비행기가 30여 분간 연착, 출항한 일 - 주 이란 한국대사관 안기부 직원과의 갈등 - 지방순화 방문과 현대에 대한 감동 - 한국인 체육대회 주관 - 급여의 20%를 이란내 빈민 태권도인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일 - 국가대표 선수의 어이없는 손바릇 등등 흥미진진한 사연들이 많으나 생략하였다.

지금은 고인이 된 홍중수 원로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란에서는 매년 2월 혁명기념일에 국제태권도대회를 개최하는데 국민들로부터 매우 인기가 높아 관중석은 빈자리가 없다고 한다. 사진은 91년 대회 개회식 모습.

를 말씀하셨다. 나의 개성과 취미와 의지대로 살아온 이란에서의 생활이 태권도를 통해 전해져 지금의 이란 태권도는 나의 집착에서 벗어나 스스로 제 갈길을 한발 한발 도약하여 가는 중이라고 자부해 본다.

21세기의 희망인 후배들에게

이란에서의 여러 가지 체험 중 흥망성쇠(興亡盛衰 =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일)의 무상(無常 = 덧없음)함과 권력과 승패는 일시적인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고 사람도 나름대로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도 체득하였다. 마치 부나비와 같고 까마귀와 같은 군상(群像 =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모습)들... 맑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나비는 군이 날아들어 타 죽는다...

까마귀는 맑은 물과 싱싱한 먹이가 널려 있음에도 썩은 쥐만 골라 먹는다.

다행이도 분수를 지킨 덕에 부나비와 까마귀 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그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자기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지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 척도를 잴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사범들은 언어나 실력도 중요하겠으나 무엇보다 바른지세, 바른마음, 바른행동이 근본이라 하겠다. 율바름이 갖춰지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태권도 사범들은 민간외교의 대표인물로 세계 속에 우리 민족을 바르게 알리는 정신적 지도자가 되

길 간절히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마음을 맑게 하여 태권도뿐만 아니라 생활의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하여 큰 사람, 큰 사범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후배들보다 못나고 못배운 선배들의 허물과 미련을 거울삼아 종교, 지역주의, 관의식, 학연을 초월하여 우리의 정신문화를 되찾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한다. 후배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게 할 필요가 있다.

후배들이여, 넓고 큰 세상으로 나가라. 이 좁은 구석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아웅다웅 다루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마땅히 갈 곳이 없었나? 천만의 말씀이다. 1만명의 사범이 나간다고도 할 일이 널려 있다. 썩지 말고 나가라.

다음 세기가 성어(成語 = 이천부대 세상에서 흔히 인용되어 온 말)를 권면하면서 글을 맺는다.

■ 청출어람(靑出於藍 = 제자나 후진이 스승이나 선배보다 더 뛰어남을 이르는 말)

■ 후생가외(後生可畏 = 젊은이란 장차 큰 역량을 나타낼지 헤아리기 어려운 존재이므로 존중하며 소중히 다룰 일이라는 뜻)

■ 홍익인간(弘益人間 =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함)



태권도와 나

정 재 호

(계명대 신문사)

태권도학자가 있는 대학 학보 편집장의 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태권도 보급 기대

들어가면서

'태권도'라……. 음. 음. 태권도라는 화두를 머리맡에 두고 곰곰이 생각하다보니, 평소 잊고 있었던 지난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다.

우리의 태권도가 가지는 우리 사회에서의 위치를 돌아볼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던 그 때의 느낌을 여기에 올려본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태권도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도 궁금하기도 하다.

태권도가 우리를 대표하는 무예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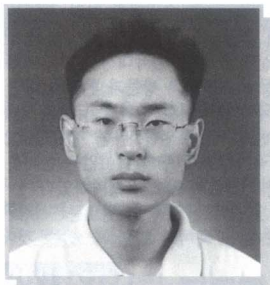
그렇다면 태권도가 우리의 정신적 토대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입장일 것이다. 남의 나라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벗 삼아 살아가고 있는 요즘 세대들의 모습에도 우리 것에 대한 애착이 사라져가고 있음에 적잖은 우려를 가지며 이 글을 쓴다.

태권도에 관한 회상

나의 회상은 지난 92년으로 돌아간다.

그 때 나는 연수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당시 중국은 우리와 국교를 맺지 않은 상태라 많은 부분에서 나의 문화적 갈등을 채울 수는 없었지만, 상하이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우리 연수단이 상하이에 있는 시민공원을 방문했을 때였다. 공원은 그저 평범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었다. 덩성덩성 들어선 나무들하며 각종 먹거리를 팔고있는 노점상들. 우리 나라의 공원과 특별히 다른 점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냥 평범한



공원이었다.

나와 연수단원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구경(?)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공원 한쪽으로 눈을 돌렸을 때 나는 신기한 무엇인가를 본 듯이 그 곳으로 몸을 향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우리 나라에는 중국에 대한 문화가 많이 소개되기 전이라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상이한 풍경에 한참동안 멍하니 눈길을 주고 있었다. 잠시 후 그곳 가이드의 말을 듣고서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태극권으로 심신을 닦고 있는 상하이의 시민들이었다.

부드러우면서도 유연하고 그리고 그 속에 힘을 느낄 수 있었던 태극권은 우리의 공원에서 아침에 흔히 보여지는 배드민턴이나, 에어로빅, 줄넘기 등과 다른 문화였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한 가운데 태극권을 즐기고 있었다는 점도 내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지금도 중국 대륙을 소개하는 화면 속에는 이 장면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은 소림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간 생활 무예의 모습으로 태극권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많은 것 같다.

우리 태권도 우리가 더 사랑하자!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는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 이제는 세계인이 함께 수련하는 무예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전 세계인이 함께 수련하는 무예에 대한 우리들 자신의 관심과 애정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그 문제이다.

조상의 정기 담긴 무예를 생활체육으로 즐기며 국민들 모두 건전한 정신, 건강한 육체 가질 수 있었으면

태권도를 스포츠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진 나로서는 태권도의 생활화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태권도는 시합을 위해 만들어진 무예가 아니라 심신을 수련하는 무예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무예가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결' 양상의 전개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태권도는 대결보다는 화합을, 적을 제압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무예라고 볼 수 있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화 열기 속에 태권도 역시 전문화의 길을 걷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특성을 여러 면에서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볼 수 있다. 다만, 우리의 국가로서 국민 모두의 생활 속에 녹아있는 태권도의 모습이 선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쉽다.

태권도를 태권도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원이나 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쉬운 때이다.

마치며

우리 나라는 세계적인 무예인 '태권도'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이제 올림픽에서도 '태권도'를 정식



제명대 시범단의 멋진 시범 모습
제명대 태권도학과에는 시범단이 있어
각종 행사에서 태권도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종목으로 정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그러나, 항상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생활 속에 파고드는 '태권도'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중국 상하이에서 내가 본 풍경은 중국인들의 생활 속에 태극권이라는 무예가 깊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었다.

반면 우리의 생활 속에는 서구에서 밀려닥친 각종 체조라는 것들이 오히려 깊게 자리하고 있다. 예전 보건체조니 뭐니 하는 시절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문화유산인 '태권도'를 생활화하기 보다,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라 만들어진 '체육'이라는 이름의 각종 정책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잊고 살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우리 대학(계명대학교)에도 태권도를 학문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과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태권도는 그 깊이와 역사를 생각할 때 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도(道)가 아닐까? 아직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면이 많다.

이제는 우리의 것을 가꾸어야 한다. 태권도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국민 모두가 가벼운 마음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태권도를 보급해주길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우리 조상들의 정기를 이어 받은 무예를 기초로 한 새로운 생활체육을 즐기면서 국민들 모두가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태권도
동아리 탐방

25

동국대학교
태권도부

정중등의 차분함과 은근한 정



97년 연무시범 중 기왓장 격파시범. 격파했을까?



1906년 구한말,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갈 때 민족자본에 의한 민족교육을 부르짖으며 출발한 대학. 일제하 31 독립운동과 2차 대전 말 학교정비에 따라 2차례나 폐교되는 등 격동의 세월을 우여곡절 속에 지나온 이 학교는 지난한 역사의 부침을 겪어왔지만 한편으로 남산의 동쪽 기슭에 자리한 덕으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며 남산의 정기를 호흡할 수 있는 특혜를 누려왔다.

이번 호에서 만나 볼 동아리는 1900년 초 한국 불교계 선각자들에 의해 세워진 후 1946년 대학 승격과 함께 교명을 '동국'으로 정하고 1953년 우리나라 최초로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동국대학교의 태권도 동아리 '선무부'다.

'선무부(禪武部)'의 유래

불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학교의 특성상 교표나 상징동물, 교훈 등에서 불교적인 색채가 짙게 배

어난다. 코끼리를 상징동물로 한 것이나 십심, 신심, 자애, 도세 등의 교훈이 그렇다. 하물며 민족 무예인 태권도부의 이름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무부(禪武部)라는 이름

은?

불교가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듯 불교의 무도도 불무도와 선무도로 나뉘는데, 선종에서 나온 선무도(禪武道)가 '선무부'라는 동아리 이름의 근원인 셈이다.

학교에서 체육 진흥의 차원에서 '선무부'라는 학교 체육부를 운영하던 것이 현재 태권도 동아리 '선무부'의 시초였다고 한다.

54년 이들 체육부 중에서 태권도를 하려고 뜻을 모은 사람들이 준비과정을 거쳐 태권도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 '선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1955년 11월 1일 김해 동씨 주관으로 선무반을 창설했는데, 당시의 선배들은 민용식 사범을 모시고 55년 본격적으로 수련을 시작했다. 민 사범은 당시 태권도계에서 우러름을 받던 3명의 고봉(高峰)중 한 분이셨다고 한다.

선무부의 자취

55년 1기를 시작으로 99년 2학기 86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젊음들이 이 동아리를 거쳐갔다. 1년에 1기씩 어떻게 86기가 되는가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을텐데, 그 까닭은 이렇다.

80년대 대학내의 운동권을 해체시키기 위해 당국에서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30기쯤부터는 부원들이 줄어들고 동아리 활동이 시들해지는 등 우려할 만한 상황



▲88년 대동제에서 발차기 시범을 보이고 있는 부원.

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때 생각해 낸 것이 '1년 2기제'다. 6개월마다 새로운 기수가 세워져서 동아리에 '새로운 피' 수혈이 가능해 지고 부원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지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태권도 동아리가 1년에 1기씩을 배출해 내고 있는데, 때로는 학기 초에 들어오는 부원들과 한기 중간에 새로 가입하는 부원들 사이에 생기는 실력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심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6개월마다 기수를 따로 두어 그 간극을 메워보고자 한 것이고 그러다보니 86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동아리의 변천사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역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 실질적인 수련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50기 박평수 선배는 '민족선도 기찬'이라는 민족무예를 태권도에 가미해 수련을 했었고 이를 이어서 김관식 선배가 선무도 중에서 오체유법(동양식 스트레칭)을 태



▲45회 창립총회에서 자리를 함께한 대선배들. 오른쪽이 1기 선배 박경호 씨, 그 옆이 선무동우회 구덕회 회장, 그 옆이 3대 지도사범 선상규 씨.



▲98년 남산을 맨발로 뛰는 훈련을 하다 잠시 멈춰서서 한 것 외국인 학생도 함께 수련했다.

권도 수련에 접목했었다.

선무도의 수련법 중에서 태권도부가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수련법인 오체유법은 부드럽고 유려한 움직임에 조용히 공간을 가르는 몸짓이 불교의 선(禪)적인 느낌이 강한 수련법인 듯 했다.

맥을 이어가는 화랑인 듯 보였지만 세기말을 살아가며 새천년을 목전에 둔 이들은 험한 바지에 세운 머리, 인터넷과 DDR을 이야기하는 21세기 젊음들이 아니던가.

30여명의 부원들이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1999년의 동국대학교 선무부원들은 축제 때는 예외없이 연무시범을 통해 수십년간 축적된 선무부의 절도있는 품새 시범과 격파를 선보이며 태권도의 아름다움과 강한 힘을 자랑하고, 2~3년 전부터는 산악부, 검도부 등 교내의 다른 4개 동아리와 함께 재단 구조팀으로서 419 등반대회, 소방구조, 의료반 등에 투입되어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름에는 설악산에 있는 아담하고 예쁜 낙산 학사(학교 수련장)로 9박 10일의 여름 수련을 떠나고 1년에 한번씩 건국대학교와 교류전도 갖는다.

지난 5~60년대에는 성균관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서울대학교 등과도 자주 합동 수련대회를 가졌다고 한다.

20기 선배인 선상규씨가 현재 지도 사범을 맡고

55년 1기로 시작해 86기 배출한 선무부 현재보다 역사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선배들의 다양한 노력은 오늘날에도 이어진다고 한다. 98년 부장의 경우는 선무도에 보다 중점을 두어 수련을 지도했고 99년 부장의 경우는 품새에 비중을 두는 등 그 해 동아리 운영을 어떤 부장이 맡느냐에 따라 수련의 양상이 조금씩 변화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었다.

현재의 선무부는?

역사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은 동아리이다 보니 현재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부원들의 이야기가 한참 뒷전으로 밀려났으나 부원들은 오히려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 했다.

부드러운 춤 같다는 선무도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들이 마치 너울거리는 옷자락을 감고 전통의

있다는 것도 이들의 큰 자랑거리다. 동아리 선배를 지도 사범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 어디 흔한 일일까. 동아리 졸업생 모임인 '선무동우회' 선배들은 연말에 있는 '선무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후배들에게 지난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느라 밤새는 줄 모른다.

얼마전 제 45회 창립 총회에는 1기 선배인 박경호 씨를 비롯해 많은 장년의 선배들이 참석해서 후배들의 가슴을 뚫듯하게 했다.

선무부의 은은한 정은 어디서?

99년 부장인 기계공학과 94학번 박병대는 뒤지 않는 조용함으로 동아리를 이끌고 있는 듯 했다. 동아리의 분위기를 '은근한 정'이 있다고 표현한



▲부원들이 대동제 연무시범에서 품새 중 금강 품새 시범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은근한 오기로 태권도를 하게 된 경우. 가입하고 첫 인사하는 날 늦었더니 같은 과 선배 한 명이 '잘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오지말라'고 했다는 것. 이에 자극을 받아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수련에 정진하여 드디어 부장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한다. 부장만 그런 것이 아닌 듯 하다. 93학년 기계공학과 김진산은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고 싶었으나 운동신경이 둔해서 잘 못하던 중 대학에 와서 열심히 하게 된 경우라고 한다. 처음에는 너무 훈련이 힘들어서 적응을 못했는데 하고 또 하다보니 적응이 되더라고.

남산을 맨발로 뛰어 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부원들은 모두 훈련의 양과 질에 혀를 내두른다.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모진 사람들'이라는 자체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면 과장이 아닌 듯 하다.

차분하게 선무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던 95학년 전자공학과 황성윤도 역경을 이겨내기는 마찬가지. 그럼에도 여학생들도 많다.

처음 동아리방에 들렀을 때 예쁘게 생긴 선배 언니가 절도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반해서 동아리에 들게 됐다는 97학년 경영학과 김혜진, 운동신경이 워낙 없었으나 지금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한, 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공학과 98학년 임혜숙 등 당차고 예쁜 부원들은 동아리에 흐르는 은근한 정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것은 아마도 처음엔 역세서리를 착용하거나 도장을 가로지르면 불호령이 떨어지는 분위기에 놀랐다는 영문과 99학번 '천재' 이길찬에게나, 부르노를 꼭 빼닮아 '동국대의 부르노'라 불리며 귀염을 받는 전자전기학과 99학번 노현석이나, 태권도 3단으로 기량을 맡고 있으며 도장에서보다 수련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전자계산학과 99학번 김용기 등 2000년에 신입생을 받을 1학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헬스 등을 해서 '몸이 좋다'고 평가받는 코발트 블루 빛 안경의 총무 송정환(경제학과 98학번)도 역시 동아리 분위기가 좋아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일 게고. 선무부의 연혁에 관한 자료를 복사해 주느라 인터뷰 자리에 참석을 못했던 한 부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일에 열심인 선배를 보며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용히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무엇을 이들은 '은근한 정'이라 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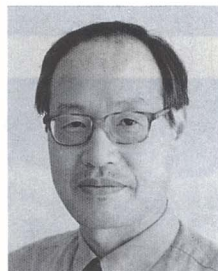


▲앞줄 가운데가 '동국의 부르노' 노현석. 뒷줄 왼쪽이 김만복(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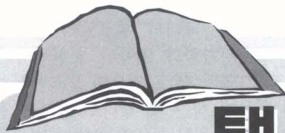
2006년에 동국인들은 동국 100주년 행사를 가진다. 그때도 선무부 부원들은 흰 도복 자락을 휘날리며 태권도의 힘과 아름다움을 한껏 보여줄 것이다. 선배들이 일궈놓은 선무부의 텃밭에서 정을 먹고 성장해서 조용한 중에 움직일 줄 아는 선무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모두에게 보여주리라.

〈정순영 프리리타터〉

역사 향기가 깃든



이 경 명
(충청대 스포츠의학과 교수)



<연재 제 21회>

태권도 백과

태권도, 시드니 2000년 올림픽 게임의 모든 것

새 천년, 대망의 새 시대를 여는 2000년이
밝았다.

제 27회 시드니 올림픽이 오는 9
월 15일~10월 1일 15일간 29개
종목경기가 위성방송을 통
해 지구촌 60억 인구가 지
켜보는 가운데 펼쳐진다.
올림픽대회 공식종목으
로 채택된 태권도가 처
음으로 참가하는 시드니
2000 올림픽게임에는 남
녀 각 4체급에서 남 52명,
여 48명 등 선수 100명의
열전이 9월 27일~30일 4일간
스테이트 스포츠 센터(State
Sports Center)에서 펼쳐질 것이다.
무도로서 유도에 이어 두 번째로 올림픽종

목으로 채택된 태권도는 1994년 9월 4일 제
103차 IOC 파리총회에서 올림픽에 입성하
는 감격의 쾌거를 일궈냈다.

그로부터 6년, 이제 오는 9월
파리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선발전을 거쳐 출전하는
44개국 100명의 선수와 24
명의 국제심판,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 기술 대
표와 조직위 임원이 펼
치는 경기운영이 주목되
며 '경기 결과의 성공여
부가 태권도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
게 될 것이다.

시드니 올림픽게임종목 태권도 경기
의 모든 것을 보자.



남녀선수 100명, 그 선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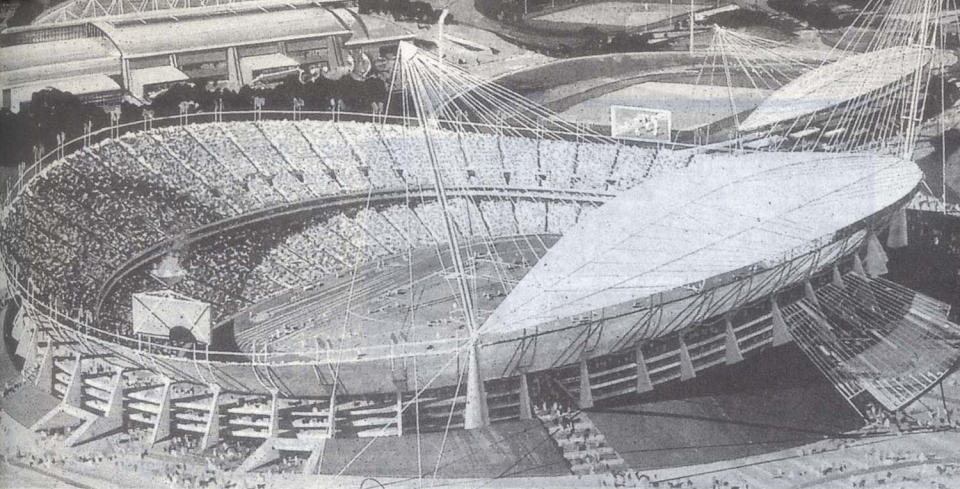
각 8개의 금메달, 은메달 그리고 동메달 등 모두
24개의 메달은 100명의 남녀선수가 펼치는 4일간의
열전을 통해 우승자의 목에 영예와 함께 걸리게 된
다.

선발 과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세계선

발전, 둘째 대륙별 지역 선발전, 셋째 주최국 자동
배정, 넷째 와일드카드 등이다.

100명의 출전티켓 중 96명의 티켓은 이미 세계선
발전과 지역선발전을 거쳐 확정되었고 단지 남파
부 4개의 와일드카드(Wild Card)만을 남겨놓고 있
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지난 해 7월 8~11일 크로아티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린 시드니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역대 올림픽 사상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아 포레에서 개최된 태권도 세계선발전에서 남녀 각 4체급, 남녀 선수 각 16명(1위~4위), 모두 32명을 선발했다.

그리고 4지역 선발전(아프리카, 아시아, 팬암, 유럽연맹)을 통해 남녀 각 28명, 모두 56명을 선발했다.

아시아, 팬암, 유럽 3개 지역에서는 남녀 각 체급별 1위, 2위 16명씩 모두 48명을 선발했고 아프리카

지역은 각 체급별 남녀 각 1위 우승자 1명씩, 모두 8명의 선발을 끝냈다. 주최국 호주는 남녀 각 4체급 1명씩, 모두 8명이 자동 배정돼 96명의 출전 권리가 확정됐다.

지역 선발전은 지난 1999년 9~10월 중에 개최됐다.

먼저 아프리카 지역선발전은 1999년 9월 9~10일, 요하네스부르

그에서, 아시아지역은 1999년 9월 25~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팬암 지역은 1999년 10월 2~3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끝으로 유럽 지역선발전은 1999년 10월 16~1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각각 개최됐다.

남녀 각 4체급 구분

시드니 올림픽게임 태권도경기 체급은 남녀 각 4체급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올림픽 출전 체급이 남녀 2개 체급씩 4개 체급으로 제한되어 있고 체급에 대한 명칭은 없고 '남자 또는 여자 몇 kg 미만' 또는 '몇 kg 이상'이라 일컫는다. 영어로는 Male, 또는 Female에서 under ?kg, 또는 over ?kg라 칭한다. 한 때는 통합 체급으로 구분, 예를 들어 올림픽 페더 등 부르기로 조직위측과 협의되었으나 관중들의 이해에 어려움을 준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남자 체급 구분	여자 체급 구분
- 58kg	- 49kg
- 68kg	- 57kg
- 80kg	- 67kg
+ 80kg	+ 67kg

각종 태권도 선발전 현황

선발전은 '올림픽 세계선발전'과 4개 '지역 선발전'으로 구분된다. '태권도 선발전'은 세계규모의 대회이고 '지역 선발전'이란 세계태권도연맹 산하 4개의 지역연맹을 두고 있는데 그 지역별로 개최되는 대회를 말한다.



▲시드니 올림픽기념주화에는 처음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기념주화(황동화)가 나와 판매되고 있다.



▲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지역선발전에서 김병욱(삼성 에스원·왼쪽)이 -68kg 출전티켓을 따냈다.

● 세계선발전

세계태권도연맹산하 현 157개 회원국 중 68개국에서 남녀선수 212명(68개국에서 남자 120명, 51개국에서 여자 92명)이 참가했다. 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아이보리코스트(코테드부아르), 튀니지아, 우크라이나 국가는 엔트리만 제출했으나 참가하지 아니했다.

● 아프리카지역 선발전

아프리카태권도연맹 산하 24개 회원국 중 18개국에서 50명(17개국 남자 31명, 12개국 여자 19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남자	여자
- 58kg 8명	- 49kg 5명
- 68kg 10명	- 57kg 7명
- 80kg 7명	- 67kg 5명
+ 80kg 4명	+ 67kg 4명

● 아시아지역 선발전

아시아태권도연맹 산하 4개 회원국 중 28개국 71명(26개국 남자 44명, 17개국 여자 27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엔트리만 제출, 참가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여자 67kg 미만(-67kg) 체급에 출전한 선수 3명은 세계연맹 경기규칙에 따라 라운드 로빈

시스템(리그전)으로 경기를 치렀다.

남자	여자
- 58kg 14명	- 49kg 10명
- 68kg 15명	- 57kg 10명
- 80kg 7명	- 67kg 3명
+ 80kg 8명	+ 67kg 4명

● 팬암 지역 선발전

팬 아메리카태권도연맹 산하 42개 회원국 중 23개 국가에서 74명(남자 42명, 20개국에서 여자 32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콜롬비아, 성 빈센트와 그레나딘은 엔트리만 제출, 참가하지 아니했다.

여자 +67kg에는 단 2명이 출전, 이 두 선수는 자등으로 출전자격이 부여되는 행운을 안았다.

남자	여자
- 58kg 16명	- 49kg 10명
- 68kg 11명	- 57kg 12명
- 80kg 10명	- 67kg 8명
+ 80kg 5명	+ 67kg 2명

● 유럽지역 선발전

유럽태권도연맹 산하 46개 회원국 중 93명(35개국 남자 55명, 25개국 여자 38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모나코는 엔트리만 제출, 참가하지 아니했다.

남자	여자
- 58kg 15명	- 49kg 8명
- 68kg 16명	- 57kg 14명
- 80kg 13명	- 67kg 8명
+ 80kg 11명	+ 67kg 8명

국제심판 참가 현황

◆ 태권도 선발전

28명의 국제심판이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선임돼 참가했다.

국가별로는 호주, 캐나다(2),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타이페이, 쿠바, 독일, 이태리, 멕시코, 노르웨이, 스페인, 터키, 홍콩, 이란, 한국(김강인·유호형·김기만), 레소토, 말레이시아, 스웨덴, 영국, 미국(이의빈·B. Lee Cutright), 베네주엘라, 베트남.

◆ 아프리카지역 선발전

12명의 국제심판이 선임, 참가했다. 국가별로는 호주, 프랑스, 한국(최정호·김선공·김기만·이봉학), 스페인, 터키, 미국(김찬용·남중국·김명찬·Stephan C. Dring).

◆ 아시아 선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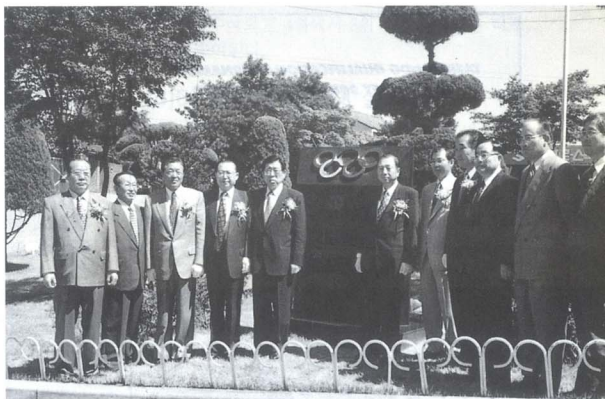
22명의 국제심판이 선임, 참가했다. 국가별로는 벨지움, 캐나다(유명옥), 크로아티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스라엘, 이태리, 레소토, 멕시코, 파라과이, 푸에토리코, 스페인(2), 스웨덴, 영국(신동환 · Ian Leafe), 미국(이재학 · 김기홍 · Valerie A. Long, James W. Evance) 베네주엘라.

◆ 팬암 지역 선발전

18명의 국제심판이 선임, 참가했다. 국가별로는 호주, 타이페이,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홍콩, 이태리, 일본(김춘구), 한국(강선장 · 오수곤 · 최종복 · 김경찬), 인도네시아(오일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웨덴, 태국, 영국.

◆ 유럽지역 선발전

26명의 국제심판이 선임, 참가했다. 국가별로는 호주(2), 브라질(임창선), 캐나다(이찬우 · Michael Jobin), 칠레, 중국, 타이페이, 이집트, 이란, 한국(박광일 · 유주환 · 김영덕 · 이춘우), 멕시코, 사우스 아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기념비가 국기원에서 제막됐다.(95년 9월 4일)

2회 연속 참가 국제심판

전부 5개 선발전에서 2회 연속 참가한 국제심판은 4명으로 김기만(한국), 이의빈(미국), Lorenzo Tricoli(이태리), 그리고 Miroslav Brezan(크로아티아) 등이다.

지난해 시드니 올림픽 96명의 출전쿼터 확정 세계선발전, 지역선발전을 통해

프리카(이은우), 미국(이선희섭 · 채규영 · 남성복, Gregory S. Kailian · Bruce C. K. W. Harris · Barbara Wakefield), 베네주엘라.

◆ 선발전에 참가한 선수 및 국제심판 현황

태권도 선발전을 비롯, 네 지역 선발전에 참가한 선수는 남녀 포함 모두 500명(남 292명, 여 208명)이었으며 대회에 투입된 국제 심판원 수는 106명이었다.

선발전	선수	국제심판
전 세계	212(남 120 · 여 92)	28
아프리카	50(남 31 · 여 19)	12
아시아	71(남 44 · 여 27)	22
팬암	74(남 42 · 여 32)	18
유럽	93(남 55 · 여 38)	26

106명의 국제심판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한국계 국제심판은 모두 31명이다.

그렇다면 거의 10명 중 세 명이 한국계 국제심판이고, 그 중 몇몇은 역대 세계대회에서 한 번도 심판을 본 경력이 없는 자도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제심판은 적어도 800여 명을 상회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감안하면 선임된 106명의 국제심판은 엘리트 심판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무진장 행운이 주어진 심판이라 하겠다.

소청과 결과

전 대회에서 5건의 소청이 제기되었다. 크로아티아에서 개최된 태권도 선발전에서는 1건(이태리:스

**TAEKWONDO QUALIFICATION TOURNAMENT
FOR SYDNEY 2000 OLYMPIC GAMES**



BULLETIN

**8. - 11. VII. 1999.
POREČ - CROATIA**

▲99년 7월 크로아티아 포레에서 열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세션선발전 포스터.

로베니아), 유럽지역 선발전에서 3건(크로아티아:
폴란드, 오스트리아:스위스, 벨지움:이태리) 그리고
아프리카지역 선발전에서 1건(가나:마다카스카) 등
이다.

각 국별 최대 남녀 각 2체급씩 출전 제한 결승 동점이면 연장전, 또 무승부면 우세판정

그 중 아프리카 지역선발전에서는 '가나 대 마다
카스카' 대전에서 패한 가나는 판정에 이의가 있다
고 판단,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위원회의 소청심의
결과 반복되는 사례를 남겼다.

출전권 획득 국가 현황

올림픽 주최국으로서 자동 출전권을 배정 받은 호
주를 포함, 모두 44개국이 출전권을 획득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아시아 지역은 12개국 33명
(남 16, 여 17), 아프리카 지역은 5개국 10명(남 6,

여 4), 팬암 지역은 10개국 19명(남 9, 여 10) 그리고
유럽 지역은 17개국 34명(남 17, 여 17) 등이다.

그리고 남녀 각 4체급 출전권을 획득한 국가는 호
주 8명을 포함, 4명의 출전권을 획득한 국가는 한
국, 타이페이, 필리핀, 미국, 쿠바, 스페인 등 6개국
이며, 3명의 출전권을 획득한 국가는 중국, 이집트,
모로코, 멕시코, 이태리, 독일, 그리스 등 7개국이다.
2명의 출전권을 획득한 국가는 이란, 일본, 베트남,
레소토, 아르헨티나,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터키,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13개국이며 가가
스로 1명의 획득 국가는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말
레이시아, 베냉, 사우스 아프리카, 니카라과아, 칠레,
브라질, 트리타니 타바고, 베네주엘라, 스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노르웨이 등 15개
국이다.

4개의 출전 티켓을 획득한 6개 국가 중 필리핀, 미
국, 쿠바는 역대 세계대회의 전적을 감안하면 의외
의 기록이다. 그러나 쿠바는 복병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고 필리핀은 체급의
선택에서 행운을 잡았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유럽이 많은 국가가 진출해
평준화된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선수와 상대국

한국선수는 남녀 각 두 체급에서 남자부는 -68kg,
+80kg, 여자부는 -57kg, -67kg에 출전 티켓을 획
득해 뒀다. 각 체급별 출전 국가를 보면,

〈남자부〉 ▲-68kg : 호주, 타이페이, 이란, 베냉,
미국, 아르헨티나, 이태리, 러시아, 스페인, 오스트
리아, 독일, 미정(와일드카드)(13명) ▲+80kg : 호
주,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스 아프리카, 쿠바,
영국,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니카라과아, 미정(와
일드카드)(13명)

〈여자부〉 ▲57kg : 호주, 타이페이, 필리핀, 베트
남, 이집트, 브라질, 트/타바고, 이태리, 네덜란드, 터
키, 그리스(12명) ▲-67kg : 호주, 중국, 일본, 모로
코, 멕시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핀란드, 노
르웨이(12명)

올림픽 태권도경기

올림픽 태권도 경기는 State Sports Center에서 9월 27~30일 개최될 것이며 참가선수의 최대 수는 100명(52 남자, 48 여자)이다.

주최국 호주를 제외하고 각 국가당 남자 2 여자 2명이 최대한 참가할 수 있으며 각 체급별 국가 당 1명으로 제한한다. 각 체급별 경기는 토너먼트전(a single elimination tournament)과 동메달 1개를 위해 패자(부활)전(a double repechage)으로 구성된다.

<이벤트>

- 1일 여 - 49kg 남 - 58kg
- 2일 여 - 57kg 남 - 68kg
- 3일 여 - 67kg 남 - 80kg
- 4일 여 + 67kg 남 + 80kg

경기는 매일 09:00부터 예선, 14:30부터 예선과 패자(부활)전, 19:30부터 패자(부활)전 및 3위전과 결승전 순서 그리고 여자, 남자 체급별로 진행된다.

결승전 동점일 때 연장전 도입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경기의 주요경기 규칙을 보면,

- 감점에 의한 동점일 경우, 득점이 많은 쪽을 전 회전 우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위 항이 아닌 동점의 경우 또는 무득점의 경우에는 주심이 전 회전을 통한 우세로 판정한다.
- 우세의 기준은 경기의 주도권으로 한다.
- 결승전에서 동점일 경우, 연장 3분에 의해 승자를 가리게 된다.(sudden death overtime system), 서든 데스(sudden death)라는 경기방식은 지난 1999년 6월 1일 제 14회 세계연맹 총회에서 결정되었다. 일종의 연장전으로서 동점일 경우 1회 3분 경기에서 선취점을 하는 즉시 경기를 끝내는 방식이다. 만약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연장전의 경기 내용으로 우세판정을 내리게 된다. 시드니 올림픽을 위해 한시적으로 채택했다.

메달과 디플로머

금, 은, 동 각 1명의 우승자에게 메달과 디플로머

(증서)가 수여되고, 4위에서 8위 입상자에게는 디플로머가 수여된다.

1미터 높이의 경기대 설치

지난 1999년 6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제 14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시 처음으로 시도한 바 있는 경기장의 높이를 조정, 설치한 경기대처럼,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경기의 면적은 사방 16m×16m의 너비의 표면을 1m 높이로 경기대를 설치하게 된다.



▲세계선발전에서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낸 조항미, 강해은, 김제경(왼쪽부터).

경기대 설치의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관중은 물론 TV중계를 통해 시청자에게 박진감 있는 장면을 보여줘 흥미와 관심을 배가시키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올림픽 국제심판 선정

세계연맹은 올림픽 태권도경기에 참가하게 될 국제심판 24명을 선정하는 데 있어 1월중 우수 심판 70명(국가별 1명씩)을 소집, 서울에서 보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은 고과, 인종, 국가, 지역 등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선정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선정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다음호에 계속>

역사속의 테권도소설



<연재 제 35회>

호로아 글 · 그림

마음놓고 웃는 이노우에 공사

공주를 향해 진격하고 있는 동학군의 움직임은 시시각각(時時刻刻=시간의 흐름에 따라)으로 공주성에 자리잡은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군 사령부에 보고됐다.

북쪽은 금강을 등에 지고 공주는 호남에서 서울로 이르는 길목에 있었다.

공주를 둘러싸고 있는 봉황산 견준봉 능치 은금치 뱀새울 등 높고 낮은 산봉우리, 그리고 눈산으로부터 노성에 이르러 두 갈래로 나뉘어 공주로 향하는 길에는 관군과 동학군 양쪽의 정찰병(몰래 적군의 움직임을 살피는 군사)들이 더러는 짐꾼이나 농부 등으로 변장해서 꺾악 깔려있었다.

농민들의 협조로 동학군은 보다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는 있었으나 풍부한 자금을 뿌리는 관군 쪽에도 정보는 많이 팔리고 있었다.

관군의 정보수집에 앞장서고 있는 사나이는 지리산패에 한쪽 팔까지 잃어 동학군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있는 삼돌이었다.

남의 약점을 알아내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삼돌이는 그가 수집해오는 정보의 중요성과 정확성이 높기 평가받아 관군뿐만 아니라 일본군으로부터도 신임을 받고 있었다.

『틀림없이 동학군의 주력부대는 공주로 향하고 있던 말이지?』

그때도 못미덥다는 듯 이노우에 공사가 다시 확인한다.

일본정부의 내무대신까지 지낸 거물 이노우에는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는 작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조선 현지에 파견한 인물이었다. 썩은 정치를

개혁하고 일본을 몰아낸다는 대의명분 아래 들고 일어난 동학군이 공주를 돌파할 경우 조선 방방곡곡에서 동학군에게 호응하는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아 거의 다 이겨놓은 청나라와의 전쟁이 어찌면 뒤집어질 염려도 있는 데다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일본에게는 걱정거리였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주에서 동학군을 깨부수고 그 뿌리를 뽑아내 뒤탈을 남기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있었다.

복면 군사 두역시니의 서울 진격 주장을 듣고 이노우에는 신음소리를...

『혹시 양동작전(陽動作戰=본디의 목적과는 다른 움직임을 일부터 드러냄으로써 적의 주의를 그 쪽으로 끌리게 하여 정세판단을 그르치게 하려는 작전)을 써서 공주를 공격하는 척하면서 다른 동학군 부대가 금강을 건너 서울로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

얼마나 걱정스러웠으면 이노우에 공사가 또 다시 다짐할까.

『네, 틀림없습니다. 동학군의 1개 부대는 효포로, 또 다른 1개 부대는 이인으로부터 우금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금강을 건너 북으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삼돌이가 이노우에 공사에게 자신 있게 대답했다.



두역시니는 정말 무서운 녀석이다

『으음, 그렇다면 동학군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셈이군』

그제야 이노우에는 약간 안심이 된다는 듯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고개를 끄덕였다.

『으아하하하!』

잠시 눈을 지긋이 감고 생각에 잠겼던 이노우에가 갑자기 웃음보를 터트리며 그 자리에 있던 관군과 일본군의 장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동학군이 제아무리 위세(威勢=위엄이 있는 기세)를 떨치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무지(無知=아는 바나 지식이 없음)한 무리일 뿐일세』

이노우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동학군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각하! 동학군이 역도(逆徒=반역의 무리)이긴 하나 괴수 전봉준을 비롯 학문에 뛰어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총청관찰사 박제순이 이노우에 공사에게 동학군을 만만히 보아서는 안된다는 뜻을 던지시 비쳤다.

『아닐세, 동학군에 전쟁을 제대로 아는 자가 있었다면 공주를 공격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서울로 쳐 올라갔을 것일세. 그렇게 했다면 매우 어려운 처지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공주를 그대로 버려 두고 서울로 진격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삼돌이의 이 말에 이노우에의 표정이 갑자기 또다시 굳어진다.

『아니, 그... 그게 무슨 소리인가? 상세히 설명해보게』

모두가 삼돌이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공주 진격을 앞둔 마지막 참모회의에서 동학군의 군사(軍師) 두역시니는 공주를 돌아 바로 서울로 올라가자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삼돌이의 이 말에 방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래, 복면을 쓴 그 문둥이 군사가 그런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두역시니는 공주를 거들떠보지 않고 북상(北上=북쪽으로 올라감)해서 서울을 겨냥하면 상황은 동학군에게 크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흐음!』

신음하듯 내뱉은 이노우에는 소문에만 들던 두

역시니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전봉준은 왜 그토록 믿고있는 두역시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이노우에의 질문에 이번에는 삼돌이 대신 충청관찰사 박계순이 대답한다.

『각하. 아무래도 전봉준은 소문에 들리는대로 풍수지리(風水地理=땅의 형세나 방위를 인간의 운수인 길흉화복·吉凶禍福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학설)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공주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수지리라?』

일본도 많은 잡귀신을 섬기는 나라이긴 하지만 일단 전제가 벌어지게 되면 작전은 오로지 승산(勝算=이길 가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풍수지리 따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보면 이노우에는 풍수지리에 얽매인 전봉준을 얼핏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두역시니는 무서운 녀석이다. 무예보다는 그의 전략(戰略=전쟁, 전투의 계략)이 무섭다. 다시 지시해라. 동학군 무리 가운데 복면을 쓴 자는 무조건 쏘아 죽이도록 힘쓰라고...』

이노우에는 동학군을 물리치려면 먼저 두역시니와 그가 이끄는 지리산패를 죽여 없애야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삼돌이. 동학군의 참모회의 상황을 자네가 알아냈다면 동학군 참모 가운데 우리 쪽과 대통하고 있는 자가 있던 말인가?』

『각하!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참모 한사람이 그의 막사에 돌아와서 부하들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그 곳에 잠입해있는 저희 쪽 간자(間者=스파이)가 알려 온 것입니다.』

『그렇구면. 좋았어. 좋은 정보를 빼내려면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되네. 관찰사는 삼돌이에게 계속 돈을 대 주시요』

버드 여사의 여행기에 나타난 동학병기

이노우에 공사가 염려하고 있던 대로 동학군의 움직임에는 조선 은 땅 백성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었다.

만약 전봉준이 뜻한 대로 공주가 함락해버리면 동학군은 충청도와 전라도를 완전 장악해서 서울을 넘나 볼뿐만 아니라 경상도의 농민들이 가세할 경우 부산을 기지(基地=군대의 행동 근거지) 삼아



▲이사벨라 버드 여사가 지은 「조선기행」이라는 책에 실린 조선 국왕 고종의 모습. 버드 여사는 「조선기행」에 「동학군의 위세가 하도 강해 국왕도 서울을 떠나 피난갈 것을 각오하고 있다는 소문이 거리에 퍼져 있었다」고 썼다.

서울로 뺀 일부분의 병참선(兵站線)이라든 작전부대와 전쟁물자를 보급하는 병참기지를 잇는 수송로마저 위협받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일부분의 무력(武力)이 두려워 사태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고 있던 다른 지방의 농민들이 동학군의 움직임에 가담(加擔=한편이 되어 힘을 보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당시 이 땅이 얼마나 어수선했고 외국은 동학군을 어떻게 보고있었는가를 밝히는 외국인의 기록이 있다.

영국의 여류여행작가인 이사벨라 버드는 동학란

이 일어났던 1894년의 1월부터 1897년 3월에 걸쳐 4 차례나 조선을 방문해 자신이 듣고 본 사실들을 「조선기행(朝鮮紀行)」이라는 책에 담아 1897년 11월에 출간했다.

그 가운데 동학군에 관한 대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원산(元山)에 머무르고 있던 어느 날 동학당이 정부군(官軍)의 거들링포(砲)를 빼앗아버렸다는 소문이 퍼지는가 하면 다른 날에는 동학당은 진압 당해 여러 장소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수수께끼의 주모자는 참수(斬首=목을 자름) 당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여기서 「여러 장소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여러 곳에 출현한다는 뜻으로 홍길동이나 손오공처럼 분신술(分身術=한 몸이 여러 몸이 되는 술수)을 쓰는 수수께끼의 인물이 동학군의 주모자였다는 이야기다.

「내가 원산을 떠나기 직전의 풍문(風聞=바람결의 소문)은 동학당이 대단한 기세로 부산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동학당이 발표한 격문(檄文=널리 세상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의로운 분노를 고취시켜서 치러 쓴 글)은 부패한 관료와 대역(大逆=왕권을 침해하는 큰 죄)의 정부 고문들에 대해 봉기한다고 밝히는 한편 왕실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충성을 맹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격문으로 판단한다면 만약 조선 어딘가에 나라를 걱정하는 백악이 고동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 농민의 가슴속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동학당은 봉기를 했으면서도 지나치거나 무리한 살륙(殺戮=많은 사람을 마구 죽임)은 저지르지 않고 있는 듯. 스스로의 행동을 개혁계획 실행의 테두리 안에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가운데도 동학당에 공명(共鳴=남의 의견이나 사상 따위에 동감함)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악정(惡政=백성을 못살게 구는 나쁜 정치)은 더 이상 심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나친 착취에 골갈 일어나는 농민봉기를 넘어선 규모로 무장항의 해야할 때는 무르익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이미 이 땅의 정치는 썩을 대로 썩어있어 동학군의 봉기는 정당한 것으로 보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사벨라 버드 여사의 글은 이어진다.

—조선 남부의 반란(동학란)은 수도(서울)의 불안에 부채질하고 있었다. 규모가 작기는 했으나 이러

한 봉기는 조선 반도에서 매년 봄에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두 세 곳의 지방에서 관료의 착취에 격분한 농민이 봉기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폭력을 써서(사망자가 나올 때도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벼슬아치들을 내쫓아버린다. 처벌은 여간해서 행해지지 않는다.

국왕은 또다른 관료를 그 지방에 내려보내고 새로 부임한 그 관료가 또 농민을 착취해서 그 착취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면 실력행사로 내쫓아버려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동학당의 격문은 국왕에 대한 충성 다짐과 백성들의 괴로움 나타내

이 동학란은 서울 기타 다른 도시에서도 많은 지지자를 얻을 만치 널리 조직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운동이었다.

극히 명확하고 정당한 목표를 내걸고 있어 나 같은 사람은 처음에 그 주동자들을 「역도(逆徒=반역의 무리)가 아니라 「무장 개혁자(武裝改革者=개혁을 위해 무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라 부르고 싶었을 정도였다.

이 시점에 있어서 동학란은 왕권에 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동학당의 격문은 경어(敬語=높임말)를 쓰면서 국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극히 온건한 표현으로 백성들이 겪는 괴로움을 나타내고 다음 사항을 거리낌없이 주장하고 있다.

▲조선의 관료들은 사리사욕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나쁜 짓에 관한 소식이나 보고를 일체 국왕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 ▲중앙정부의 대신, 지방 관찰사, 군수 등은 나라의 번영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그들의 수탈(收奪=재물 따위를 빼앗음) 행위를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 ▲관료생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과거시험은 뇌물을 주고받음, 거래, 매매의 마당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며 이미 문관으로서의 적성을 살피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 ▲관료들은 급격히 쌓여 가는 나라의 빚에 는 마음을 안쓰고 있다는 것 ▲그들은 오만하고 허

영심이 강해 간통에 빠져있으며 탐욕스럽다는 것 ▲지방관직에 임명된 벼슬아치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지방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지낸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평화시에는 아침에 여념이 없으며 유사시(有事時=비상한 일이 있을 때)에는 도망가 임무를 핑개친다는 것.

격문에는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담겨져 있었다. —

동학군의 우두머리는 수수께끼의 인물

그때만 해도 신통력(神通力=보통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마음대로 하는 신비한 힘)이나 축지법(縮地法=도술로 지맥을 축소하여 거리를 가깝게 하는 일), 둔갑술(遁甲術=술법을 써서 마음대로 자기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하는 재주) 등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믿어졌던 시절이다.

그래서 동학군들도 처음에는 주문(呪文)을 외우면 충알이 피해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의 존재를 믿었던 시절이라 동학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기한 이야기들이 떠돌았던 것도 당연했다. 이사벨라 버드 여사의 글에는 동학군에 대한 놀라운 소문도 담겨져 있었다.

—동학군의 우두머리가 어떤 인물인지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여러 곳에 동시에 나타나 귀신같은 힘으로 민중들의 신뢰를 얻고 한문과 일본 말을 아는 데다가 앞을 내다보는 눈, 전력(戰力=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배치방법, 그리고 서양의 영향을 느낄 수 있는 전술(戰術=작전의 수행방법이나 기술) 등으로 미루어보아 근대 전법(戰法=전쟁을 싸우는 방법)의 지식을 그는 어느 정도 지니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 인물을 떠받드는 자들은 처음으로 구식무기인 칼과 창으로만 무장하고 있었으나 정부의 무기와 왜 패전한 정부군으로부터 빼앗은 라이플 총을 지니게 됐다.

유언비어(流言蜚語=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터무니없는 소식)가 마구 엮였지만 그 가운데는 사실 같은 것도 있었다.

어떤 이야기나 하면 국왕이 동학당 진압을 위해 몇 백 명의 병사를 보내 그 지휘관이 도중에 300명을 새로이 징병(徵兵=강제적으로 병역·兵役에 복무케 함)하여 무장시켰다.

그러나 동학당과 교전(交戰=서로 전투를 벌임)

중 그 300명이 역도(逆徒=여기서는 동학군을 가리킴) 쪽으로 돌아서 버려 정부군 병사 300명이 죽었고 그 지휘관은 행방불명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정부군이 몇 군데서 패배함으로써 중요 지방관료 몇 명이 벼슬을 빼앗기고 동학군은 서울로 향해 진격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긴박감은 더욱 높아져 『국왕은 서울 탈출을 각오하고 있다』고 거리에서는 속삭이고 있었다.

오늘날처럼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상황은 정확히 전해질 수가 없었고 사람의 입으로부터 입으로 전해지는 뜬구름 같은 소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치밀했던 일본의 조선침략 준비

이사벨라 버드 여사는 그가 지은 『조선기행』이라는 책 속에서 동학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글을 썼으나 동학관이 결국은 일본에게 조선진출의 빌미를 주고 말았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버드 여사의 글을 조금 더 살펴보자.

—그러나 동학당의 봉기는 일본에게 더할 수 없이 알맞은 간섭의 구실을 주고 말았다. 그것을 밝히고 싶은 마음으로 나는 이미 과거의 역사가 되고만 사건들은 돌아오고 있다.

조선에 있어서 나라의 존망(存亡=존속과 멸망. 즉 사느냐 죽느냐의 뜻)이 달리고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뜻을 지닌 의문의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보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침략이 아닌가? 일본은 적으로서 왔는가, 아니면 도와주려고 왔는가?」였다.

6,000명의 군대가 3개월의 주둔 예정으로 상륙한 것이다. 일본의 선박회사의 기선 15척이 정기항로를 쉬면서까지 군용수송을 맡았다.

일본군은 서울가도의 고개와 마포에 진을 치고 총기(銃器)를 지닌 대단한 전력(戰力)으로 서울 변두리의 남한산에 본영(本營=총지휘관이 있는 군영)을 설치해버렸다.

그리고 여기에서 왕궁과 수도의 양쪽에 지령을 내렸다.

이 일본군의 교묘하고 상식적인 틀에서 벗어난 움직임은 제물포(인천)나 서울의 일본인 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조선의 정확한 지도를 만들고 사료(군대에서 쓰는



▲이사벨라 버드 여사는 동학봉기가 일어난 뒤 제물포(인천)에 상륙한 일본군의 큰 규모와 엄격한 규율에 놀랐다고 자신이 쓴 『조선기행』이라는 책에 털어놓았다.

말의 먹이나 식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강의 폭이나 깊이를 측량하고 3개월 치의 쌀을 조선에 비축(備蓄=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모아둠)해 두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변장한 일본군 장교가 티베트의 국경까지 숨어 들어가 청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조사해 공칭(公稱=공식으로 일컬음) 병력과 진짜 병력, 총기, 구식이며 잘못 만들어진 것이 많은 카로네드포(砲)에 대해 보고했음으로 일본군은 청나라 각 지방으로부터 얼마만한 병사를 싸움터에 동원할 수 있는지 그 병사들을 어떻게 교련(教練=전투에 적응하도록 가르치는 기본훈련)시키고 어떤

게 무장시키는가를 청나라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부패와 부정이 만연(蔓延=널리 퍼짐)하고 있는 탓에 애국심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어 병참부(兵站部=군대에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보급, 관리 및 재산처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 등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인 청나라가 전투를 유지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군대를 싸움터에 보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도 일본은 알고 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일본은 조선에서 완벽하게 청나라의 뒤통수를 치고 있었다.

일본군이 서울에 나타나자 청국 변리공사관, 청국 영사관 관계 가족의 여성 30명이 귀국 길에 올랐고 내가 제물포에 도착한 날에는 800명의 청국인이 이 항구를 떠났다.

청국인 거류지의 주민들은 건잠을 수 없이 당황해 가장 장사가 잘되던 야채 재배업자마저 도망가 버렸다.

평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던 청국인이 6월의 그날(일본군이 상륙한 날)만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잊고 인종적 증오와 금전적 손실에 약이 올라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고향을 지르는 야만인으로 변해버렸다. 그날 내가 묵고있던 정국인 경영의 여관은 흥분의 도가니로 내가 산보를 끝내고 돌아가거나 혹은 나에게 서양인 손님들의 내방이 있었을 때마다 평소는 조용하고 겸손한 종업원들이 불안에 표정을 일그러뜨리면서 내 방에 몰려들어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청국군은 오늘밤 여기에 도착하지 않는가?, 영국 함대가 도와주기 위해 오지 않는가?, 등등을 물었다.

뛰어나게 사람됨이 훌륭한 나의 청국인 머슴조차 녀석이 나간 것처럼 『죽여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엄격히 통제된 난쟁이(일본군)의 군대는 확실히 서울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다.

버드 여사의 이 글은 청일전쟁이 터지기 직전인 1894년 6월 조선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허우대만 큰 종이호랑이 청나라는 착실히 준비해

은 일본의 적수가 못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많은 일본군이 제물포에 상륙하자 청국인들이 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다고 이 글에는 적혀있다.

이러한 상황을 살핀 직후 버드 여사는 영국 부영사의 방문을 받아 그날 밤 안으로 조선을 떠나라는 충고를 받는다.

버드 여사는 『그때 부영사의 진지한 모습으로부터 판단할 때 그는 외부에 밝힐 수 없는 정보에 바탕을 두고 영국인들에게 조선을 떠나도록 충고했음이 분명했다.』고 돌이켰다.

그날 밤 제물포를 떠나는 일본 배를 타고 버드 여사는 다른 영국인 2명과 함께 중국으로 떠났다. 그만큼 당시 조선의 상황은 긴박해 있었다.

뒷날의 金九 주석도 동학의 접주였다

호남을 휩쓴 동학군이 공주를 향해 진격하고 있을 때 조선의 온 나라 안은 크건 작건 간에 동학의 영향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면할 수 없었다.

동학군의 봉기를 돌이켜 볼 때 주된 세력이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다른 지방, 특히 황해도는 전라도 다음으로 동학군이 위세를 떨쳤던 지방이다.

뒷날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主席)이 된 김구(金九)의 어릴 적 이름은 창암이었다.

그의 자서전인 『백범일지』에 『우리는 판에 박힌 상놈으로 뒷골 근동에서 양반행세 하는 진주 강씨, 덕수 이씨들에게 대대로 천대와 압제를 받아왔다』고 쓰여있다.

해주 백운방 뒷골에 터전을 잡아 대대로 살아온 안동 김씨인 김순영의 아들로 태어난 창암은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글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를 보려고 했으나 과거도 실력에 따라 뽐하지 않고 온갖 부정이 판을 친다는 사실에 실망을 느끼고 마음을 고쳐먹는다.

김창암은 이웃마을의 최유현, 오웅선 등을 통해 동학에 들어가게 됐고 열심히 동학경전(經典=종교의 교리들을 적은 책)을 익혀 많은 사람들을 동학으로 끌어들이었다.

그는 창암이라는 이름을 창수(昌洙)로 바꾸었으며 사람들은 17살의 창수를 「아기접주」라고 높여서 불러주었다.

김창수는 동학의 선배인 최유현, 오웅선을 따라 보은으로 최시형을 찾아가 보았고 그 때에 순병회(뒷날 3·1운동의 주동자 33인 가운데 한사람) 등 동학의 지도자들과도 만나보았다.



▲ 뒷날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 된 김구는 김창수라는 이름이었던 17살 때 황해도 동학의 접주로서 봉기에 가담했었다.

김창수가 사는 마을의 뒷산은 팔봉산이었고 팔봉도소의 접주로 되면서 그는 「아기접주」가 아닌 어엿한 접주로 불리게 됐다.

『큰일 났다! 동학군이 쳐들어온다!』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1894년 10월 6일 해주감영은 발칵 뒤집혔다. 이 고장의 「위 동학당」(僞 東學黨=동학당을 위장한 무리)까지 긴 동학군이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위 동학당」이란 외국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무리, 강도나 절도 등의 범죄자, 그리고 무직자로 살아가기 어려운 무리, 지방관료들의 학정(虐政=백성을 못살게 구는 다스림)에 원한을 품은 무리, 사금(砂金=강바닥이나 해안의 모래에 섞여있는 금) 채취를 금지 당한 광부 등이 세상에 불만을 품은 무리들로 동학의 주장에 동조해서라기보다 자신들의 한을 풀기 위해 동학과 함께 움직이는 자들이다.

동학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에 해주감영은 난리가

났고 동학군은 감영에 무혈입성(無血入城=피를 흘리지 않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성을 점령함)한 뒤 군기(軍器=무기)를 빼앗고 문서를 불질렀으며 군인과 구실아치들을 묶어 두들겨 패는가하면 감사를 당 아래에 무릎 꿇리고 역시 매질을 가했다.

사흘 뒤 해주성을 나선 동학군은 두 패로 나뉘어 강령, 신천, 송화, 문화, 평산 등지를 차례로 차지했고 장수산성과 수양산성도 빼앗아버렸으며 웅진에 있던 황해도 수영(水營=수군절도사의 군영)도 함락시켰다.

『황해도에서 동학군이 봉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서부터 일본군 70여명이 신식무기를 지니고 황해도로 달려왔으며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도 산천지방으로 내려왔다.

한편 현지에서는 지배계급인 양반부호들이 동학을 토벌하기 위한 군사를 일으켜 관군, 일본군과 힘을 합쳤다.

동학군은 최서옥의 지휘 아래 해주 죽전장터에 집결하고 다시 취야장터로 옮겼다가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을 받고 후퇴했다.

동학군 선봉장이 된 金九

동학군은 11월 27일 또다시 해주감영 공격에 나섰으며 이때 팔봉접주 김창수는 산포수 700명을 거느리고 선봉장을 맡았다.

선봉대인 팔봉접군은 남문을 먼저 공격해서 성안의 관군을 그쪽으로 몰리게 만든 뒤 수비가 약해진 서문을 들이치려는 작전을 세웠다.

그러나 때마침 성밖에 출동했던 일본군이 해주공격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바람에 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일본군과 관군의 기록에는 『동학군을 30리까지 추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산포수 20명을 쏘아 죽이고 15명을 사로잡았다』고 되어있다.

부하들을 이끌고 빠져 나온 김창수는 장기전에 대비하여 구월산으로 들어가 패업사에서 동학군들의 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동학의 깃발아래 모인 농민들 가운데에는 마음 약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새로 부임한 황해감사 조희일이 유화정책(有和政策=상대방의 강경한 자세에 대하여 양보하거나 타협하여 화평을 꾀하는 정책)을 펴자 김창수를 동학에 끌어들었던 장본인 최유현, 오응선 등은 『동학군의 무기를 거두고 해산시켜 귀화한다』는 사실상

의 저항포기를 다짐해버렸다.

무기를 놓지 않은 동학군 사이에서도 내분(內紛=내부에서 일어난 분쟁)이 일어났다.

이동엽이 이끄는 동학군은 그 가운데도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으나 노략질을 일삼는 바람에 김창수 부대는 노략질한 이들을 잡아 처벌했다.

군기(軍紀=군대를 통제하기 위한 규율이나 풍기)가 엄했던 김창수부대에서 빠져나와 이동엽부대로 넘어 가버리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김창수가 홍역을 앓고 드러눕게 되자 「아예 이때에 김창수부대를 없애자」고 이동엽부대가 공격을 가해오는 바람에 김창수부대는 화포명장 이종선이 죽고 이탈하는 자가 많았다.

일제의 가담을 서늘케 한

김구의 항일독립운동은

동학봉기에서 처음으로 나타나

일본군이 구월산을 공격해서 동학군을 해산시키고 이동엽을 쏘아 죽이자 황해도에서 동학군의 움직임은 끝나고 만다.

숨어지내던 김창수는 항일(抗日=일본에 항거함)의 뜻을 더욱 굳혀가며 1895년의 민비(閔妃)암살에 가담했던 일본군 장교를 때려죽인 뒤 망명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친다.

김창수는 김구(金九)로 이름을 바꾸고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까지 지내고 윤봉길, 이봉창 의사들을 키워내 폭탄투척사건을 일으켜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만들었다.

광복 후 귀국했으나 남한만의 단독정부인 대한민국 정부수립에는 참여치 않았다가 1949년 안두희가 쏜 총탄을 맞고 숨졌다. 그때 온 국민들은 독립운동의 거목(巨木=큰 나무)이었던 김구 주석의 서거를 슬퍼했다.

김구의 항일독립운동은 동학봉기에서 처음으로 나타났고 그 뒤 중국에 망명, 상해(上海), 중경(重慶)에서 꾸준히 펼쳐져 결국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긴 했으나 남북이 분단된 것을 안타까워했었다. 그는 장덕수, 송진우 등의 민족지도자들처럼 동포의 손에 목숨을 잃는 비운(悲運=슬픈 운명)을 맞이해 73세의 삶을 마감했다.

<다음호에 계속>



하 권 의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스포츠의학과)

스포츠 의 학

칼

럼



심 중 섭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아정형외과)

어린이의 물리치료

물리치료는 재활에 기여

외래에 팔꿈치가 잘 펴지지 않는다는 8세 어린이가 방문하였다.

“2개월전에 팔꿈치의 뼈가 부러져서 어느 병원에 가서 잘 맞춘 후에 석고붕대를 감아 4주간 지냈습니다. 석고붕대를 풀고 난뒤 하지 말라는 물리치료를 1개월간 하였는데 팔이 아프다고만 하고 펴지지 않은 채 운동은 점점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질문하였다.

그 어린이는 그 후 한달만에 저절로 팔이 잘 펴지게 되었다. 펴지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었다. 단지 “절대로 물리치료 받게 하지 마시고 그냥 놔 두십시오.”하는 말만 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팔다리나 척추에 손상을 받고 수술적 치료를 한후 또는 선천성 기형이나 근육, 신경계통의 수술을 받은 어린이들은 수술 후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의 재활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물리치료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에서도 질병의 치료 후 재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재활치료는 때로 해로울 수가 있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하여 뼈나 관절이 여리고 약하기 때문에 잘 부러지거나 다치기 쉽다. 모든 생물에서 다 자란 생명체에 비하여 어린 생명체는

쉽게 환경에 영향을 받고 쉽게 충격 받고 쉽게 도태되기도 한다.

무리한 관절운동은 오히려 해 끼쳐

다행히 사람에서는 어린이들은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만 또한 회복 능력도 어른에 비하여 빠르다.

예를 들어 팔이 골절상을 입었을 때 어른은 2달, 3달씩 석고붕대를 하거나 수술을 하여 정확히 맞추어야 완전히 다치기 전 상태로 회복되며, 심하게 다친 경우는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하여 부러진 팔이나 다리의 뼈가 쉽게 치유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적당히 맞추어서 변형이 있다 하더라도 성장이 많이 남은 어린이들은 크면서 저절로 변형이 교정되는 수가 많다.

추운 겨울에 미끄러운 놀이터나 스케이트장, 스키장에서 넘어지거나 부딪쳐서 다치기 쉬운 어린이들의 뼈는 손목, 팔꿈치, 허벅지 다리뼈이다.

특히 손목이나 팔꿈치는 뼈가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팔을 뻗치고 넘어지면 충격을 고스란히 손목이나 팔꿈치의 관절에서 흡수하게 된다.

충격이 어린이의 관절의 역할을 넘어서면 견디지 못하고 관절 주위의 뼈가 부러지게 된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골절상은 대개 뼈를 맞추고 석

고봉대를 몇주일간 지속하면 완전히 치유된다.

어린이들이 골절상을 당하고 석고 봉대를 하는 동안에는 대개 통증이 없지만 석고봉대를 제거하고 관절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통증이 많다.

따라서 이럴 경우 물리치료나 재활 치료는 관절의 신속한 회복에 도움을 주고 또한 동통완화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무릎이나 발목주위의 관절은 물리치료를 통하여 신속한 회복과 동통완화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팔꿈치 주위의 골절상을 입은 후 회복하는 어린이들은 과격한 물리치료가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스스로 운동하면 저절로 회복될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관절 운동을 억지로 시키면 관절 운동이 신속히 회복되기는 커녕 오히려 관절이 영원히 굳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팔꿈치 관절은 무리한 운동시 출혈

팔꿈치 관절은 무리하게 운동을 시킬 경우 팔꿈치 주위 근육 속에서 출혈이 생기고 이러한 출혈은 지



또한 근육 경직을 풀어주는 수술을 한 후에도 뇌성마비 환자에서 물리치료는 많은 효과가 있다.

어린이들의 물리치료

학교에 다닐만한 연령의 어린이들은 대개 스스로의 병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은 물리치료가 매우 어렵다.

특히 통증이 동반되는 운동 요법인 경우는 물리치

어린이 팔꿈치 골절상은 함부로 물리치료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뇌성마비 같은 신경근육계통 질병에 물리치료 효과

속적인 과도한 움직임 속에서 빠르게 변하게 된다. 따라서 관절 주위 근육 안에 발생된 뼈로 인하여 관절은 굳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필자들은 어린이 팔꿈치 골절상을 당한 어린이에게는 절대로 물리치료를 하지 않는다.

물리치료를 안하고 그냥 두더라도 어린이 팔꿈치 관절은 스스로 관절운동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물리치료가 가장 치료효과가 있는 질병은 뇌성마비 등과 같은 신경 근육계통 질병에서이다.

근육이 경직되거나 힘이 미약한 경우, 지속적인 물리치료로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고 힘을 길러 주면 어린이의 운동 능력이 놀랍게 향상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료사 등 낮은 치료자를 매우 경계하게 되어 치료 효과가 성인에 비하여 낮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럴 경우 가장 좋은 물리 치료사의 역할은 어린이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엄마의 손길로 물리치료를 받으면 거부감이 줄어 어린이의 어린이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물리치료를 장기간 요하는 질환 어린이들의 많은 어머니들은 거의 물리치료사 못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어린 연령에서의 물리치료는 성인에 비하여 매우 조심스러우며 치료가 쉽지 않다.

또한 물리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스스로 컨트롤하기

“중요한 것은 당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 Dr. 랍 길버트 -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기술적
인 것도 아니고 전술적인 것도 아니라고 확신
하고 있다. 비교적 좋은 몸을 가지고 있고, 자
신의 스포츠 전략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있
는데도 여전히 슬럼프라는 수렁에서 헤어나오

지 못하고 있다. 정말 상태로 깊이 빠져 들고
있는데도, 그 원인이 정력 고갈 때문이 아니라
고 확신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다!
위의 표현이 맞다면 확실히 슬럼프는 정신
적인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이진선 옮김>

침체된 성적을 회복하려면 마음
속에 있는 미지의 황야(荒野)에
당장 도전해 봐야만 한다.

보통의 스포츠 선수와 코치라면
자신의 “스포츠의 운명”을 조절
하는 데 익숙하다.

성실한 선수라면 적절한 양의
훈련, 희생, 좋은 지도가 있으면
대부분의 목표를 완수할 수 있다.

경기력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아마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육체
를 조절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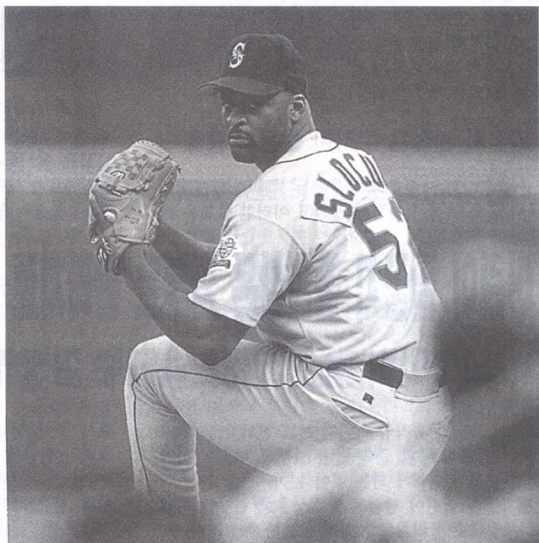
장애를 만나면 그 장애를 싸워
서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에 대
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꼈다.

자신의 육체를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었고, 강한 의지가 있으면
자신의 목표에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근육 통증, 늘어난 인대를
참아낼 수 있고, 심지어 뼈가 부
러지더라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패, 좌절, 부상은 일시적으로
는 성적 향상에 장애가 되더라도 결국은 성공을 향
한 결심을 가속시킨다고 여겼다.

1984년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인 팀 다것은 위
에서 열거한 강인한 태도를 통해 뛰어난 선수 경력
을 쌓았다.

다것은 체조 선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4가지



▲실수하면 어찌지? 미리 실패에 대한 걱정에 빠질수록 슬럼프를 발생시키게 된다.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간단히 컨트롤을 포기한 채 자신의 꿈을
버리기를 거부했다.

한가지 부상을 입은 후 9명의 의사가 다것에게 이
부상이 심각해서 목 수술을 받아야 하며, 다시는
경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것은 단념하지 않고 다른 의사를 찾았다.

그가 만난 10번째 외과의사는 그전의 9명의 의사들이 말한 수술은 매우 극단적인 처방이라며, 대신 휴식과 강도 높은 재활치료를 처방해 주었다.

9개월 후 팀 다것은 체육관으로 돌아와 다시 성실하게 훈련에 몰두했다.

위와 같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은 올림픽 수준의 재능을 가진 선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많은 선수들은 장애와 좌절 때문에 스포츠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잃는다.

일이 힘들어질수록 선수들은 강인해진다. 일이 곤란해질수록 강인해지려면, 그때 늘 필요한 것은 힘과 컨트롤이다.

물론 때때로 자신을 의심할 수도 있고, 한순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불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스포츠에 전념하는 선수라면 보통 자신을 컨트롤하고 힘이 넘친다. 아직까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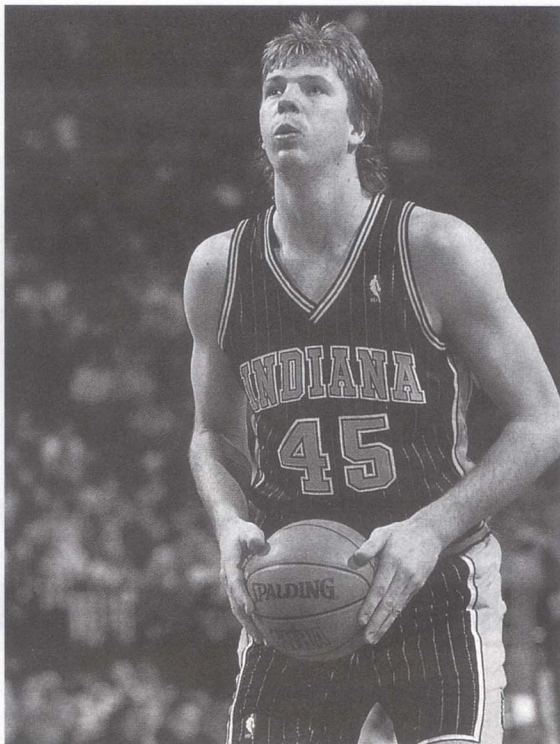
슬럼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직업 윤리를 헛되게 만들어서 자신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언행(言行)을 하게 만든다.

육체적 경기에서 무언가가 경기력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것을 극복하려는 끈기를 가지고 있었고 훈련을 해왔었다.

그러나 이 의존적인 전략이 지금은 효력이 없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슬럼프를 고쳐주지도 못하고, 실제로는 더 악화시킨다.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슬럼프에서 자유로워지려고 육체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된다.

자신의 노력이 더 힘들고 절망적으로 되어갈수록 더 빠르고 깊게 추락한다. 해결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다.

슬럼프 탈출 노력의 실패로 인해 슬럼프가 한층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단계 1에서 모두 제거했다고 가정하고) 슬럼프가 육체적인 요인, 기술적 요인, 전술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슬럼프의 원인이 육체적, 기술적, 전술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슬럼프는 평상시의 처방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평상시의 처방은 슬럼프를 해결할 강력한 방법이 못 된다.

규칙이 갑자기 바뀐 경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자신 있던 공격도 쓸모가 없다. 슬럼프의 원인이 정신적인 것일 때, 컨디션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은 효과가 없다.

스포츠 선수가 문제파악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자신의 내부를 살펴봐야 하는데도, 자신의 외부에서 슬럼프 원인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슬럼프 탈출을 위한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한다.

슬럼프 탈출을 위한 시도가 계속 실패하면 자신감이 뿌리째 흔들린다. 갈수록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감이 무너져 가기 때문에, 전에는 익숙하던 컨트롤 감(感)과 '바로 이거다'라는 감(感)이 서서히 사라져 가기 시작한다. 짜증이 서서히 나기 시작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내리막길로 미끄러져간다.

슬럼프가 길어질수록 무력해지고 절망적으로 되어간다. 이런 무력함에 자극을 주어 없애는 일은 슬럼프 탈출 2단계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자신감과 에너지를 회복하려면, 컨트롤을 상실했다는 것이 단순히 허상(虛想)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 말은 비록 경기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여전히 컨트롤 능력은 충만하다는 뜻이다.

힘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다. 경기력 문제에 중지부를 찍고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려면, 힘과 컨트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고, 이 인식을 통해 슬럼프 탈출 모델의 다른 8단계를 성공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이미 슬럼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집중력을 조절할 수 있고(단계 3),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고(단계 4), 믿음을 바꿔 성공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는 경기 성적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항상 최고의 상태일 수는 없다.

스포츠 경력이라는 길은 정상과 계곡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온갖 구멍이로 어질러져 있다. 쉬는 시간은 스포츠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자 예측 가능한 일부분이며, 최고의 선수에게조차 발생한다. 경기를 하러 나갔는데, 어떻게 해도 성적이 일률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빠른 공은 어떤 활력도 지니지 않는다. 물에 대한 느낌도 없다. 마치 탈의실에 점프suit을 두고 온 것 같다. 테니스 라켓이 죽은 물고기같이 느껴진다. 발목을 빼거나, 인대가 늘어거나, 철봉에서 떨어지거나, 다이빙대에 머리를 부딪힌다.

이와 같은 육체적, 감정적 장애와 상처는 경기의 '정상적인' 일부분이다.

이러한 시각(視覺)을 가져야만 다시 자신을 통제(컨트롤) 한다.

슬럼프의 원인이 정신적일 때 컨디션 전략은 효과없이 힘 있고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인식이져야

(단계 5),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이미지 훈련(단계 6)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슬럼프 탈출과 최성상에 이르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일이 가능하고(단계 7),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단계 8), 실수와 좌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가능하고(단계 9), 슬럼프를 예방(단계 10)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슬럼프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통제력(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어떻게 확신시킬 수 있을까? 그 반대의 증거가 넘쳐나도록 있는 상황하에서.

물론 어떤 방책을 구하기 위해 힘을 쏟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여러 달 동안 슬럼프로 고통 받았을 수도 있다. 당연히 좌절하게 되지만, 모든 것을 끝내버리기 전에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슬럼프는 공기로 감염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슬럼프의 진행과정과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사하면, 슬럼프는 대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위와 같은 힘든 시간이 슬럼프를 성장시키고 번성시키는 완벽한 환경 여건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정신이 원인이 된 대다수의 슬럼프는 성적이 저조할 때 시작된다.

예나면 나쁜 성적, 가슴 아픈 패배, 부상 등이 슬럼프를 생성시키는 씨앗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슬럼프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는 않더라도, 슬럼프가 발생할 기회를 만든다.

예를 들어보자.

연속으로 4경기에서 안타를 치는데 실패하면 좌절하게 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무력한 타격을 했다고 해서 슬럼프가 발생하지도 않고, 이미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이빙 중간에 중심을 잃고 다이빙대에 머리를 부딪힌다면, 매우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직접적으로 경기력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자유투에서 주어진 2번의 기회를 모두 실패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앞으로는 급박한 순간에 숨이 막힐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기에서 진 선수들이 어깨를 꼭 숙이고 걸어나오고 있다. 슬럼프 탈출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실패를 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 슬럼프에 빠지느냐 아니냐는 스스로에게 실패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실패한 사건들은 마치 씨앗처럼 삽질해서 물주고 가꾸지 않는 한, 제멋대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는 없다.

타자가 타순을 기다리며 긴장이 풀린 채로 안타를 치지 못한 것이 몇 번인지를 기억하는 행위는 슬럼프라는 씨앗을 가꾸는 지름길이다.

이 타자는 타자석에 발을 들여놓으며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할 것이다. “안타를 치지 못하면 어쩌지? 다시 삼진 아웃을 당하면 어쩌지? 감독이 벤치에 남아 있으라고 하면 어쩌지?”

다이빙 선수가 전에 부상을 당했던 다이빙 종목에서 경기를 해야만 할 때, 부상을 당했던 예전 기억을 더듬어 나가면서 이런 종류의 “정신 가꾸기”를 한다.

이 다이빙 선수는 과거의 기억에서 뽑아온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또 실수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똑같은 걱정이 야구 선수를 무력하게 할 수 있다. 아마도 이 야구 선수는 자신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처했다고 계속해서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에 나갔을 때, 실패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투구에 반영된다.

이처럼 행동을 앞질러가는 사고와 독백은 근육을 긴장시키고, 숨이 막히게 하고,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향한 집중력을 빼앗아, 부지불식간에 선수 스스로 계속해서 실패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슬럼프는 오직 자신의 마음에 부정적인 시각 시간을 스스로 제공할 때만 뿌리를 내리고 번성한다.

슬럼프와 싸우는 것은 지금 당장 머리 속의 일들을 정리해서 경기력을 좋은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좋은 소식이다. 왜냐면 심리 전략을 바꾸면, 슬럼프에서 빠져 나와 다시 통제력(컨트롤 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올 바른 심판의 조건

(제 20회)

심판 뿐만 아니라 선수, 코치에게도 도움되는 시리즈

긍정적 감정상태와 부정적 감정상태

부정적 감정을 즐기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이 이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획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이다.

이전에 토의된 바 대로 과도한 불안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심판 업무의 일진일퇴

심판들은 극단적으로 긴장과 불안의 느낌들에 대해 예민해진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잘 한다고 인식하거나 평가하기 보다는 게임에서 실수로 오판을 하거나 잘못된 신호를 내리게 될 때 코치, 선수들, 팬들, 혹은 미디어로부터 비판받고 욕을 먹게 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심지어 일을 완벽하게 잘 하고 있을 때라도 홈 팀에 불리한 결정적 신호를 내려야 할 때는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이 심판활동을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심판은 자신이 심판업무를 잘 보았다고 확신할 때와 가장 잘 못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감정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자기진단

심판보는 동안 감정상태를 통제하는 첫번째 단계는 자신의 내부의 감정에 대해 보다 많이 아는 것

이다.

자신의 감정 단계와 또 이 감정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심판 일을 하면서 아주 어려웠던 상황을 잘 통제하고 결정에 확신을 가지며 코치와 선수들을 잠잠

하게 했던 때를 돌이켜 보라.

그 게임을 가능한 또렷하게 그려보고 그때 당신이 무엇을 생각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라.

이제 <표 6.1>의 각각의 아이템들에 점수를 매기도록 한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다.

이 진단표의 목적은 당신의 감정상태와 심판으로서의 효율성간의 상관관계를 더 잘 조절하려는 것이다.

<표 6.1> 심리적 상태를 알아보는 체크 리스트

심판을 매우 잘 봄	1	2	3	4	5	6	7	심판을 매우 못 봄
상당히 편안한 상태	1	2	3	4	5	6	7	극도로 불안함
확신에 찬 상태	1	2	3	4	5	6	7	전혀 확신이 없음
동기부여가 됨	1	2	3	4	5	6	7	동기부여 되지 못함
완벽한 통제	1	2	3	4	5	6	7	전혀 통제 못 함
활력 넘침	1	2	3	4	5	6	7	피곤에 지침
긍정적 독백	1	2	3	4	5	6	7	부정적 독백
공정히 유쾌함	1	2	3	4	5	6	7	전혀 기쁘지 않음
집중함	1	2	3	4	5	6	7	산만함
높은 에너지	1	2	3	4	5	6	7	낮은 에너지
결단력 있음	1	2	3	4	5	6	7	결단력 부족

이 표를 자신이 가장 일을 잘했을 때 작성한 후에, 가장 잘 못했을 때도 만들어 보라.

그리고 나서 그 두 표를 서로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상태의 고, 저에 따라서 하는 일의 결과가 달라진다.

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여기서 올바른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매 게임이 끝난 후 가능한 한 빨리 이 표를 작성해 보라.

다만 이는 단지 자신의 감정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정확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이 이 표를 제대로 작성하고 활용한다면 자신의 감정상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체적 · 정신적인 불안을 조절하기

불안 조절 기술은 두 가지 접근으로 나뉜다.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신체적 접근법에서 환경적 자극(예를 들어 성난 군중이라든지)은 개인의 자극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증가된 자극은 심장박동의 증가, 근육 긴장, 호흡, 땀 분비,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신경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그 스스로를 드러낸다. 만일 심판 보는 중에 이런 경우를 경험한다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긴장을 줄이는 또 하나의 주요 전략은 정신적 접근법이다. 이 기술은 자극(성난 군중)같은 이 보통 '내가 무슨 수로 저 군중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은 부정적 생각들을 하게 되는 상황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과도한 불안을 야기한다.

불안 조절에 대한 정신적 접근에서는 어떤 상황 자체보다 불안을 만들어 내는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 - 걱정 사이클을 방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을 인식하는 당신의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제 위의 두 가지 접근에서 가장 평이하게 사용되는 기술을 알아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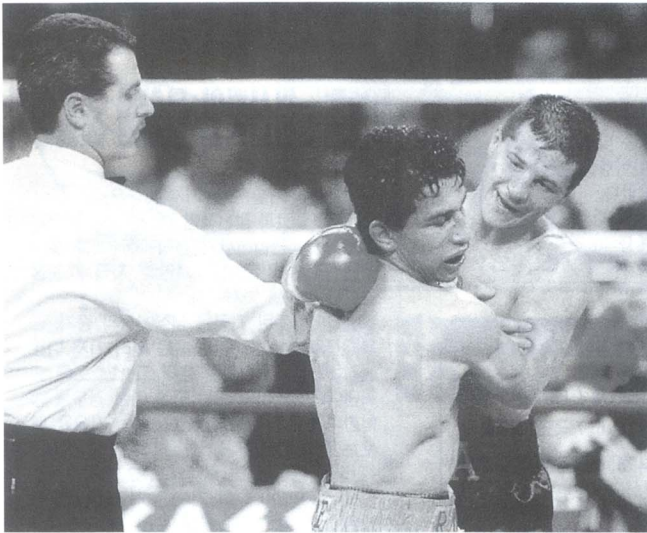
신체적 긴장 이완 기술

다양한 긴장 이완 기술들은 근육 긴장을 줄이고 과도한 불안의 증상들을 제거함으로써 불안을 축소하려고 한다.

상대적으로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호흡조절 기술이다.

호흡조절

숨쉬기는 긴장 이완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사



▲심판은 심판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과도한 긴장과 불안을 느끼기 쉽다.

실 불안과 긴장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효과적인 숨쉬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이 불안해했을 때 호흡이 어떻게 짧아지고 강해지고 불규칙해지는가를 주목하라.

하면서 당신은 평상심, 집중력, 그리고 긴장 완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 들이쉬기

코를 통해 깊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당신의 횡경막이 어떻게 아랫부분을 압박하는가에 집중하라.

위와 횡경막으로부터 숨을 쉰 후에 공기를 가득 차게 하고 중앙부와 윗가슴을 팽창시키라.

이것을 편안히, 긴장을 푼 자세로 하라.

숨을 들이쉬면서 윗를 압박하라. 이런 들

숨을 적어도 약 5초간 유지하라.

❑ 내쉬기

날숨은 매우 편안한 자세로 입을 통해 천천히 내뿜는다.

과도한 불안의 제거와 축소에는 호흡조절이 효과 평정 유지하고 확신 서면 호흡은 부드럽고 리드미컬 해져

반대로 당신이 평정을 유지하고 확신을 가질 때 당신의 호흡은 부드럽고 깊고 리드미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호흡 패턴을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심적 상태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호흡 조절 훈련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이고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한 가지 기술은 가슴이 아닌 횡경막을 기준으로 숨을 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횡경막의 낮춤(들이쉬기)과 높임(내쉬기)에 집중

이렇게 하면 팔과 어깨의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내쉬기는 적어도 7초가 걸린다.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흡 조절 작용

당신은 경기의 중간 중간에 틈이 날 때마다 호흡 조절을 할 수 있다.

들이쉬기와 내쉬기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조절하는 것은 경기전반을 통해 불안을 조절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숨쉬기에 집중함으로써 관중들의 야유나 코치, 선수들에 의한 비난 같은 것에 신경을 덜 낼 수 있는 것이다.

깊이 숨쉬기는 또한 어깨와 목 근육을 이완시키고 당신으로 하여금 행동하는데 있어 강하고 집중력 있고 준비된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당신이 피곤하고 화가 나고 긴장을 느끼고 있다면 타임아웃 동안 호흡 훈련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때 잠깐 휴식하며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경기에서 오는 압박감으로부터 정신적인 여유를 갖게 하고 남은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 된다.

진보적 이완 (근육 이완)

진보적 이완법은 93년도 Dr. Edmund Jacobson에 의해 개발되었고, 그의 기술은 현대 긴장 이완 연구의 시금석이 되어왔다.

이 진보적 긴장 이완 연구의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원칙들은 아래와 같다.

- ◆ 긴장과 이완의 차이점에 대해 배우는 것은 가능하다.
- ◆ 긴장과 이완은 상호간에 배타적이다. 이완된 상태에서 동시에 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진보적 이완은 체내에서 각각의 주요 근육들이 체계적으로 풀어지고 조여지는 것이다.
- ◆ 근육의 긴장을 줄이는 것을 통한 신체적 이완은 반대로 정신적 긴장을 줄인다.

일반적인 진보적 이완 훈련

진보적 이완은 특정 근육들을 긴장시키고 이완하



▲심판이 긴장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호흡조절이다.

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근육의 긴장 - 이완 사이클은 긴장과 긴장 부족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킨다.

이 기술에 능한 사람들은 목과 같은 특정 근육의 긴장을 막고 그 근육들을 이완할 수 있다.

이완에 대해 배우기 전에 당신의 이완을 돕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알아두어야 한다.

- ◆ 적합한 장소를 찾는다
- ◆ 조명을 흐리게 한다
- ◆ 옷의 조이는 부분을 느슨하게 한다
- ◆ 편한 자세로 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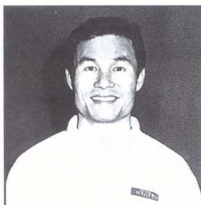
다음 호에서는 구체적인 긴장 이완 훈련법을 소개 하기로 한다.

〈다음호에 계속〉

전문가가 지도하는

태권도를 위한

시범 : 이 호 열
(태권도 공인 7단 / 국기원 심사위원)



지도 : 박영철

'76 미스터 코리아
'82, '86, '88 미스터 아시아
'88 미스터 유니버스 3위
'89 월드게임 2위
하이아트호텔 체력관리센터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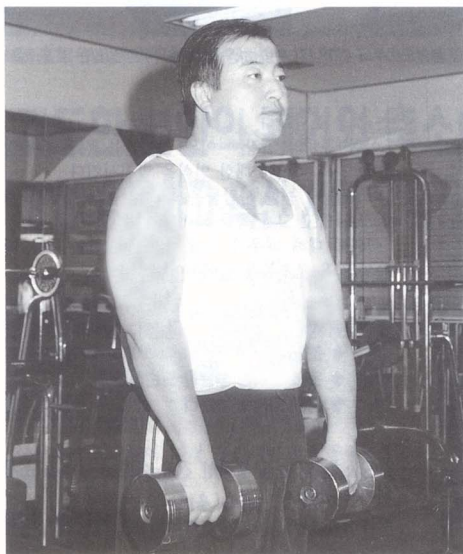
웨이트 트레이닝

덤

벨 운동은 관절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어 관절의 부담을 줄이며 신체 좌우를 균형있게 발달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덤벨 앞으로 들어 올리기

DUMBBELL FRONT RAISE



◀ **자세** ▶

- 1 어깨넓이 정도로 다리를 벌리고 선다.
- 2 두 손에 덤벨을 들고 덤벨을 잡은 두 손의 손바닥이 넓적다리를 향하도록 한다.
- 3 이때 양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양쪽 팔꿈치도 조금 구부린다.

◀ **동작** ▶

- 1 덤벨을 잡은 한쪽 팔을 앞으로 올려 머리높이 정도까지 올린다.
- 2 덤벨이 머리높이까지 왔을 때 1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원위치로 내린다.
- 3 이번에는 반대쪽 팔을 머리높이까지 천천히 들어올린다.
- 4 다시 천천히 원위치로 내린다.
- 5 위의 동작을 반복한다.

◀ **호흡** ▶

- 1 코로 숨을 들여마신 다음 덤벨을 잡은 한쪽 팔을 머리높이까지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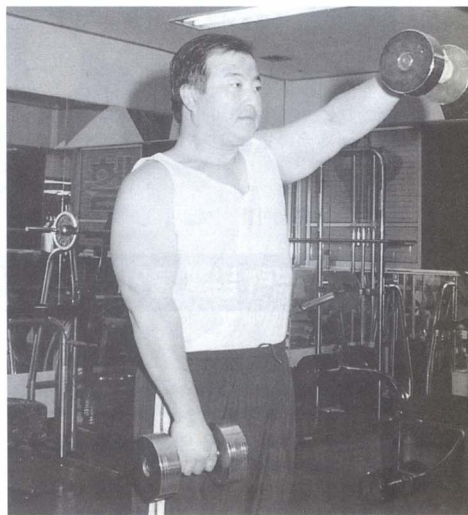
② 입으로 숨을 내쉬며 덤벨을 천천히 넓적다리 앞으로 내린다.

◀ 알맞은 무게와 반복횟수 ▶

두팔 이외에 다른 신체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한쪽 팔씩 10번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한다.

◀ 주의점 ▶

① 운동 중에는 항상 팔꿈치가 조금 구부러져 있도록 한다. 팔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실시하면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



★ 트레이닝 도올말 ★

근육에 강한 자극 주는 법

근육의 수축에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콘센트릭 콘트랙션(Concentric Contraction),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수축하는 익센트릭 콘트랙션(Eccentric Contraction), 근육의 길이가 변화하지 않고 수축하는 아이소메트릭 콘트랙션(Isometric Contraction)이 있다.

이 세가지 근육의 수축에서 가장 많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수축은 아이소메트릭 콘트랙션이며, 그 다음은 근육의 길이가 늘어지면서 수축하는 익센트릭 콘트랙션, 가장 낮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콘센트릭 콘트랙션이다.

예를 든다면, 턱걸이 운동에서 팔을 구부려 턱

을 철봉 위에 올려 놓은 동작에서 이두근의 수축이 콘센트릭 콘트랙션이며,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가만히 멈춰있는 상태가 아이소메트릭 콘트랙션이며, 구부린 팔을 펴면서 내려오는 동작에서 이두근의 움직임이 익센트릭 콘트랙션이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익센트릭 콘트랙션에서 더욱 천천히 동작을 취하면 근육에 보다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아이소메트릭 콘트랙션을 이용한 운동의 한가지가 보디빌딩에서 실시하는 포징(POSING)이다.

또한 태권도에서 실시하는 품새와 격파시 숨을 멈추고 근육에 긴장을 주는 자세도 아이소메트릭 콘트랙션이다.

② 사용하는 덤벨의 무게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팔꿈치가 지나치게 구부러져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결과가 생기며 상체를 뒤로 제치는 현상이 생겨 척추에 무리를 주게된다.

③ 팔을 머리 위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리면 앞 어깨에 오는 자극은 거의 없기 때문에 머리높이까지 들어올려야만 운동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 응용동작 ▶

① 교대로 한쪽 팔을 번갈아 올리는 대신 양쪽 팔을 동시에 올리고 내려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② 덤벨 대신에 바벨을 잡고 실시할 경우 덤벨을 잡은 두 손의 넓이를 어깨넓이 정도로 하면 적합하다.

다.

◀ 발달 근육 ▶

- 승모근
- 삼각근(전면)
- 대흉근
- 소흉근
- 전거근

◀ 발달 동작 ▶

- 어퍼컷트 동작의 강화
- 테니스의 서브동작의 파워강화
- 농구, 배구와 체조에서의 볼을 올리거나 잡아 당기는 동작의 발달

윗몸 구부려 덤벨 들어 올리기 BENT OVER DUMBBELL ROWING

◀ 자세 ▶

① 벤치 옆에 서서 한쪽 손에 덤벨을 잡고 반대쪽 무릎을 벤치 위에 구부려 올려 놓는다.

② 윗몸을 구부려 덤벨을 잡은 반대쪽 손을 벤치 위에 어깨와 수직이 되도록 놓는다.

③ 덤벨을 잡은 앞을 바닥으로 수직으로 내리고 같은 쪽의 다리 무릎을 조금 구부리도록 한다.

◀ 동작 ▶

① 덤벨을 잡은 팔의 팔꿈치를 몸 옆으로 구부리면서 덤벨을 가슴쪽으로 잡아 당긴다.

② 가슴에 거의 덤벨이 닿은 상태에서 약 1초간 멈춘 다음 서서히 덤벨을 수직으로 내려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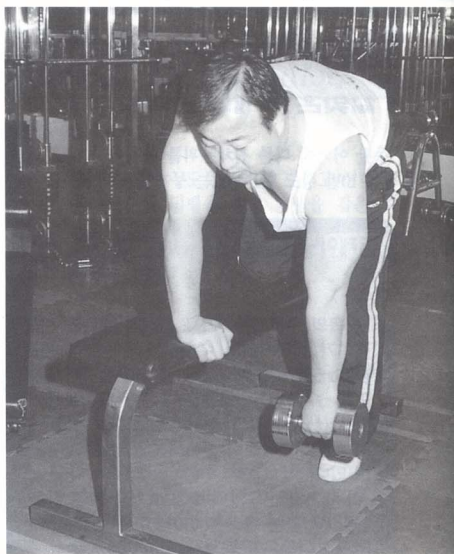
◀ 호흡 ▶

①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덤벨을 가슴쪽으로 잡아 당긴다.

② 코로 숨을 들이쉬며 덤벨을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뜨린다.

◀ 알맞은 무게와 반복횟수 ▶

운동 중 상체를 움직이지 말고 팔꿈치를 몸 바깥쪽으로 구부려 10번 내지 12번 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한다.



◀ 주의점 ▶

- ① 운동 중에 한쪽 상체가 위 아래로 너무 흔들리

지 않도록 한다. 만일 심하게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되면 등 근육보다는 허리 운동이 되기 쉽다.

② 어깨와 손은 항상 수직상태에 있어야 하며 등은 수평상태가 되어야 한다.

③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구부리면 견갑골과 어깨 뒷부분보다는 광배근 허부에 자극을 주게 된다.

◀ 응용 동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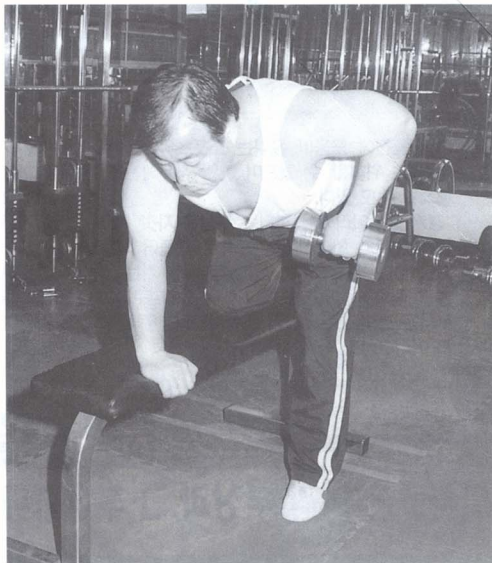
① 덤벨 대신에 바벨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견갑골과 삼각근 뒷부분을 발달시키려면 어깨넓이보다 넓게 바를 잡도록 한다.

② 짧은 시간에 같은 효과를 보려면 양손에 덤벨을 똑같이 잡고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허부를 집중적으로 발달시키려면 바벨을 손바닥이 앞으로 향하도록 바를 잡고 배 부위쪽으로 잡아 당기는 동작을 취하도록 한다.

③ 이두박근과 광배근

◀ 발달 근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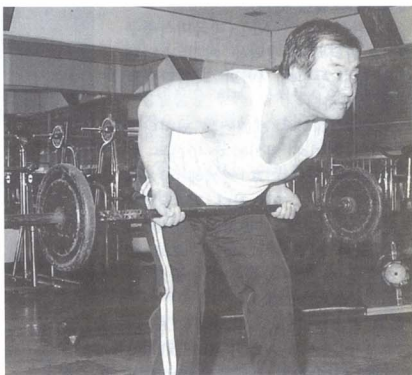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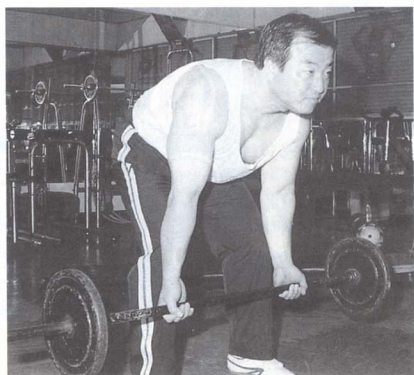
- 삼각근
- 승모근
- 능형근
- 소원근
- 대원근



◀ 발달 동작 ▶

- 클린치 동작
- 조정운동의 강화
- 양궁 동작의 강화

응용 동작



스포츠와 머리부상의 위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스포츠의 플레이가 때로 위험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경기도중 머리에 입게되는 부상은 자칫 목숨을 빼앗기도 하며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격투기는 물론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축구 등의 구기와 무서운 스피드로 달려야하는 자동차경주 등에서 머리부상을 입기가 쉽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일까? 최근 미국의 일간지 유에스에이 투데이 (USA TODAY)는 스포츠와 머리부상에 관한 특집 기사를 실었다.

돌려차기 등으로 머리에 가격이 가해지는 태권도에서도 경기로 인한 머리부상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태권도 관계자에 도움이 될까싶어 간추려본다. <박재희 옮김>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뇌진탕

의사들은 머리 부상과 그 후유증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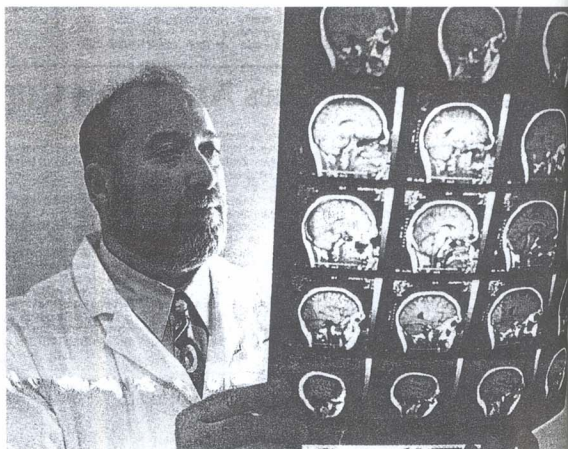
스포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머리에의 충격

당신은 여전히 몇몇 운동선수들의 "벨이 울린다."라는 엉뚱한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야 스포츠 뇌진탕과 잠재적인 아마도 잔인한 결과로 벨이 울리는데 대해 더욱 알게 됐다.

샌프란시스코의 NFL(미국미식축구 리그) 쿼터백의 경력을 가진 스티브 영은 3년 동안에 4번의 뇌진탕으로 인해 위독하다.

달라스의 데이온 샌더스는 뇌진탕으로 인해 경기에 참가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한 후 경기에 참가하여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팀 동료인 트로이 아이크맨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뇌와 편두통의 뇌검사 후에 의학적으로 깨끗한 상태임이 밝혀져 경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산 호세에 한 고등학교 미식축구 선수가 이번 시즌의 두 번째 뇌진탕에 의해 사망하였다.



▲미식축구 NFL의 뉴욕제츠와 아이스하키 NHL의 뉴욕 아일랜드스의 팀 닥터인 엘리엇 필맨이 뇌진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뇌단층 촬영 필름을 살펴 고 있다.

주로 벤치 뒤에서 토하는 것을 치료삼아 경기에 되돌아가는 암울했던 시기 이래로 치료는 발달되어왔다.

그러나 의사들은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경기에 되돌아가느냐를 분류한다.

하지만 자료는 얼마나 자주 충격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운동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가 위협에 처하는가를 나타내기에는 불완전하다. 뇌진탕에 잘 대처하는 좋은 열쇠는 단지 프로선수들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아이들도 헬멧을 쓰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할 수 있다.

복합 뇌진탕으로 인해 하키를 그만둔 NHL(미국 아이스하키 리그)의 로스앤젤러스 킹스의 매니저인 데이브 테일러는 “우리는 뇌진탕이 무엇이고 그 후 유종의 증상이 어떠한가에 대해 더욱 더 교육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아직 뇌에 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 그것은 마지막 미개척 영역이다. 의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어깨, 무릎, 그리고 신체

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 알고 있지만 뇌에 관해서는 여전히 커다란 의문부호이다.”라고 덧붙인다.

미국 신경학 아카데미에서는 뇌진탕을 “외상으로 인해 정신적 상태가 변경되어 의식의 상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있다.”고 정의한다. 간단하게, 두뇌가 흔들리는 것을 의미한다.

두통, 메스꺼움과 기억력 상실 등은 뇌진탕의 조짐이다.

시애틀의 라인 백커인 차드 브라운에게는 뇌진탕이 감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난 울음이 터졌어요. 나는 울음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나의 감정들을 많이 잃게 하는 뇌진탕이 얼마나 가혹한지 나는 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스포츠 뇌진탕을 조절하느냐에 대해 많은 지침서들이 나왔다.

1996년에 미국 신경학 아카데미에서는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기준(심한 정도에 따라 1에서 3)과 경기 복귀를 위한 지침서들을 내놓았다. “사람들은



▲비록 헬멧을 쓰고 프로텍터를 걸쳤다고는 하나 육중한 몸이 격렬한 스피드로 맞부딪치는 미식축구에서는 머리의 부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전부 다른 것들을 하고 있어요.”라고 아카데미의 의사 제이 로젠버그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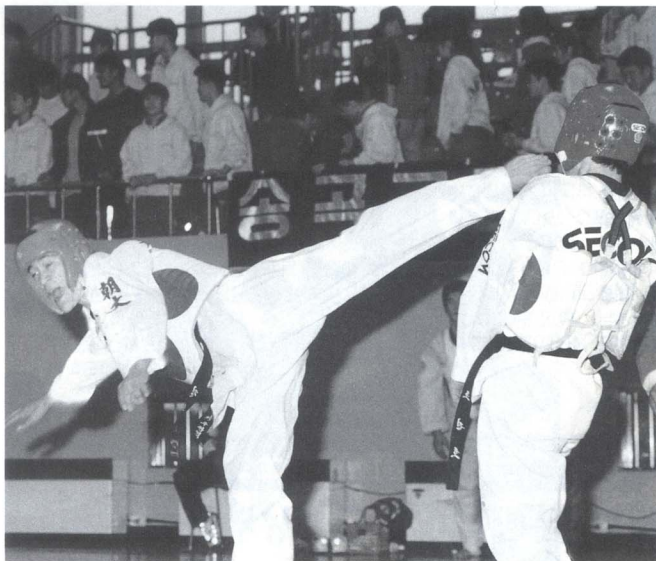
“이 지침서들은 최고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서들이 뇌진탕에 관해서 NFL 위원회에 설득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등급매기는 방법들을 함께 합쳐놓으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원래보다 더 간단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NHL의 뉴욕 아일랜드스와 NFL의 뉴욕 제츠를 위한 의사와 위원회의 회장인 엘리 오트 펠만은 말한다.

“모든 등급을 매기는 방법에서 당신은 3등급이 의식의 상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단지 두통과 다음날까지 피로를 느끼는 것은 어떠한가? 나에게 있어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의식은 상실하였지만 다음날 상쾌한 기분인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주변에 따르면, KO된 복싱선수들은 30일 또는 그



▲태권도도 발에 의한 머리의 가격에서 뇌진탕을 막기위해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있다.

이상 복싱경기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다른 스포츠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뉴욕에 위치한 로체스터 대학의 의사인 E. 제임스 스웬슨은 1994년에 스포츠 의학을 위한 미국의학협회 회원 209명을 조사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다양한 경우들에 대한 반응을 물어

펠만은 인조잔디 경기장과 자연잔디 경기장에서 충격의 비율이 크게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운동선수들은 자연잔디가 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가끔씩 그러한 그들의 직관을 믿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질병조절국제센터는 1년에 미국에서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30만의 뇌진탕이 일어난다고 어렵잡는다. 하지만 “포괄적인 자료는 없다.”고 센터의 의사 데이빗 더맨은 말한다.

“포괄적인”은 중요한 단어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자료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국에 관한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종류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미래자료의 한가지 근원이자 치료 방법으로 주의력, 기억력과 다른 두뇌 기능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1년에 30만명이 미국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에서 뇌진탕 일으켜

보았다.

예를 들어 두뇌상처의 기록이 전혀 없는 선수가 의식은 있지만 10분 동안 혼동과 기억상실증 증상을 보일 경우.

30%의 의사들은 당일 그냥 선수에게 경기를 하라고 했고, 20%는 그날은 경기를 피하도록 했으며 44%는 일주일, 1%는 한 달 동안 경기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음을 대답했다.

펠만은 NFL에서 각각의 시즌마다 180번의 뇌진탕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연맹은 하루, 일주일 또는 그 이상 끄는 뇌진탕 후 유증 증후군에 초점을 맞춘다.

신경심리학적 검사라고 부른다. 수용자들을 위한 몇 가지 검사는 간격을 두면서 단어 목록을 읽고 외우는 것이다. 다른 것들은 좀 더 복잡한데 예를 들면 숫자의 시리즈를 읽고(4-2-9-5-8-6-9) 수용자에게 낮은 숫자부터 높은 숫자까지 정한 순서를 물어본다(2-4-5-6-8-9-9).

검사는 시즌 전에 미리 기준을 마련해 두고 뇌진탕을 일으킨 뒤에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치료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대략 2/3의 NFL 팀들이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NHL은 패트 라폰테인과 같은 스타를 뇌진탕으로 잃었다.

로체스터의 스웬슨은 7개의 고등학교 미식축구 선

수의 기준을 마련해 주고 보살피고 있다.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검사들을 줄어든게 할 수 있고 결과들에 기초하여 증상들을 알고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좀 더 나은 기준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미국 신경학 아카데미에서는 4개의 도시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미식축구 선수들을 찾고 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기는 영리하게, 경기는 안전하고 열심히’라는 것에 확신을 주고 싶을 것이다.”라고 로젠버그는 말하며 아카데미 슬로건을 반복한다. 그가 말하는 열쇠는 조사이다.

“만약 당신이 자료를 얻지 못한다면, 관리자의 행동 변화는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경기가 한창 때에, 5~10분 정도 소요되는 짧은 신경심리학적 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주 달라스 경기에서 아이크맨은 인디아나폴리스에 대항하여 경기하다 머리를 맞은 후 시리즈에 참가하지 않았다. 코치인 찬 게일리는 의사들이 아이크맨은 “휘청거린” 것이지 뇌진탕은 아니라고 말했다.

두통을 겪은 뒤 아이크맨은 뇌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는 어느 부위가 붓거나 피가 나오는 심각한 뇌상처 여부를 결정짓는 데 쓰인다. 그는 경기에 나가도 좋다고 밝혀졌다.

아이크맨은 복합적인 뇌진탕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전체 뇌진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 할 수 있는 건 저는 여전히 얼마간의 두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의 심각함을 무시하려 하지는 않아요.”

데이온 샌더즈는 「포트 위스 스타 텔레그램」의 칼럼에서 의사의 지시를 반대하는 그의 결정을 알렸다. “나는 오로지 팀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어머니는 울었고 나의 아내와 아이들은 아픈 것을 걱정했어요.”

NFL의 전 러닝백이고 지금 ESPN(미국의 스포츠 전문 TV) 분석자인 메릴 호기는 뇌진탕 후유증 중 후군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1994년에 시카고 베어스와 시범경기 중 그는 뇌진탕을 경험하였다. 그는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주마다 경기를 치렀다. 시즌의 5개 게임동안 다른 뇌진탕이 그의 선수생명을 끊어 버렸다. 그 뒤 몇 개월 동안 그는 차를 운전할 수가 없었다. 그는 걷다 길을 잃어버렸다. “내가 정말 다시 좋아지기까지 분명히 2년이나 걸렸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만약에 첫 번째 뇌진탕 후에 신경심리학적 검사를 받았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전 베어스 담당 의사의 부당한 치료를 제소하였다.

“만약 당신이 나를 앉혀놓고 나에게 나의 선수경력 끝낼 수 있는 100가지 목록을 물어본다면 나는 결코 뇌진탕에 관한 것은 쓰지 않는다.”고 호기는 말한다.

“지금 내 생각에 사람들은 심각함을 매우 의식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축구에서 머리로 공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조사

머리 강타를 「비밀상처」라 부르는 까닭

과연 축구의 헤딩은 머리에 위험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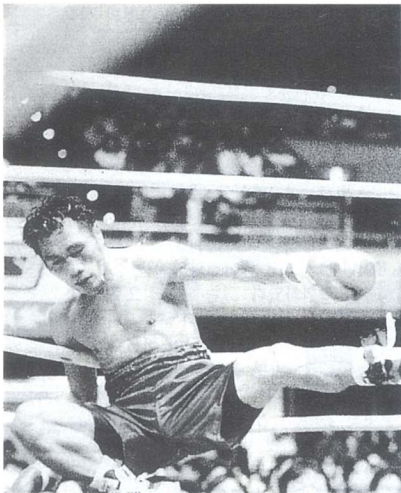
지난 달 은퇴한 플로리다 대학의 여자 축구 스타인 에린 길하르트는 헤딩공이 그녀의 머리를 손상시켰는지가 걱정이다. 길하르트의 시야가 흐려지고 기억력 착오도 고통이 시작된 것은 작년부터이다.

UCLA(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러스 캠퍼스)와의 경기 후 증상이 나타났을 때, 미국 선발팀 수비수인 그녀는 경기장을 떠나 선수생활을 1년반 앞당겨 마감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을 말하지 않고 나는 헤딩

을 계속했다.”며 “남자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 내게도 일어났어요. 어떻게 할 수 없고 단지 겁이 났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길하르트는 여전히 게이터즈와 연습하지만 머리로 공을 받지는 않는다. 그녀는 그녀 자신도 비록 확실하지 않지만 헤딩이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믿는다. 그녀의 결정은 비록 드물긴 하나 축구세계에서 동향이고 이곳저곳에서 두뇌 강타는 뇌진탕과 정신적 기능의 감소를 일으킨다는 증거가 늘어



▲아미추어와 달리 구경거리인 프로복싱에서는 헤드기어를 쓰지않고 경기를 펼친다. 그러나 한번 KO 당하면 30일 또는 그 이상 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미국은 주법(州法)으로 규제하고 있다.

나고 있다.

2년에 걸친 연구에서 정형외과 의사이고 미시건주엔 아버에 있는 예방스포츠의학연구소 책임자인 데이빗 젠다는 11살부터 14살인 57명의 축구선수들을 조사했더니 거의 반 가량이 뇌진탕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한 증상들은 - 시

야가 흐려지거나 돌로 보이는 현상, 두통, 귀울림, 메스꺼움 - 가장 자주 공을 머리로 받는 아이들에게서 자주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9월에 미국의학협회지에서 비슷한 결론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네덜란드의 연구원들은 33세의 아미추어 축구 선수들의 두뇌 기능들과 27세 중반의 육상선수들과 수영선수들을 비교검사하였다.

대부분의 검사는 축구선수들 가운데 기억력과 계획수행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아미추어 축구의 참여는 기억력과 계획력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사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젠다는 축구에서 머리 강타를 「비밀상처」로 부른다. 왜냐하면 뼈의 부서짐이 없고 피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문제 의식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지만 헤딩은 절대 폐지할 수 없는 축구의 필수 기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헤딩을 폐지하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전통주의자들을 흥분시키고 화나게 할 것이다.”라고 젠다는 말한다.

이것은 뜨거운 화제이다. 결국 축구는 비폭력적인 대안, 좋고 깨끗하고 건강에 좋은 운동을 위한 어버이다운 마음을 가진 종목으로 특성지어져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이번 여름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한 U. S 여자국제축구팀에 의해 예증되었고 더 나아가서 수준높은 경기는 소녀들의 흥미를 끈다.

1998년에 18세 미만인 1천 3백 80만을 포함하여 전체 1천 8백 20만 미국인들이 축구를 했다.

MINI BOX

청소년의 건강과 죽음에 관한 의문들이 부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산 호세 고등학교 미식축구 선수의 죽음 한달 뒤에, 관계자들은 머리상처를 입고 난 후 소년인 경기했을 때 모든 문제들은 정당하게 처리됐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15세인 조셉 바라야스는 두뇌외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후 10월 19일 사망하였다.

3월전 1년생 라인백가드인 바라야스는 충돌에 의해 사이드라인에 무너졌다. 바라야스는 4주전에도 뇌진탕을 겪었다.

“이건 정말 슬픈 사고예요.”라고 산 호세 통합 학교의 대변인 모린 데이빗슨은 말했다.

데이빗슨이 말하길 내부의 재조사는 모든 부분들이 정확하게 행해졌으며 바라야스가 다시 경기를

해도 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바라야스의 가족과 코치들은 사고 이래로 아무말 하지 않고 있다.

쿼터백의 명성을 가진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즈의 스티브 영의 미래에 관한 지역적 논쟁이 있을 때 그는 사망하였다.

38세인 영은 3년만에 4번의 뇌진탕으로 인해 지난 4경기 동안의 대기 선수 후 은퇴를 심사숙고하고 있다.

지난 주 영은 바라야스의 죽음에 대해 “단지 나 자신 뿐만이 아니라 팀 구성원 모두가 염속해졌다.”고 말했다.



▲축구의 헤딩은 뇌진탕과 그 후유증의 원인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금, 축구를 하는 아이의 부모들은 지역뉴스에서 굉장히 곤란한 일을 듣고 - 왜 축구가 당신들 아이들에게 위험한가! - 헬멧과 보호용 헤어밴드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나는 그것에 관한 2가지 정도의 기사와 의견들을 읽었는데 지나친 것이었다.”고 루이즈빌 청소년팀 매니저인 테브라 로버트슨이 「더 큐리어 저널」에 밝혔다.

한번의 뇌진탕, 부러졌던 턱뼈, 2번 깨맨 머리. 뇌진탕은 지난 해 월드컵 전 연습에서 그로 하여금 헤딩을 못하게 하였다.

“수많은 위험한 일들이 축구에서 일어나지만 만약 내가 올바르게 머리를 쓴다면 난 괜찮을 것이다.”라고 맥 브라이드는 말한다. “당신은 선수들의 팔꿈치와 머리를 조심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조사에서 축구선수들은 한 게임당 평

미국에서만 1천 8백만 이상이 축구에 참가

“우리는 ‘약간의 뇌세포들이 간다’는 농담을 한다.”고 6살인 브랜던과 10살인 제이미의 어머니이자 클라크스빌의 의사인 오드리 에스트레인은 말한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헤딩도 많이 하지 않고 많은 영향도 받지 않아요.”

머리로 공을 다루는 뛰어난 그의 능력으로 콜롬버스 크루의 포워드인 브라이언 맥 브라이드는 미국 대표팀의 정규 스트라이커가 됐다.

맥 브라이드 역시 머리와 얼굴에 위험을 가진 선수들의 대표이다.

그는 머리 부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균 85번 정도 공을 헤딩하였다. 무게 14온스인 축구공은 전형적으로 50에서 80mph의 속도에 이른다.

미시건 대학 운동학 교수인 존 파우엘은 헤딩이 뇌진탕을 일으키는지 아닌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올라가서 헤딩했을 때의 충격이 뇌진탕의 자동적 이유라고 지나칠 정도로 간단하게 말한다.”

그는 연구에서 보여주는 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의 대부분 뇌진탕은 선수들이 서로 충돌했을 때나 헤딩하다가 떨어졌을 때 일어난다고 인용한다. 그는

연구들이 제시하는 축구로 인한 상처들의 오직 4%만이 뇌진탕이라고 말한다. "발생률이 낮다."고 말하는 그는 특히 미식축구와 비교해서 그렇다고 한다. 축구 관계자들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경기가 두뇌에 관해 장기적으로 맹렬하게 비난받아 특징지어 지길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진정한 연구를 위해 16세의 나이에서 시작하여 50명의 남자와 50명의 여자 축구선수들과 50명의 육상선수들, 50명의 수영선수들이 필요하다."고 미국축구연맹의 의학관리자인 휴이 오말리는 말한다. "우리는 좀더 정확한 대답들을 얻어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젠다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그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코치

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귀울림, 메스꺼움이나 두통에 관해 지적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헤딩은 연습시에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연습시 공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다.

그는 그 방법으로 비치 공을 추천한다. 젠다는 헤드거의 경우 명확한 정도로 충격을 줄이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가장 과감한 조처는 에린 길하르트의 말대로 헤딩을 그만 두거나 극도로 몰아가면 경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내 생각에 내 가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덜은 것 같다."고 축구 대신 테니스와 수영을 하는 길하르트는 말했다.

입보호대 역시 턱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

NFL 미식축구 선수들은 좀더 가벼운 헬멧을 쓰려고 한다



▲태권도가 일본의 가라데, 중국의 쿵푸, 태국의 무에타이 등을 앞지르고 비교적 짧은 시일안에 세계화를 이룩하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선수의 안전보호를 위해 헤드기어 등의 보호용구 착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4명의 선수들은 목요일에 있는 연습에 처음으로 새롭고, 가벼운 헬멧을 썼다. 헬멧을 쓰도록 권유받았던 쿼터백 트로이 아이크

맨은 새로운 헬멧에 코치와 쿼터백 사이의 의사전달체계의 위치가 정해지기 전까지 헬멧을 쓰지 못했다.

다린 왓슨이 말하길 그는 새 헬멧을 좋아하며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있을 월요일의 경기에서 그 헬멧을 쓰고 싶다고 한다. 다른 선수들은 분명히 경기에서 헬멧을 사용하기 2주 전에 착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카우보이스의 운동용품 매니저인 마이크 맥코드는 말한다.

마이애미 돌핀스는 NFL팀에서 유일하게 선수들이 이미 새 헬멧을 쓰고있다고 제조회사 홍보담당인 에드 크리스맨은 말한다.

그가 말하길 디자이너들은 1년 동안 생산품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하고 산업기준에 틀림없이 맞도록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다고 했다.

제조회사인 마이크에서는 새로운 헬멧들이 뇌진탕을 막아주는 보호기능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새 헬멧이 뇌진탕을 막아준다는 어떠한 연구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마이크의 스포츠 의학 분과의 제조 관리자인 크리스맨은 말한다.

그러나 증명의 여부를 떠나, 보호를 증가시키기 위한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몇몇 선수들은 헬멧을 쓰길 원한다.

가벼운 헬멧들은 선수들이 만약 피곤해질 때까지 경기에서 머리를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을 늦추어 준다는 이론이다. 표준 헬멧들의 무게는 4.5에서 5파



▲ 딱딱한 얼음판 위에서 격돌하는 아이스하키도 선수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비를 착용토록 하고 있다.

운드이다. 바이크의 새 헬멧 「프로 에디션」의 무게는 대략 3.5파운드이다.

“나는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인 NFL수준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것은 청소년 수준에서 더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맥코드는 말한다.

크리스맨은 헬멧은 9월에 소개되었고 8월까지의 넓게 이용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선수들에게 그들이 편하기 때문에 헬멧을 원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크리스맨은 말한다. “우리는 뇌진탕에 관해서 주장하지 않아요.”

펜실바니아주 에리의 프로텍티브 스포츠웨어는 프로캡이라는 헬멧이 뇌진탕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한다.

이 프로캡은 종전의 표준적인 딱딱한 헬멧보다 앞선 나일론의 보호적 패딩이 붙여져 있다. 6명 정도의 NFL선수들은 10년 넘게 이 캡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프로텍티브 스포츠웨어의 매니저인 스파키 고틀은 말한다. “스티브 영은 반드시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며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 생각에 모든 선수들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고틀은 말한다.

프로 캡을 디자인한 버트 스트라우스는 표준 헬멧

은 마치 바깥쪽은 딱딱하고 안쪽은 부드러운 M&M(알갱이 초콜레이트) 같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프로캡은 부드러운 소재 딱딱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 방식이어서 충돌로부터 오는 충격을 어느 정도를 완화시킨다고 한다.

고튼은 대략 만개 정도의 프로 캡들이 본토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빌스에 소속했던 맥스 켈소는 프로 캡을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썼다.

그는 그것이 없었다면 더 일찍 은퇴했을 것이라고 한다. “선수들은 그것을 쓰면 겉모습이 멋있지 않기 때문에 싫어한다. 내가 그것을 썼을 때에도 나 또한 멋있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의 선수생명을 지켜주었다.”

돌핀팀의 운동용품 매니저인 토니 에구스는 선수들은 뇌진탕 방지에서 가장 중요한 용품인 입보호대를 착용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입보호대는 치아를 보호하는 것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또한 턱에 가해지는 충격의 영향을 흡수한다.

“내 인생에서 어떠한 헬멧도 뇌진탕을 제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뇌진탕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단계들을 밟아갈 길 원한다.”고 에구스는 말한다.

부산광역시협회

제 19회 부산광역시장기타기 단체대항대회 개최

부산협회는 지난 11월 5일과 6일 양일간 구덕체육관에서 부산광역시장기타기 단체대항전을 각 부 34개 팀과 대회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일반부에 처녀 출전한 부산지방경찰청이 명문 팀을 제치고 우승을 일취신예의 돌풍을 일으켰다.



▲각 팀간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시장기단체대항 경기 모습.

<단체전 결과>

- ▲남일부 부산지방경찰청 - 박성훈 김두훈 조영훈 은희재 남규영 김동현 정희상
- ▲여고부 성심여상 - 전정현 남은영 전승주 신현정 김혜진 김지영 김수희
- ▲남고부 개금고 - 하명중 강동우 황원영 김동석 김길태 임대규 소명식
- ▲여중부 동여중 - 하정연 이미지 임주영 정미화 서혜빈 김민정 진송주
- ▲남중부 반여중 - 금명환 김방식 정병석 이유환 권지운 정성민 김길중
- ▲여초부 청룡초 - 김민영 조인현 김선실 박민경 김민정 김민희 장지은
- ▲남초부 서감초 - 강효창 최득영 정덕환 조영호 안재성 조용관 박지근

도장활성화 지도자 세미나



▲도장활성화세미나에서 이근우 회장대행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자유총연맹회관 대강당에서 (주)한국태권도권설팅(키즈태권도) 주관으로 도장활성화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목표관리 및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150여명의 태권도지도자가 참가한 가운데 시종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21세기에 걸맞은 태권도장으로써 당당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제 5회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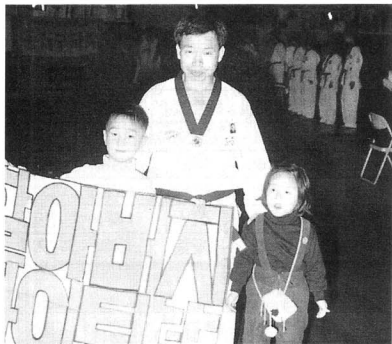
부산협회는 지난 11월 14일 총응심자 2천 9백 여명과 태권도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 5회 승품·단 심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소년체전 각 11체급 대표 참가

여중부 정식종목 채택

대한체육회는 오는 5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 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태권도 여자중등부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가경제의 위기로 각 부별 7체급씩 시도대표 참가를 허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다시 남녀 초등부, 중등부 모두 11체급씩 시도 대표를 출전시키기로 했다.



▲응원하는 손자, 손녀와 함께 한 이천락 씨.

개회식에서 이근우 회장 직무대행은 대회를 통해 2000년도는 우리 곁에서 전국체전이 열릴 뿐 아니라 소년체전 및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등이 연이어 개최되는 막중한 시기인만큼 우리의 국기를 지키고 보전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태권도인 모두가 끊임없는 성원과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이번 심사대회에는 장년층의 응심자들이 다수 참가해 눈길을 끌었는데 그중에서 1단에 응심한 대학체육관 소속 이천락(57세) 씨는 젊은이 못지않게 그동안 수련해온 자신의 기량을 혼신을 다해 진지한 모습으로 보여줘 보는 이로 하여금 진한 감동을 느끼게 하였다.

〈손효준 리포터〉

광주광역시협회

생활체육 태권도 강습회 개최



▲김정록 협회장이 태권도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 축제기간을 맞이하여 태권도협의회(회장 김정록 관장)는 일선 태권도 관장, 사범들을 대상으로 품새 및 심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160여명의 교육생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강습회에는 국기원 기술심의회 김병운 의장과 조선대학교 체육학과 원영두 교수가 강사로 나와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새천년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며 다 함께 태권도 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품새보수교육 강사로는 김정록 관장(체육관협의회장), 윤관석 관장(협회 부회장·광주기술심의회 의장), 임세빈 관장(광주경기분과위원장)이 활약했으며 심판보수교육에는 이영석 관장(광주심판위원장)이 심판 수신호와 경기규칙에 대한 실기 및 이

광신여성체육진흥재단, 태권도 장학생 19명 선정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태권도선수 19명이 재단법인 광신여성체육진흥재단(이사장 김진호)으로부터 꿈나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광신여성체육진흥재단은 지난해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선수 60명을 선발해 장학증서와 함께 2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태권도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태권도 장학생 명단 : 신여진(제주함덕중), 진미화(제주아라중), 정윤주(대원여중), 최정애(중화중), 송윤희(경성여실고), 윤성희(리라공고), 김진란(만수여중), 박지연(상무중), 김보미(대전체고), 고수진(울산서여상), 이해연(수원정보산업공고), 김민애(고양중고), 민봉녀(충남체고), 서영아(조치원여중), 한효진(함덕중), 정경자(분리여중), 강지나(영광고), 황하순(경남체고), 이인혜(경성여실고)

론을 강의했다.

제 2회 광주체육관협의회장기 개최

광주태권도협회는 99년도 마지막 대회인 소년체전 평가전을 겸하여 광주시체육관협의회장기타기 태권도대회를 11월 6일, 7일 이틀 동안 400여명의 초·중·고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구동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초등부 고학년 입상팀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왼쪽으로부터 김정록 협의회장, 한길진 협회장, 윤판석 부회장.

소년체전 평가전을 동시에 실시한 관계로 초등부 6학년들은 동의를 첨부하여 중등부에 포함하여 출전하였다.

특히 상무중학교에 진학하기로 확정된 문재영, 이창민, 김성모, 김홍 등 6학년 선수들은 선배들이 중학교 선수들을 1, 2차 예선에서 차례로 꺾고 입상하는 저력을 발휘하였고, 소년체전 초등부 금메달리스트였던 금호초교 김성모는 결승에 진출하여 문성중학교 하상범과 치열한 접전을 벌여 아쉽게 1점 차로 2위에 그쳤지만 이들의 투혼은 앞으로 중등부 전력에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초등부에서는 각 학교별로 전력이 비슷하여 결승전까지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는데 고학년부에서는 운천초교(이건동 지도)가 금메달은 1개도 없었지만 종합점수제인 관계로 5명이 고루 입상하여 2위를 차지한 학운초교를 간발의 차이로 제치고 종합우승을 확정지었다. 한편 중, 고등부에서는 예상대로 전력이 탄탄한 문성중·고등학교가 타학교의 추격

을 뿌리치고 연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각부별 단체성적과 부별 우승자

<단체성적>

	초등부(저학년)	초등부(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종합우승	미산초	운천초	문성중	문성고
2위	정암초	학운초	상무중	체육고
3위	운천초	백운초	고려중	고려고
최우수선수	윤성목	조준성	나대철	정재운
지도상	이석삼	이건동	장부식	김지운

<부별 우승자>

	초등부(저학년)	초등부(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핀	최영복(해남)	김민기(송우)	장성공(문성)	강은성(체육)
플라이	강기백(금호)	곽열매(학운)	하상범(문성)	이준근(문성)
밴텀	김정선(정암)	정호일(오치)	박성민(상무)	정용현(문성)
페더	주호성(오치)	강동환(금호)	김은득(문성)	서재원(고려)
라이트	김재홍(백운)	안준영(경양)	이중운(문성)	최환우(문성)
L 웰터	-	배진희(운산)	정우진(고려)	-
웰터	최 욱(학운)	최명희(백운)	나대철(문성)	최우성(고려)
L 미들	-	장세영(경양)	김형민(문성)	-
미들	윤성목(미산)	허왕건(삼각)	박 혁(상무)	정재운(문성)
L 헤비	-	유정열(송우)	강영구(고려)	-
헤비	허정욱(오치)	모성환(신월)	박 철(경양)	정경선(고려)

<이병도 리포터>

대구광역시협회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대비 평가전 개최

대구광역시협회는 지난 99년 11월 17일 대구체육관에서 제 20회 전국소년체전 및 제 81회 전국체전 대비 평가대회를 개최했다. 뛰어난 기량으로 부별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다음과 같다.

▲남초부 박준형(화원초), 최민철(북부초), 윤성학(신서초), 양원희(구암초), 박준규(아양초), 이준호(화원초), 김무상(아양초), 이정규(해서초), 송지웅(화원초), 송창근(신성초), 김현규(아양초) ▲남중부 김동현(와룡중), 박재웅(와룡중), 김도균(와룡중), 양준현(칠곡중), 김연성(신암중), 이성수(신암중), 성우현(와룡중), 권진한(다사중), 노영근(분리중), 박지만(분리중), 송준영(칠곡중) ▲여중부 최

유진, 신덕화, 노현아, 이은화, 배진영, 박수연, 김유정, 김미정(이상 본리여중), 김은주(불로중), 장주은(신당여중), 권진주(신당여중) ▲**남고부** 김기현(강북고), 권순봉, 박찬우, 김상기(이상 경상공고), 강용길(협성고), 이현수, 김우수, 김민석(이상 경상공고) ▲**여고부** 김지혜(구남경영정보고), 임고은(영송여고), 김예선(영송여고), 안효진, 장인영, 정경자, 변윤정, 정명진(이상 구남경영정보고)

<양경덕 리포터>

<도지사기대회(단체 성적)>

	1위	2위	3위	감투상
시·군명	나주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체급별 우승자 명단>

김동근(광양시) 서석준(순천시) 박형선(광영시) 강정철(순천시) 양동호(순천시) 전봉준(나주시) 김승현(보성군) 윤성현(광양시) <홍명숙 리포터>

충청북도협회

「태권도 운동처방 상담실」 설치

충청대학부설 충북도민체력센터(소장 오노균 교수)가 첨단장비를 이용해 태권도 지도자 및 수련생을 대상으로 기초체력테스트 및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있다.

이 「태권도 운동처방 상담실」은 중부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며 태릉선수촌에서 국가대표들이 실시하고 있는 기자재들을 문화관광부가 특별 지원하여 개설된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의 태권도장에서는 정확한 통계나 기기에 의하여 태권도수련을 실시하기보다는 지도

전라남도협회

제 16회 회장기 및 제 20회 도지사기 개최

전남협회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전남태권도훈련장에서 초등부 단체 4팀 개인 97명, 남중부 단체 10팀 개인 66명, 여중부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초·중학교대항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4개 시군이 참가한 가운데 제 20회 도지사기 시군대학 태권도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회장기대회 단체 입상팀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회장기대회 (단체 성적) >

	1위	2위	3위	감투상	장려상
초등부	부영초	무선초	동산초	광영초	
중등부	여수중	이수중	법성중	동광양중	수북중/화천중

<부별우승자 명단>

▲**초등부** 서민영(법성포초), 박대은(광영초), 이종현(동산초), 신동욱(부영초), 이기윤(부영초), 이동훈(법성포초), 최석현(동산초), 강성룡(부영초), 신대수(부영초), 유희(부영초), 허준영(연향초) ▲**중등부** 김병국(이수중), 신웅(이수중), 김현민(이수중), 박을성(법성중), 전호철(법성중), 김형진(이수중), 조명훈(이수중), 구덕민(여수중), 이희철(여수중), 채순철(여천중), 강병길(동광양중) ▲**여중부** 김나희(금일중), 김진주(황산중), 채소라(남산중), 박미선(남산중), 마성심(황산중), 이은주(동광양중), 문나래(법성중), 최상아(동광양중), 주미연(동광양중), 김다람(황산중), 허안라(황산중)

세계태권도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태권도학회(회장 진중의)는 지난해 12월 10일 평택 북부여성회관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새천년을 위한 세계적인 태권도전당 건립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엄삼탁 생활체육협의회회장은 태권도전당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 주제강연을 했고, 이승훈 경문대 교수는 태권도전당 건립의 추진 및 운영방안, 성낙준 호서대 교수는 태권도전당의 주요기능 및 시설, 김무연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태권도 전당 건립의 다기능적 설계 및 시공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세열 경문대 교수와 양진방 용인대 교수, 전익기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경명 충청대 교수 안용규 한체대 교수, 오노균 충청대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나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자의 경험에 의해 지도해왔는데 이제는 정확한 첨단장비에 의해 태권도수련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동처방을 통해 주운동 및 보강운동의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개인의 건강상태, 체력수준, 운동환경의 분석과 함께 태권도 특성에 알맞은 과학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의학검사, 체력검사, 운동처방을 제공받는다.

각시도 협회에 등록된 체육관의 수련생은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며 측정결과를 30분 이내에 정확한 수치와 그림 등으로 누구나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단체인 경우 예약만 하면 도, 일요일도 태권도 운동처방이 가능하다.

충청남도협회

제 17회 도지사기 시군 대회 부여군 종합 우승

충청남도 태권도협회와 충청남도가 주최한 제 17회 충청남도지사기타기 시군 대회 태권도 대회가 지난 11월 26일~28일까지 3일간 백제 문화를 꽃피웠던 사비성 금성사 자락(부여청소년수련원)에서 부여군 태권도협회(회장 안음식)의 주관으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개회식에는 이종승 대회장을 비롯 심대평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수진 정무부지사와, 유병돈 군수, 김학원 국회의원 등 각급 기관 단체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식전 행사 시범에는 충남협회 경연분과위원장 정형돈(금산비룡도장관장)의 10명이 창작 품새, 종합격파, 선권체조를 선보여 참가한 선수 및 관중들의 많은 환호를 받았다.

식전행사에 이어 개회식에서 충남 태권도 발전에 공이 많은 조정연 기술심의회 부의장(서천체육관장)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고 박문식 경기위원장(웅비체육관장)은 대한태권도협회장 공로패를, 임용식 부여군협회장은 충남 태권도협회장 감사패를, 임화빈(부여체육관장)은 김학원 국회의원 감사패를 각각 수상 받았다. 이어서 유병돈 부여군수의 환영사와 충남협회 이종승 회장의 대회사, 김수진 정무부지사의 치사, 김학원 국회의원의 축사, 부여군협회장의 인사 말씀이 이어졌다.

한편 경기장에는 백제중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태재부시 태재부 서부중학교 교장과 학부형 대표가 태권도 경기장을 방문, 선수단에게 환영을 받았다. 초등부는 총 300명이 출전 열띤 경쟁을 벌인 결과 김경렬 코치가 이끄는 청파초등학교가 금 4. 은 1을 획득 초등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충남협회 임원들.

김세혁 삼성 에스원 감독 <겨루기 지도법> 비디오 출시



김세혁 삼성에스원 감독이 도장 지도자들을 위한 겨루기 지도 프로그램 비디오를 출시했다.
겨루기지도와 관련해 최초로 출시된 <김세혁의 겨루

기 지도법>은 총 3권으로 비디오 영상 제작사인 에스콤에서 제작되어 발차기의 기초부터 다양한 연결 발차기의 지도체계 및 지도법, 전술동작 지도 프로그램, 다양한 발차기 보조도구를 활용한 지도 프로그램, 안전하고 흥미있는 단계적 겨루기 지도모형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겨루기 지도법을 비디오로 펴낸 김세혁 감독은 '88 서울올림픽 태권도대표팀 코치, 제 7회 세계선수권대회 한국대표팀 코치 등을 역임하며 한국대표팀을 종합우승으로 이끌며 탁월한 지도능력을 과시한 바 있으며 현재 실업팀인 삼성에스원 태권도단 감독으로 김재경, 정명숙, 김병목, 문대성, 심혜영, 이선희, 고대휴 등 많은 전, 현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중등부 경기는 163명이 출전하여 남학현 코치가 이끄는 서산중학교가 3체급을 석권 서천중학교를 따돌리고 금 3, 은 3, 동 1을 획득 우승을 차지했다.

여중부는 79명이 출전하여 부여 백제중학교가 우승컵을 안았으며 조치원여중의 사영주는 지난 전국소체 우승자답게 대회 2연패를 달성하였다. 또한 고등부 경기는 115명이 출전한 가운데 천안 농고가 일반부 경기는 당진 신성대학이 여자부 경기는 공주시가 각각 우승컵을 안았다.

대회 우수지도자상은 서산중학교를 우승으로 이끈 남학현 코치가 받았다. 최우수 선수상은 백제중학교 장두환선수가, 우수 선수상은 고은철, 신성대 선수가 각각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단체성적> 1위 부여군 2위 공주시
3위 당진군 장려상 서산시

<부별순위 >

▲초등부 1위 보령시(청파초), 2위 서산시(세일체), 3위 부여군 ▲중등부 1위 서산시, 2위 서천군(서천중), 3위 부여군 ▲여중부 1위 부여군, 2위 연기군(조치원여중), 3위 서산원림체육관 ▲고등부 1위 천안시(천안농고), 2위 공주시, 3위 당진군 ▲여자부 1위 공주시, 2위 천안시(천안농고), 3위 당진군 ▲일반부 1위 당진군(신성대), 2위 보령시, 3위 금산군(비룡체) <김영근 리포터>

경상북도협회

'99 경북우수선수선발대회 개최

99년도 경북우수선수선발대회가 지난해 11월 6일 영천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233명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됐다.

경북태권도협회 강석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 8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5개로 중위권으로 도약한데 대하여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체급 정상에 오른 선수 중 윤희중(청림초), 송동원(영천중), 임용식(고령실고), 김희진(홍해중), 박재향(경북체고)은 부별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부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초등부 전현범(고령) 지성월(고령) 윤희중(청림) 김준영(영남) 김재형(광평) 이재강(동부) 이창선(청림) 장민현(광평) 이성진(고령) 박준영(청림)

김중일(동부) ▲남중부 정대석(고령) 김현근(고령) 최형규(경북체) 최원형(고령) 최병주(영신) 윤수만(경북체) 신동현(영천) 한순훈(형곡) 서용국(형남) 홍만기(경덕) 송동원(영천) ▲남일부 김세효 임용식 이진욱(이상 고령실고) 홍성준 정문교(이상 영신고) 권도형 이형주 최지철(이상 영천고) ▲여중부 최명진(경북체) 신명숙(안동여) 김주희 김희진(이상 홍해) 박미영 민수경(경북체) 김보리 손은희(이상 홍해) ▲여일반부 이아람(고령실고) 서혜주 박주희(이상 홍해공고) 김도영 이희정 박재향(이상 경북체고)

경북대표선수 박세진, 김현용 은퇴식



▲김현용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축하 속에 은퇴식을 가졌다.

박세진은 제 3회 월드컵, 제 9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제 11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라이트급 세계 최강자의 자리를 지켜왔고 김현용은 제 11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제 12회 아시아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강석호 회장은 은퇴하는 두 선수에게 공로패와 수금 행운의 열쇠와 꽃꽂이를 증정했다.

전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중중국의 위용을 떨친 박세진, 김현용은 앞으로 미국유학을 갈 예정으로 뉴욕 맨하튼 현지에서 태권도장을 경영하며 지도자가 되기 위해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리포터>



▲박세진



독서 페이지

소식과 작품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태권도에 관해 겪은 이야기,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본지에 대한 희망이나 건의 등 무엇이든 좋으니 보내주십시오.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등은 들러드릴 수가 없으니 필요하신 분은 복사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 ◆보내실 곳 :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2 (편의시설 A-3동) 「월간 태권도」 편집실
- ◆전화 : 420-4568
- ◆팩스 : 420-4274
- ◆이메일 : DKY@KOREATAEKWONDO.ORG

PC 태권도

다음은 대한태권도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KOREATAEKWONDO.ORG) 자유토론장과 방명록, E-mail에 올라온 글입니다.

문 단중 재발급 됩니까? 이 훈 주

단중 재발급 문제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 단을 땀는데 단중을 분실했습니다.

단중 번호나 정확한 심사일자를 모르는데 재발급이 됩니까?

단중 발급 날짜는 98년 초입니다.

답 조회 및 발급은 국기원 전산실로

단중을 분실하셔서 재발급을 받고자 하실 때는 국기원 전산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중 번호나 심사일자를 모르더라도 생년월일로 조회가 됩니다. 연락처 : 02-567-1068, 9

롤도 시대 변화에 맞게

김성우

안녕하십니까?

한체대 학생으로서 스포츠 일간지의 명예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 학교에선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 시행 롤을 새롭게 바꿨는데 경기가 흥미 있게 진행되더군요.

태권도의 무제한급 도입과 점수의 차등제...

과거부터 있어온 고루하다는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태권도의 "모체"는 변하지 않더라도 롤과 그 밖의 것들은 시대에 맞게 변화를 거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무 자료 있으신 분 연락 바람

박상덕

필승!

저는 목원대학교 사회체육과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제가 요번에 교회와 학교에서 태권무 시범을 하기로 했습니다(혼자서). 태권무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요.

책이나 비디오 테이프가 있으면 하나만 보내주세요.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탁드려요. 주소는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구 318번지 로.

[편집지주]

태권도인들 간에 서로 자료를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태권체조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는 『태권도 한마당』 비디오 테이프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이 테이프는 국기원 매점(02-556-3416)에서 판매합니다.

경기장이 너무 추워요

장혜숙

jene-jang@han mail. net

지난주에 국가대표최종선발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뛰어난 기량을 겨루는 시합이라 매우 흥미진진했습니다.

각 학교와 기관별로 응원을 하는 모습도 매우 보기가 좋았으며, 특히 선수들 각자의 발차기를 보면서 정말 멋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년에 있을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뽑혀서 이제 열심히 각자의 기량을 더욱 갈고 닦아서 좋은 성적을 내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라 국기원 겨루기 하는 시합장이 추워서 구경을 하는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태권도 경기장이 속히 만들어져 출거나 더위도 마음놓고 각자의 기량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권도 경기 재미있어...

김대석

jindaxi@netian. com

지난 여름 방학 때 북경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TV에서 태권도를 소개하는 걸 봤다. 북경은 아니었고 다른 도시에서 젊은이들이 태권도를 열심히 수련하는 걸 봤는데 마음이 뿌듯함을 느꼈다. 중국

인 아파트에서 방 하나 빌려서 생활을 했는데 주인 집 딸(고1) 또한 태권도 2단이라고 자랑하는 걸 들었다. 씨름이 민족 경기로 자리잡고 있듯이 태권도 또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어야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전국체전이나 무슨 선수권 대회 또는 올림픽 대표 선발전만 가지고 태권도 붐을 일으킬 수는 없을 것 같다.

요즘 TV에 중계되는 경기는 별로 흥미롭지 못하게 사실이다. 예전에는(10년 전 쯤) 정말 재미있었다. 여러 가지 멋진 기술도 많이 나오고 특히 한국 선수와 외국 선수가 시합을 할 때는 기량 차이가 많이 나와 그랬겠지만 화려한 발차기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지금의 시합과는 다른 시합이 필요한 것 같다. 하단 공격도 가능하고 또 손날, 주먹 공격도 인정이 되고,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의 차별화가 있는 시합이 생겼으면 좋겠다. 또한 시합이 매달 또는 두달에 한번이라도 계속 정기적으로 열리고 TV로 중계를 해서 인기 스포츠가 된다면 태권도 선수 또한 박세리나 김미현 못지 않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태권도가 한국을 대표해서 전세계에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를 보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태권도가 스포츠화 되었긴 하지만 무도라는 본질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무도 정신이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게 된다면 한낱 유희로 전락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에서 태권도를 지도할 분

이유근

얼마 전 파키스탄 북부를 여행하다가 한국인 태권도 사범을 절실히 원하는 파키스탄 사범들을 만났습니다. Karaimabad라는 곳(파키스탄 북부의 유명한 관광 중심지. 장수마을로 유명한 훈자지방의 한 고을)에서 한 젊은 청년이 마을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매일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의 사부의 사부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해서인지 태권도의 문외한인 제가 봐도 어딘지 어색하고 단순한 동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한국사부로부터 몇달 동안만이라도 정통태권도를 배워보는 거랍니다.

혹시 외국으로의 태권도 보급에 뜻있는 분이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지...

이곳의 태권도 사범의 이름과 주소

MANZOOR ALAM
S/O MASHGHOL ALAM
P/O VILLAGE KARIMABAD
T.E.H ALIABAD HUNZA
DISTRIC GILGIT
NA'S PAKISTAN

이곳 사람들이 그리 부유하지 못하니 태권도를 가르쳐 돈을 벌기는 어렵겠지만 먹고 자는 것쯤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곳의 경치가 아주 좋아 여행삼아 가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학생이라면 방학을 틈타 가보는 것도 좋을 듯.

아시아 선수권, 월드컵대회 파견 국가 대표 선발

99.11.25-27 · 국기원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국기원에서 펼쳐진 2000년도 한국대표선수 최종선발대회에서 오는 5월 중국 홍콩에서 거행되는 제 14회 아시아선수권대회와 4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2000년도 월드컵대회에 파견할 남녀 국가대표 1, 2진이 각각 선발 됐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태극마크를 달겠다는 선수들이 도전의욕과 투지를 불태워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남자는 8체급 대표 1진 중 6명이나 새로운 얼굴로 세대교체된 반면 여자들은 지난해 국가대표 5명이 체급 정상을 지키는데 성공했다.

남자 웰터급 경기에서 류근우(한국카스공사·청)가 경희대 장순호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했으나 빗나가 있다. 43으로 류근우를 이긴 장순호는 결승에 올랐으나 경희대 오선택에게 무시승을 내주고 대표 2진에 선발됐다.



▲이승만 상임부회장이 해비급 1위를 차지한 문대성(삼성 에스원)에게 상장을 수여하며 축하해주고 있다.

▲여자 웰터급 결승에서 이선희(삼성 에스원·청)와 이정민(송곡여고)이 격돌을 펼친 끝에 3-1로 이선희가 앞서자 3회 이정민이 가권.



남자부 플라이급 결승에 오른 김대룡(웅인대·청)과 한국가스공사 김천규가 정상을 놓고 격돌을 펼치고 있다. 경기 종료 직전 2-1로 앞서가던 김천규는 연속으로 경고를 받으며 감점 2점을 받아 감점패 당했다.



▶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 팀의 감독들이 직접 세컨에서 선수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다. 사진은 한체대 이승국 감독의 모습



최고의 기량을 가진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자리인 만큼 심판원들도 최고 수준의 상임심판원들이 활약했다.

2000년도 국가대표 최종선발대회



여자 밴텀급 결승에 오른 정명숙(삼성 에스원·청)과 신경현(경희대). 신경현은 패자부활전을 통해 결승에 올라 두번의 경기를 모두 이기고 체급 정상에 올랐다.



▲직접 경기를 뛰는 선수만큼 코치들도 애가 탄다. 경희대 이경호 코치가 두 주먹을 쥐고 선수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모습은 더욱 치열해 보인다.

◀여자 밴텀급 결승에 오른 정재은(한체대·청)과 이지은(인현시청).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공방으로 3:3 동점을 이루었다. 정재은이 우세승을 거두었다.



남자 라이트급 경기에서 신에 조원철(한체대·청)이 전 국가대표 유승진(상무)에게 뒤돌려차기로 얼굴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다. 조원철은 결승에 올라 신준식(경희대)에게 4-2로 판정패, 대표 2진에 머물렀다.



남자 헤비급 정상이 가려지고 있다. 문대성(삼성 에스원·황)은 한재호(계명대)에게 2차 예선에서 패해 탈락했으나 패자부활전을 통해 결승에 진출, 2번의 경기를 모두 이기며 헤비급 정상을 차지했다.



▲신인 돌풍을 일으킨 한체대 장지원(청)이 여자 페더급 결승에서 용인대 신현순과 공격을 주고받은 끝에 1-1 동점에 우세승을 거두고 체급 정상에 올랐다.

◀여자 플라이급 결승에 오른 심혜영(삼성 에스원·청)과 장정은(경희대), 1차 결승에서 장정은이 3-3 동점에서 우세승으로 이겼으나 2차 결승에서 심혜영이 3-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국가대표선발대회 1차 예선전

99. 12. 7 ~ 10 (국기원)

시드니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0일
까지 국기원에서 시작된 1차 예선전을 시작으로 치열한 열전에
들어갔다.

98년도와 99년도에 각종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전적이 있는 우수한 선수들로 참가자격이 제
한된 이번 대회에는 남자부 150명, 여자부 79명 등 모두 229명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1, 2, 3위 선수들은 1월말 국기원에서 열리는 올림픽대표선발 최종전에 출전할 자
격을 획득했다.



올림픽 무대를

▲올림픽 대표선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대회를 참관하고 있는
이승환 상임부회장과
각 대학 교수들.

◀대회 첫날 열린 남자
+80kg 8강에서 이재성
(성균관대·청)과
조원철(한체대)이 치열
한 접전을 벌인 끝에
조원철이 판정승을
거두고 최종전
티켓을 따냈다.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국가대표선발대회 1차 예선전

▶ 올림픽 대표선발전 최종전 출전자격 획득

남자 -68kg

1위 정우열(경희대)

2위 노현구(한체대)

3위 신준식(경희대)

김동현(삼성 에스원)

남자 +80kg

1위 이석훈(한체대)

2위 조원철(한체대)

3위 문대성(삼성 에스원)

오선택(경희대)

여자 -57kg

1위 정재은(한체대)

2위 이정숙(인대)

3위 이지은(인천시청)

채혜경(경희대)

여자 +67kg

1위 신경현(경희대)

2위 이선희(삼성 에스원)

3위 윤현정(용인대)

오정희(경희대)



항한 뜨거운 열전

▲ '99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노현구(용인대·홍)와
노구갑(용인대)이
-68kg 8강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2-1로 노현구가
승리를 거두었다.



◀ 남자 -68kg 준결에 오른
노현구(한체대·청)와
신준식(경희대)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기 끝에 7-7 동점을
이루었다. 노현구가
우세함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국가대표선발대회 1차 예선전



▶ 여자 -67kg 경기에 출전해 화제를 낳았던 16강에서 남보라(경희대)를 3-2로 이긴 양정임은 8강에서 올해 국가대표인 심경현(경희대)에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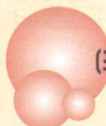


▶ 여자 -67kg 8강에 오른 오정희(경희대·홍)가 뒷차기로 한현아(경성여실교)를 공격하고 있다. 2-0으로 이긴 오정희는 최종전 티켓을 따냈다.

▶ 여자 -67kg 8강에서 이선희(삼성 에스원·홍)가 정진영(경희대)에게 원발로 얼굴공격을 퍼붓고 있다. 6-3으로 이긴 이선희는 올림픽 대표 최종전 티켓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김운용 회장, 여성스포츠인의 노고 치하



99. 12. 1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

김운용 회장은 한국여성스포츠회(회장 신민자)가 지난해 12월 1일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가진 제 11회 윤곡상 시상식에 참석,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제 11회 윤곡상 최우수선수상은 양궁국가대표 이은경(토지공사), 공로상은 나정선 교수(숙명여대 체육교육학과)가 수상했다.

한국여성스포츠회는 89년부터 김운용 회장의 아호를 딴 윤곡상을 제정, 해마다 여성체육인과 현역 여성 운동선수 1명씩을 뽑아 공로상과 최우수선수상을 시상해왔다.

▲김운용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한국스포츠 발전에 건인차 역할을 해준 여성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여성스포츠의 발전을 지원하며 참석자들이 축하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있다.



◀(왼쪽부터) 여성스포츠회 신민자 회장, 이은경 선수, 나정선 교수, 김운용 회장

시드니 올림픽 프레대회 태권도경기

한국, 프레올림픽서 금 4, 은 1 종합우승

99. 12. 4~5 (시드니올림픽파크)

한국은 지난해 12월 4일과 5일 시드니 올림픽파크 스테이트 스포츠홀에서 열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프레게임에서 금 4, 은 1개를 따 종합우승했다.

17개국에서 88명이 출전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대회 첫날 남자 -58kg과 -68kg에서 윤종일(삼성 에스원)과 강남원(경희대)이 각각 금메달을 확보한데 이어 둘째날 여자 +67kg와 남자 -68kg에서 권지희(고려대)와 신원일(한체대)이 각각 우승, 남자 +80kg에서 박형래(도시철도공사)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대만은 금 1, 은 1, 동 1개로 종합 2위, 터키는 금 1, 동 1개로 3위를 차지했다.

RENTAL
011-8229 / Culture / 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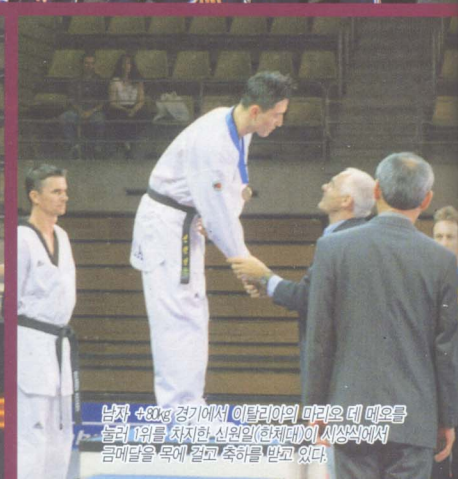
RENTAL
011-8229 / Culture / 028



프레올림픽에 출전한 대표선수들



권지희(고려대)는 +67kg 결승에서 호주의 타나 화이트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80kg 경기에서 이탈리아의 마리오 데 메요를 눌러 1위를 차지한 신원일(한체대)이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축하를 받고 있다.

한체대, 제 1회 태권도 겨루기왕 선발대회

'차등점수제' 적용으로 관심 집중



99. 12. 1



지난해 12월 1일 한국체육대학 태권도학과 주최로 제 1회 태권도 겨루기왕 선발대회가 개최되었다.

기존의 경기방식과는 달리 '득점차등제'를 이용한 경기방식으로 치러진 이 대회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관객의 재미를 이끌어 냈다.

◀이 대회에서는 몸통 1점, 얼굴 2점, 두발이 공중에서 270도 이상의 회전공격 성공은 3점으로 차등을 둔 경기방식으로 역전이 많아 경기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됐다.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한국에 전지훈련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남자 2세급, 여자 1세급 등 모두 3세급 출전권을 따낸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은 종주국을 찾아와 전지훈련을 가졌다. 대학 및 실업팀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꾀한 이들은 2000년도 국가대표선발전이 열린 국기원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하며 전력분석에도 열을 올렸다.



국기원에서 국가대표선발전을 관람하고 있는 이탈리아 국가대표선수들

99. 11. 3 ~ 17

국가대표시범단은 지난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을 순회하며 시범 및 세미나를 통해 태권도의 진수를 선보였다.

절도있는 품새, 고난도 격파시범, 흥겨운 태권 체조 등이 펼쳐질 때마다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호한 현지인들은 시범이 끝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립박수를 보내 시범단은 한차례 더 시범을 보이는 등 성공리에 시범활동을 펼쳤다.

시범단은 이번 3개국 시범을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지역에 태권도의 열기를 확산시켰고 올림픽 영구종목 채택을 위한 스포츠 외교력 강화에 기여했다.

<시범단 명단>

- ▶ 단장 : 황춘성 ▶ 감독 : 이규형
- ▶ 섭외 : 이종국 ▶ 주무 : 장미란
- ▶ 단원 : 오대영, 이춘우, 정재환, 성낙훈,
허정행, 이진영, 곽택용, 손주홍,
김춘호, 박용기, 성시훈, 홍성호,
김현섭, 박진수, 이정민, 정선미



▲ 고난도 격파시범이 펼쳐질 때마다 숨죽이며 지켜보던 관중들은 시범을 마치자 기립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황춘성 태권태권도협회 부회장(첫줄 가운데)을 단장으로 한 시범단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해외 시범 길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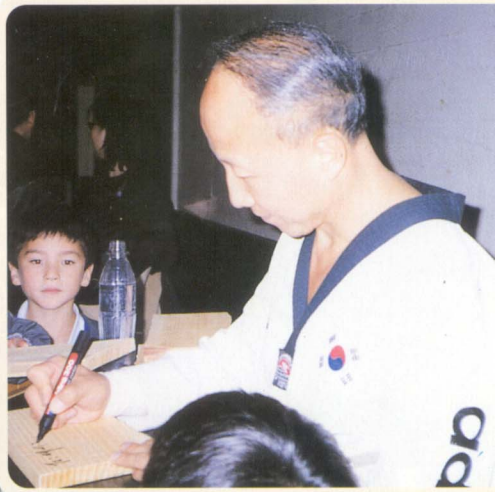
튀니지 3개국 순회시범



참모습 널리 보여주다

◀튀니지의 아리아니체육관에서 개최된 시범에는 약 4천 여명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펼쳐졌다.

▶덴마크에서 시범을 관람한 어린이들이 송판을 들고와 이규형 감독에게 사인을 받고 있다.



◀어는 곳에 가든지 가장 인기를 끈 시범은 호신술 시범이었다.

▶시범이 끝난 후에도 관중들은 시범단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99. 12. 4 (목기원)

국기원은 지난해 12월 4일 6, 7, 8, 9단 고단자 심사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에는 6단 134명, 7단 33명, 8단 10명, 9단 12명 등 모두 189명이 응심해 품새와 겨루기 실기심사 뿐만 아니라 태권도 정신을 주제로 한 논문을 작성했다. 특히 1900년대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심사에는 태권도 최고수 인 9단에 모두 12명이 응심해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국기원 엄운규 부원장이 참석자들에게 약수를 건네고 있다.

수십년간 태권도를 수련하며
6, 7, 8, 9단 심사에 189명 응심



9단에 응심한 태권도 고수들의 모습.

고단자 심사



▶ 7단 응심자들이 품새를 보이고 있다.

몸과 마음을 닦아온 고단자들

품새, 겨루기, 논문심사

▶ 9단에 응심한 이규현(왼쪽) 씨와 전승환 씨가 힘차고 절도있는 품새를 보여주고 있다.



심사위원석

심사위원석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열중하고 있다.

제 32기 3급 생활체육지도자연수

99. 11. 24 ~ 12. 3

국기원태권도지도자연수원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제 32기 3급 생활체육지도자연수교육을 실시했다.

하루 8시간씩 태권도 이론과 실기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은 자격 검정시험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 발급 3급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을 받고 태권도 지도자로 활약하게 된다.

▶ 수료식에서 김호재 학감이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강영화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3급 생활체육지도자연수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이 검정용 의장 등 임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